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진 명 지

2022년 2월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지도교수 박 경 숙

진 명 지

이 논문을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진명지의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영해	
위 원	마동훈	
위 원	김정호	
위 원	최수진	
위 원	박경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年 2月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ii
국문초록	v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1
제1절 감염병과 사회위기	11
1. 감염병의 역사	11
2. 감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
제2절 감염병과 미디어	26
1. 미디어 의존 이론과 위기인식	26
2. 감염병 뉴스 보도 프레임	29
3. 감염병 위기와 위험커뮤니케이션	32
4.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 선행연구	35
제3절 감염병과 정부 보도자료	39
1.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프레임	39
2.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상호작용	41
3. 정부 보도자료 관련 선행연구	42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5
제1절 연구문제	45

제2절 연구방법	47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47
2. 분석방법 및 분석유목	51
제4장 연구결과	60
제1절 감염병 언론보도의 특성	60
제2절 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적 특성 및 언론보도와 비교 분석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130
제1절 결론 및 함의	13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54
Abstract	166

표 목차

표 1. 역대 감염병 사례	13
표 2. 2000년대 이후 신종 감염병의 사망자 비교	14
표 3. 2000년대 이후 신종 감염병의 주요 특성	18
표 4.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 및 신설 현황	22
표 5. 감염병 보도준칙의 7가지 기본원칙	24
표 6. 법률안 주요 내용	25
표 7. 정부 보도자료 관련 선행연구	44
표 8.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기간	48
표 9. 감염병별 보도자료 분석기간	48
표 10.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건수	49
표 11. 감염병별 보도자료 분석건수	50
표 12. 감염병 언론보도의 분석유목	53
표 13. 프레임 분류 및 정의	55
표 14. 감염병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분석유목	57
표 15. 언론사별 기사 심층성	61
표 16. 언론사별 취재 심층성	62
표 17. 언론사별 보도 사실성	63
표 18. 언론사별 보도 방향성	64

표 19.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67
표 20.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	69
표 21. 감염병별 취재 심층성	70
표 22. 감염병별 보도 사실성	71
표 23. 감염병별 보도 방향성	72
표 24.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75
표 25.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	78
표 26. 감염병별 프레임 유형	81
표 27. 주차별 언론사의 기사 심층성	84
표 28. 주차별 언론사의 취재 심층성	86
표 29. 주차별 언론사의 보도 사실성	88
표 30. 주차별 언론사의 보도 방향성	90
표 31. 1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91
표 32. 2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92
표 33. 3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93
표 34. 4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95
표 35. 주차별 언론사의 프레임 유형	98
표 36.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기사 심층성	101
표 37.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취재 심층성	104

표 38.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보도 사실성	106
표 39.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보도 방향성	109
표 40. 1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111
표 41. 2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112
표 42. 3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113
표 43. 4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114
표 44.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프레임 유형	118
표 45. 감염병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량 비교	119
표 4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형	122
표 4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공형태	123
표 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보원	124
표 4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프레임	125
표 50.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 비교	127
표 51.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 비교	12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포함한 5종의 감염병 발생 후 초기 한 달간의 한국 언론보도의 내용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도자료 특징 분석과 함께 언론보도와 정부 보도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적 특성인 정보원과 프레임을 갖고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언론사별, 감염병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도 심층성, 보도 사실성, 보도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도자료 유형, 제공형태, 정보원, 프레임이 어떠한지, 나아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의 정보원과 프레임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기간은 감염병별 최초 보도 이 후 한 달간으로 보았다. 특히 감염병이 발화되는 초기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분석기간 초기 한 달을 세분화 시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기간을 나눠 주차별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도자료 분석기간은 언론보도 분석기간에서 각 하루 전을 기준으로 한 달간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한겨레>, <SBS>, <KBS> 4개 언론사이고 신문사의 자료수집은 기사 원문을 제공하는 아이서퍼(www.eyesurfer.co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방송 뉴스인 KBS 뉴스9(www.news.kbs.co.kr)와 SBS 뉴스8(www.news.sbs.co.kr)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기 위해 각 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석기간을 설정 한 후 다시보기와 스크립터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된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위의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보도 기사 건수는 총 2,549건이었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각 언론사들의 감염병 관련 보도 특성을 살펴보면 보도 심층성 가운데 기사 심층성은 언론사 모두 대응분석(1,309, 42.5%)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원인분석(379건, 12.3%)이 가장 적었다. 또 각 언론사들의 취재 심층성을 살펴보면, 일반기자 유형이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는 262건(10.0%)으로 다소 적은 수치였다. 보도 사실성을 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사실 중심적인 기반에 두고 보도하고자 노력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도 방향성으로는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논조(32건, 1.3%)보다 부정적인 논조(290건, 11.4%)의 기사가 더욱 많았다. 각 언론사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정보원 유형을 정리해보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59건(31.1%)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어, 한국 전문가가 615건(15.2%)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감염병별 언론보도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사 심층성에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발생 당시는 대응분석이, 신종플루는 사건발생(89건, 34.8%)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영향분석(27건, 34.6%)이 가장 많았다. 취재 심층성은 감염병 모두 일반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보도 사실성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감염병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중심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고, 보도 방향성은 감염병별 모두 중립보도가 가장 많았다.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정보원 유형을 정리해보면, 한국정부 및 지자체를 가장 많이 활용한 감염병은 사스(105건, 24.4%)와 신종플루(82건, 30.6%), 메르스(595건, 34.8%), 코로나19(459건, 29.9%)였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경우 다른 감염병 시점과 달리 세계기구(27건, 20.0%)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의 기사들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 프레임이 1,489건(34.2%)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송사에 비해 신문사의 경제 프레임 유형 비중이 높았고, 방송사는 신문사에 비해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예방 프레임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네 번째로, 감염병별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을 알아보면 감염병 종류와 상관없이 정보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메르스 당시가 정보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에볼라바이러스병(29건, 25.4%) 때문이며, 경제 프레임은 사스(49건, 10.2%)가, 사회영향 프레임은 코로나19(336건, 20.1%)가, 공포 프레임은 신종플루(56건, 16.9%) 당시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감염병 발생 초기 한 달을 다시 주차별로 나눠 언론사별 보도 특성을 살펴본 결과, 1주차 기사 심층성에서는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2주차에서는 영향분석에 대한 기사가 더 많아졌고, 한겨레는 오히려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1주차에 비해 약 16%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BS는 영향분석 기사가 많았던 1주차와 달리 2주차에서는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비율이 약 20%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주차에서는 언론사 모두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는 여전히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주차에서는 전체 언론사 모두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조선일보와 SBS에서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 심층성에서 1주차의 조선일보와 KBS는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이 보도한 기사 건수의 비율이 높았고, 한겨레와 SBS는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았다. 2주차에서는 KBS와 SBS인 방송사에서만 특파원의 비율이 일반기자 다음으로 높았으며 3주차와 4주차에서는 언론사 모두가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다. 보도사실성에서는 주차별 차이 없이 모두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보도방향성에서도 주차별로 상관없이 언론사 모두 중립보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정보도, 긍정정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에서는 26개의 정보원 항목 가운데 상위 순으로 7개의 항목만을 추린 결과, 1주차에서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와,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달리 세계시민과 해외 전문가 대신 한국 및 해외 기업과 시민 항목이 상위항목에 올랐다. 3주차에서는 2주차에서의 세계기구 항목 대신 해외 전문가가 등장 하면서 한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4주차에서는 3주차에서의 해외 전문가 항목 대신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주차별 언론사의 프레임 유형을 11개 항목 가운데 상위 7개만을 추린 결과, 1주차에서 언론사 모두 정보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일보와 KBS의 경우 두 번째로 사회영향 프레임이, 한겨레와 SBS에서는 정책 프레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서는 정보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신문사에서 공포 프레임 활용 비율은 낮아 졌지만, 오히려 방송사에서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사회영향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이, KBS는 설득 프레임이, SBS는 정보 프레임, 공포 프레임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4주차에서는 3주차와는 달리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이, KBS는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이, SBS는 정보 프레임, 갈등 프레임, 설득 프레임, 공포 프레임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감염병별 주차별로 나타난 언론보도 특성을 살펴보면, 기사 심층성의 경우 1주차에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분석과 영향분석에, 메르스 때는 사건발생과 원인분석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서는 사스와 신종플루의 경우, 사건발생과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메르스, 코로나19는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는 사스,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도가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사건발생과 영향분석이 높았다. 4주차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도의 경우, 3주차와 달리 사건발생과 원인분석이 가장 많았으며, 메르스도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취재 심층성을 살펴보면, 1주차에서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지만 메르스는 전문기자가, 코로나19는 특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주차와 3주차에서는 감염병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기자가 취재한 보도가 가장 많았다. 4주차에서는 사스와 에볼라, 코로나19는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도 사실성을 살펴보면, 감염병 종류와 주차별에 상관없이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도 방향성을 살펴보면, 1주차에서는 감염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중립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2주차에서는 메르스 당시 때가 부정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주차에서는 감염병별 전체적으로 부정보도에 대한 비율이 2주차에 비해 높아졌으며,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제외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는 긍정보도가 없었다. 4주차에서는 중립보도에 대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반면, 부정보도는 낮아졌고, 신종플루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에서 긍정보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1주차에서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정보원 유형이, 에볼라바이러스와 코로나19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 정보원 유형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2주차의 정보원 유형은 1주차와 달리 시민 정보원이 등장하였다. 또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당시,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신종플루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는 2주차와 달리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한국 및 해외 기업이 등장하였다. 대체적으로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해외정부 및 지자체 정보원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메르스와 코로나19에서만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주차에서는 3주차와 달리 세계기구와, 자영업자가 등장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와 해외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정보원만이, 그 외 나머지 감염병 발생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해외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차별 감염병별로 나타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1주차에서 사스와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을, 신종플루와 에볼라는 정책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을, 메르스는 정보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달리 사회영향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의 비율이, 코로나19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는 대체적으로 2주차와 비슷한 비율의 프레임 유형을 보였는데 다소 차이점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 공포 프레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4주차에서는 3주차와 비슷한 비율의 프레임 유형이 나타났다.

일곱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 특성을 보도자료 유형, 제공형태, 정보원, 프레임을 통해 살펴보면, 보도자료 유형은 정보 제공형(113건, 51.1%)이 가장 많았다. 감염병별로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경우 정보 제공형이, 신종플루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정책 홍보형이 가장 많았다. 보도자료 제공형태를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보도자료만'이 89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병별로 봤을 때 코로나19를 제외한 4종의 감염병에서 '보도자료만'인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는 보도자료+붙임자료의 제공형태가 19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자료 정보원 유형을 감염병별로 알아본 결과, 감염병 종류와는 상관없이 한국정부 및 지자체(178건, 9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보도자료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당시 보도자료에서 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정책 프레임이 9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정보원과 프레임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정보원은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였다.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비교한 결과,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모두 가장 비중 있게 다룬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었다. 보도자료 프레임 유형에서는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예방 프레임, 설득 프레임,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만이 나타난 반면에, 언론보도 프레임은

보도자료 프레임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영향 프레임, 공포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이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문 기자의 비중이 낮은 만큼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초기 방송보도에서 국민들에게 공포 프레임을 통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으로 볼 수 없기에 추측, 과장된 표현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촉구 할 수 있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해야 하겠다. 즉, 감염병 발생 초기의 올바른 언론보도로 정부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방역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

주제어: 감염병, 범유행, 미디어 의존, 위험커뮤니케이션, 뉴스 프레임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글로벌 사회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¹⁾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21세기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H1N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혹은 그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대유행 사태를 수차례 겪으면서, 전 세계인들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 혼란에 빠졌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이선영, 2020). 현재 이들보다 더한 강도와 충격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또는 Covid-19로 약칭함)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난 현황이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인류가 과거의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과연 어떤 경험과 교훈을 얻었는지,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하여 다른 국가,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초기, 각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낙관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확산을 체계적으로 막지 못하였다(오재승, 2020). 이에 결국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이훈철, 2020),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사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2021년 11월 23일 기준으로 2억 5654만 명 이상, 사망자는 514만 명 이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 국외발생 현황, 2021). 1981년에 발발하여 현재까지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이즈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019년 12월 기준 약 3300만 명(동아시아언스, 2021)인 점을

1)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 포럼의 창립자인 슈밥(Schwab)이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회자되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초지능화와 함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넘어 사물과 사물에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초연결사회가 시작된다는 전망이었다(김재영, 2021).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초연결성으로 이어진 네트워크사회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으며 인류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되면서 바이러스 역시 전 세계로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이다(박지용, 2021).

제외하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대식 의료 체계가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전파·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김태림, 2016), 감염병으로 인한 최대 사망자 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촉진한 ‘초연결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전 세계는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취약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제적으로 공중 보건 및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켰고 각종 주요 행사 취소, 여행 및 일상생활의 제한, 세계 금융시장 변동 등과 같은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다(Cooper, 2020).

2002년에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6개월 만에 30개국에서 8천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774명이 사망함으로써, 약 10%의 치사율을 기록하였다(한겨레신문, 2015). 먼저, 사스는 초연결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문제점을 거의 최초로 상징성 있게 보여준 현상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스의 확산세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다가왔지만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그보다 수 십, 수 백 배나 강력하고 충격적인 반면, 세계 각국의 대응 방식 및 국제 협력과 공조는 사실상 개선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2020년 1월 20일)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98일(2020년 4월 28일)이 소요되었지만, 2020년 7~8월의 2차 대유행기 때에는 100만 명 단위로 늘어나는 데 불과 15~25일이 소요되었다(한국일보, 2020). 이처럼 코로나19의 2차, 3차 재확산이 거듭될수록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코로나19의 신종 변이들이 발견되고 그들이 재확산 될 때마다 확진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방역 시스템의 보완 및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목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차단 및 신속한 대응이 단계별, 시기별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나 변이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차 공론화되었다. 이로 인해, 2021년 중반부터 세계 각국은 코로나 종식 대신 ‘위드(with) 코로나’, 즉 코로나19와의 장기 공존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강승지, 2021). 위드 코로나는 전국민의 대다수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워드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 접종률(2차 접종 완료 비율)이 국가 방역 시스템의 성공 기준이자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보건 의료 정책 및 언론보도, 학술 연구의 방향성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우 장기화, 만연화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부득이하게 변화하긴 했지만 감염병의 해법과 대응은 원칙적으로 종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본래,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재난 상황에서는 최초의 위기 신호가 감지된 이후, 대확산 직전 단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와 양상, 피해 지속 시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즉, 정부와 공중 보건 및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사실상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Chipidza et al., 2021). 결과론적이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나머지 팬데믹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적절함이야말로 재난의 수습, 극복의 전체 과정 및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난 2년여 동안 세계 각국의 복잡한 상황 변화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팬데믹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는 당연히 각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세부 대응 방침, 대응 전략 등이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국 언론의 역할과 보도 태도 역시 강조된다(강소영, 2020). 언론은 감염병 등을 포함한 심각한 재난의 실상과 위험 상황, 대처 행동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합리적인 안내자, 중재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언론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 하는지에 따라 언론 수용자인 국민들의 위기 인식과 대응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이다(김동규, 2002). 미래에는 감염병 대유행이 더욱 빈번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마다 각국 여론과 국민 행동의 향방이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역할과 태도가 갈수록 중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언론의 신속·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는 더욱이 중요하다 볼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취재기자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에 있어 큰 경각심을 일으켰던 것은 세월호 참사 후였다. 속도경쟁으로 인해 정확한 보도 원칙을 지키기 보단 흥미 유발성 과장 보도, 희생자들의 신상 파헤치기 등의 보도가 주를 이뤄 거센 비판을 받았고 (백선기·이옥기·이경락, 2012), 이는 추후 재난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2014년 9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난보도준칙’이 제정되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재난관련 취재 보도에서 정확한 보도,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선정적 보도 지양, 비윤리적 취재 금지 등과 같이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종현, 2019).

그리고 2020년 4월, 재난보도와는 구분되면서 감염병에 특화된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감염병 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포조장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담지 말자는 취지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감염병 확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를 지양하자는 것으로 기사제목과 내용에 ‘패닉’, ‘대란’, ‘공포’, ‘창궐’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감염병의 규모와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었다(미디어의오늘, 2020). 그러나 그 주체가 특정 출입처 기자단을 중심으로 작성되다 보니 2012년에 만들어진 감염병 보도준칙은 전체 언론사에 배포되는 경로와 절차에 한계가 있어 널리 퍼지지 못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있는 보도가 아닌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적 보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고 (유승관, 2014),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감염병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전문기자가 취재하지 않은 기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허용강·차수연·서필교 외 2인, 2015) 언론계에서는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또 다시 느껴 ‘감염병 보도준칙’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준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오윤경·류현숙·허준영 외 2인, 202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양상과 실태 분석을 통해 감염병이라는 ‘세계 공통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고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혹은 해외에 유입됐던 1급 법정 감염병 가운데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정확하게 한 달 간의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기 한 달간의 언론보도 형태, 프레임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응 행동이나 전략 체계가 아직 미흡하고 어수선했던 초기 시점에서의 언론의 올바른 보도 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취재제약으로 인한 반복되는 언론의 한정적인 정보원 활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도 프레임 결정에 있었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희봉·이연수·이해수, 2021). 지금까지 재난보도와 감염병 보도에 등장하는 정보원 유형은 대체적으로 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정의철, 2008; 김영욱·함승경·안현의, 2015).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위기 대응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정보 제공 능력이 강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서현, 2020). 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일차적인 정보 출처는 관리주체인 정부 및 기관,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감염병 보도에 있어 정부의 중요한 공식 메시지가 담긴 시의성이 큰 보도자료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이선정·반현, 2017). 이처럼 언론사의 중요한 취재 자료 중 하나인 정부 보도자료가 중간에 왜곡이나 손실 없이 뉴스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사 양측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당위적인 명제를 현재의 정부 보도자료와 한국 언론사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감염병 보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적 특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감염병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도자료 안에서 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및 지자체와, 해외정부 등의 정보원과 언론보도의 정보원이 상당부분 일치하는지, 보도자료의 주요 프레임으로 예상되는 정책프레임, 정보프레임이 언론보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성과 전략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목표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과 범위를 다각화·다원화하고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우려와 혼란, 충격을 유발했던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를 포함한 4종의 감염병 발생 후 초기 한 달간의 한국 언론보도의 양상과 내용적 특성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재난 발생 후 초동 대응 과정의 전략적 중요성과 효과, 극복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만을 대상으로 하면, 분석 내용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엇보다 감염병 종류에 따라 그 크기와 영향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감염병에 따라 초기 대응에서의 차이점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포함한 5종 감염병에 대한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해 분석 자료, 분석 관점, 분석 내용의 다각화·다층화로 본 연구의 가치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한 5종 감염병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글로벌 초연결성이 강화된 동시에 국가 간 장벽도 함께 느슨해진 틈새를 공략하면서 대대적으로 확산된 감염병들을 선정하였다. 2002년에 발발한 사스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감염병 확산과 팬데믹으로의 심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현대 문명의 새로운 위협이 되는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둘째, WHO에 의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으로 지정되었거나 (코로나19), 범유행 감염병(팬데믹의 전 단계)으로서,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감염병으로 지정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2003년에 발발한 사스, 2009년에 발발한 신종플루, 2014년의 에볼라바이러스병, 2015년의 메르스 등은 모두 WHO에 의해 국지적 범유행 감염병인 동시에,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이 같은 유사성 및 글로벌 언론보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전세계인들의 관심과 충격이 집중된 상황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5종 감염병을 한국 언론보도의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5종 감염병 모두 바이러스를 감염원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이로 인해 전염성이 강하고 중증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으며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국지적 범유행 또는 세계적 범유행(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기본적으로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3종 감염병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을 감염원으로 하기 때문에(사스: SARS-CoV, 메르스: MERS-CoV, 코로나19: SARS-CoV-2 등), 감염병으로서의 유사성과 연관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병원균의 유사성, 감염·확산의 유사성, 감염병 범유행 규모의 유사성, 언론보도 및 여론 향방의 상황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5종 감염병을 한국 언론보도의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팬데믹 또는 그에 준하는 5종 감염병의 발생 초기 한 달간의 한국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 및 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한 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나눠 주별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감염병 초기가 중요한 만큼, 발화되는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 등 5종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요인들에 대한 분류 유목과 분류 기준 및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와 주요 미디어 이론들에 대한 고찰 내용을 근거로 3장 연구방법에서 구성·논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5종 감염병에 관련된 한국 언론 보도를 내용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폭넓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대재난 시 언론보도의 양상 및 기능, 역할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언론은 정보제공 기능, 상관조정 기능, 환경감시 기능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감염병 확산이나 대재난 등 비상시의 상황에서 신속 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언론의 당위적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특정 이슈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구성·전달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진로·안병규, 2010), 특히 재난 시에 언론이 위험 정보의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공중의 위험 인지 및 대응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Renn et al., 1992).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와 이해, 공감, 협동 등을 유도·심화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각국 언론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가 차지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영향력 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감염병 대유행의 초기 단계의 언론보도의 양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 목표이자 꼭 필요한 문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팬데믹 또는 그에 준하는 국지적 대유행의 단계로 확산된 5종 감염병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의 세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출된 감염병 언론 보도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1종이나 2종 감염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특성 중 개별 요인 1~2개 항목만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공공 의료 체계 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5종 감염병에 대한 언론 보도의 복합적 양상과 약 20년간의 추이 변화를 전체적,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감염병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계량적 내용 분석을 통한 양적 분석의 타당성, 종합성 등을 더욱 심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주요 언론사의 보도 기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제시한 보도 자료에 대한 내용적 특징 분석도 추가 및 보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정부 보도 자료의 경우 언론 보도와는 기본 성격이나 내용, 목표 등이 다른 이질적인 자료인 관계로 언론 보도와 정부 보도 자료에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적 특성인 정보원과 프레임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현재 상황과 뉴스의 사실적 전달만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적인 상황 파악과 진단, 대응 전략과 대국민 행동 지침 등을 직접 전달받아서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기꺼이 담당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역할이자

핵심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특히 감염병 발생 직후 최초의 한 달 동안에는 정부의 고급·핵심 정보 제공, 사태 진단, 대국민 메시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정부 보도자료를 언론이 어떤 프레임과 관점에서 해석·재구성하고 전달하느냐, 정부 보도자료를 둘러싼 정부-언론-국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언론의 역할과 기능, 바람직한 정체성 등을 파악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 보도 자료의 내용적 특성 분석과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 정부 보도자료 비교 분석을 포함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감염병과 사회위기

1. 감염병의 역사

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진균, 리케차, 스피로헤타 등과 같은 다양한 감염원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된 후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병증을 지칭한다(강만구, 2021; 이규명, 2018; 山本太郎, 2020; Snowden, 2020). 2010년대 이전까지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전이·확산되는 전염병보다 사람과 동물 간에 전이·확산되는 병증들이 2000년대의 초연결 사회 진입 이후 본격적으로 빈발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커짐에 따라, 이들을 전염병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칭하게 되었고(이규명, 2018; 山本太郎, 2020),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염병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2010년대 이후부터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감염병을 제1급~제5급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사열, 클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 열, 천연두,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디프테리아 등 17종으로 지정되었다(이규명, 2018). 본 연구는 17종으로 지정된 제1급 감염병 중에서도 확산 양상, 정부 대응, 언론 보도,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 등에서 공통성이 확인되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 등 5종 감염병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윌리엄 맥닐(William H. McNeill, 2005)은 전염병이 인간에 처음으로 발생한 시기를 약 1만 년 전으로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동물과 같은 가축으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는 것이다.

인류를 위협했던 감염병의 역사는 크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 되던 당시에는 흑사병, 결핵, 매독,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대표적이다. 페스트는 6세기 중엽 로마제국을 강타해 도시 인구 40%가 사망했으며 1300년대에는 유럽인구의 3분이 1이상의 생명을 앗아갔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스페인 독감, 홍역, 수두, 사스,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플루,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이 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되는 사망자의 수만 200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과거 천연두와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콜레라 등과 같은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꾸었다. 또한 1918년 이후 그간 100년 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냈다(Jennifer Wright, 2002/2020).

이처럼 <표 1>과 같이 과거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감염병은 수십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생겨나게 했으며 인류사회에 매우 위협적이고 사회·경제 문제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존재해왔다.

<표 1> 역대 감염병 사례

유행시기	발생지역	병명	사망자
165-180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천연두	500만 명
541-750	유럽	유스티니아누스	2500만 명
1347-1351	유럽	흑사병	7500만 명
1519-1521	멕시코	천연두	500-800만 명
1633	미국	천연두	2000만 명
1816-1826	아시아, 유럽	콜레라	1500만 명
1852-1860	러시아	콜레라	100만 명
1860-1894	중국, 인도, 홍콩	대역병	1000만 명
1918-1919	전 세계	스페인 독감	5000만 명
1918-1922	러시아	티푸스	300만 명
1957-1958	전 세계	아시아 독감	200만 명
1968-1969	전 세계	홍콩 독감	100만 명
1980-현재(진행 중)	전 세계	에이즈	3900만 명

참고: '인간이 호출한 바이러스...인류를 위협하다'(한겨레신문, 2015.7.8.). 자료 재구성

현대의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면서 신종 감염병은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며 쉽게 전파 되었다. <표 2>의 내용을 보면 2002년 12월 등장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며칠 만에 세계 30여 개국으로 퍼졌고 6개월 만에 30개국에서 8천 명 이상이 감염, 774명이 사망해 약 10%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한국에서는 3명의 추정환자가 발생했었다.

<표 2> 2000년대 이후 신종 감염병의 사망자 비교

유행 시기(년)	병명	해외			한국		
		감염자(명)	사망자(명)	치사율(%)	감염자(명)	사망자(명)	치사율(%)
2003	사스	8,273	775	9.3	3	-	-
2009	신종플루	2,554,595	14,378	0.056	107,939	260	0.24
2014	에볼라 바이러스병	28,646	1,1323	39.5	-	-	-
2015	메르스	1,154	471	40.8	186	38	20.4
2020	코로나19 ²⁾	238,556,494	4,867,104	2.04	331,519	2,575	0.78

참고: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통계자료

2) 2021년 10월 10일 기준의 수치로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참고함.

1) 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WHO가 지정한 정식 명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이다 (이규명, 2018; 평베이베이, 2019). 한국에서는 국립보건원이 해당 질병을 ‘사스’로 지칭한 이후 이 명칭이 보편화·대중화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감염병을 사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분석 내용의 전달성, 가독성을 위해 본 연구도 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성 포산[佛山]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2003년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총 8,096명의 감염자 및 77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사율 9.6%)(Shibo et al., 2013). 이 과정을 통해, 사스는 글로벌 사회, 경제, 보건, 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친 후 2004년 7월에 공식적으로 박멸·종식되었다. 사스의 원인균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의 또다른 변종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병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즉 코로나19이므로, 사스는 코로나19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신종플루

2009년에는 신종플루(H1N1)로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약 260만 명, 한국에서는 약 11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H1N1은 앞서 언급했던 스페인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H1N1 아종의 변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WHO가 지정한 정식 명칭은 신종인플루엔자이고, 이 질병으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는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이라고 지칭된다(박상표·조홍준, 2010; Stephenson, 2010). 2009년 3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최초로 발병하였으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80만 명이 넘는 감염자, 1만 4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의 특성으로 인해 워낙 변종이 많은 데다 각 변종들이 일일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것이 다른 감염병에 비해 어렵다고 보고되었다(ECDC, 2010). 신종플루 역시 WHO에 의해 국지적 범유행 감염병이자,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심각하고도 위험한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Stephenson, 2010), 그 심각성, 위험성은

거의 매년 국지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이처럼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인류의 건강, 생명, 삶의 질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범유행성 감염병이다.

3) 에볼라바이러스병 또는 에볼라출혈열

2014년에는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사율이 꽤 높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발생하여 약 2만 9천 명이 감염되었고 약 1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는 필로바이러스과, 에볼라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한 종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WHO가 지정한 정식 명칭은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EVD) 또는 ‘에볼라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 EHF)이다(Newton Press, 2015; Shah, 2017; WHO, 2014). 소규모의 국지적, 간헐적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은 20세기 초반부터 발생해 왔지만 2014년 4월에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하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지로 확산되어 국지적 범유행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위협 사태이다(WHO, 2014). 일반적으로 에볼라 대유행 또는 에볼라 범유행으로 지칭되는 것은 2014년 하반기 당시의 상황을 지칭하며(Preston, 2015), 본 연구도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2019년 11월에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rVSV-ZEBOV’가 조건부 승인·출시되었다(WHO, 2019).

4) 메르스

2015년 5월에는 그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발생하여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메르스로 인해 한국에서 186명이 감염되고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메르스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WHO가 지정한 정식 명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이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의 명칭을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는 명칭인 ‘메르스’가 한국에서 대중화·보편화된 관계로, 본 연구는 내용의 전달성, 가독성을 고려하여 메르스라고 일관되게 지칭하고자 한다. 메르스 대유행은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개시·확산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여명이 감염되고 그 중 4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HO, 2014).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 확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국지적 감염병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5년 5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후부터 수개월 동안 유행하였는데 2015년 유행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감염자의 수가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은 바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다른 4종 감염병의 전개 양상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코로나19

코로나19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병으로서 2019년 11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다른 4종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 국가로 확산되었다(강만구, 2021; 강소영, 2020; 이성우·정성희, 2020). 엄청나게 강력한 전염성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종, 그로 인한 2차, 3차 재확산·재유행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대응 및 차단 전략이 연속적으로 무력화된 결과, 마침내 2020년 3월 11일에 WHO에 의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공식 선언되었다(이훈철, 2020). 2021년 9월 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2억 280만 명 이상, 사망자는 468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었다(Ritchie et al., 2021). 2021년 10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백신 보급 및 전 국민 필수 접종 등을 전제로 한 ‘위드 코로나’라는 장기 대응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부터 발생한 감염병은 <표 3>와 같이 발생시기, 발생국가, 확산단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여부 등 주요 특성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00년대 이후 신종감염병의 주요 특성

구분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
발생국가	중국	미국 멕시코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첫 발병일	2002년 11월 16일	2009년 4월 15일	1967년	2012년 9월 24일	2019년 12월 31일
한국 첫 감염자 발생일	2003년 4월 29일	2009년 5월 2일	-	2015년 5월 20일	2020년 1월 20일
확산단계	1차 감염	2, 3차 감염 지역사회감염	2차 감염	2, 3차 감염 병원 내 감염	n차 감염 돌파 감염
상황 종료	2004년 5월 19일 <한국 사스 비상검역 해제>	2010년 3월 31일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2016년 1월 14일 <WHO, 서아프리카 3개국 종식 선언>	2014년 12월 23일 <WH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	진행 중
백신·치료제	-	타미플루 리렌자 백신접종	어베보 인마제브	-	백신: 모더나,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 몰루피 라비르(경구용)

참고: 보건복지부 감염병 백서

2. 감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독일의 사회학자 벡(Beck, 1992)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질병과 같은 각종 위험이 있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감염병은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실도 유발된다.

사실 감염병의 원인균은 세균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질병의 양상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사회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약한 연결고리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Snowden, 2020).

이처럼 감염병 발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국민들의 심리적 변화이다. 먼저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커지고 이와 관련한 건강 이슈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또한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게 되거나 기분이 가라앉게 된다. 최근 한국 정신건강의학 전문인들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그리하여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경제 변화이다. 2014년 알루미늄 원광석인 보크사이트와 금 등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던 서아프리카 경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인해 무너졌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 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최절정이었던 2009년 6월의 기록과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섯다운’의 파급력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3월의 취업자 수가 68만 명 정도로 줄어 한 달여 사이에 큰 취업변동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취약 국가의 재정 혹은 외환위기로 이어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앞서 발생했던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 유행 당시에도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된바가 있다.

서비스 및 수출부분에서 보더라도 여행과 운송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1월 중국에서 사스가 첫 발병된 후 2003년 3월 한국 출국자 수가 -5%으로 떨어졌고, 외국인 입국자 수 역시 -9.8%를 나타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비록 첫 발병지는 중동이었지만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 여행업계에 큰 타격을 안겼다. 이처럼 메르스 공포로 인해 당시 내국인들의 한국 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 되었고, 외국인 입국자수는 계속하여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형태도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르스 확산 당시 마트 행사를 80%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출은 상당히 저조 했으며 온라인 매출이 급상승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도 대면(對面) 접촉을 차단한 채 물품을 구입하는 언택트(untact)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이용률을 같은 기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이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가하였다(백화중, 1997). 2000년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발생했으며 대응도 달랐다. 최근 20년 동안 정부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고대유·박재희(2017)의 연구를 보면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되어 상황을 지휘하느냐에 따라 감염병의 사태와 전개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사스에 대한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체계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기도 불신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6월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응답자의 76.3%가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29.0%)과 비교해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선 ‘의료진·의료기술’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90.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정부의 대응역량’(69.3%), ‘정숙한 시민의식’(6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43%가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K-방역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과거에 비해 주춤하게 된 이유는 늦은 백신 수급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백신 확보·공급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같이 약 1년 사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발생 기간 내에 정부의 대응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변화는 생길 수 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조직 신설과 보도준칙 및 법령 제정이다. 2003년 사스를 겪고 난 후 노무현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2004년 1월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리하여 감염병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정원 907명에서 42%를 보강하여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의 인원을 구성하였다. 이중 본청은 438명, 소속기관은 1,038명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됐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아울러 전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탄탄한 대응망을 구축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기능별 전담과를 신설하였다.

<표 4>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 및 신설 현황

	기능	신설 현황
감시	24시간 위기상황 모니터링	종합상황실 신설
조사·분석	정보수집, 역학조사 교육·데이터 분석 신종병원체 진단분석 강화	위기대응분석관 신설 신종병원체분석과 신설
대응	입원 치료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의료대응지원과 신설
예방·관리	감염병 정책·법령 주관 소화기호흡기 등 주요 감염병 관리 강화	에이즈관리과 대체 신설 감염관리과 신설 *결핵조사 기능은 권역별 센터로 이관 됨
감염병 R&D	바이러스 백신 개발 임상연구 강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출처: 질병관리청

다음은 감염병 보도준칙에 대한 내용이다. 감염병에 대한 기사는 다른 기사와 달리 특히나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하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에는 감염병에 대한 과장 및 허위보도를 지양하고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목적아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³⁾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염병 보도가이드라인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결국 메르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도 언론의 감염병 보도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신종감염병 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대처 및 대응을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해 2020년 4월 28일 공식 발표하였다. 전문, 기본원칙, 권고사항, 별첨, 부칙 등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재와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들이 들어가 있으며, 기자들의 사전 교육의 필요성과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반에 언론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병 보도준칙의 기본 원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3) 감염병과 관련된 기사 제목에 '패닉', '대란', '공포', '창궐' 등과 같이 감염병의 규모,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과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추측 및 과장, 확대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감염병 증가율, 예상 사망자수 등의 비율을 제시함에 있어 실제 수치를 전달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5> 감염병 보도준칙의 7가지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요내용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리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신종 감염병의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내 감염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 자문과 확인 필요
감염병 보도시 주의해야 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출처: 한국기자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법률 제17491호)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그 전까지는 전염병예방법이었다가 개정됐으며 그 이후 35번의 타법 및 일부개정을 거쳤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됐을 시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의심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 했을 시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할 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중단 명령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급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여부 확인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인 방역관 임명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한을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까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심리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의 지체 없는 삭제 근거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제2절 감염병과 미디어

1. 미디어 의존 이론과 위기인식

많은 학자들은 ‘위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러빈저(Lerbinger, 1997)는 위기의 정의를 조직의 명성과 이익, 성장 등에 연관성을 짓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중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위기를 ‘조직의 성장과 이익 또는 앞으로의 생존에 위협이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았다. 콤스(Coombs, 1999)는 위기를 개인이나 조직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과정으로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관련 공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측하기 힘든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 보았다(김영옥, 2006).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위기상황을 알게 된다(전병규·조민경·임형수, 2017). 이러한 위기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한 연구는 거브너(Gerbner, 1969)가 제시했는데, 수용자가 매스 미디어 이용에 따라서 위협적인 사회 현실을 지각하는데 있어 위기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매스미디어에 반영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ignorielli·Morgan, 1990; 전병규·조민경·임형수, 2017).

위기인식은 다양한 정보소스로 형성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의존하는 경구가 많다. 공중의 위기인식은 결과의 심각성과 관련이 큰 만큼 미디어 보도는 공중의 심각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3).

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여가 활동 등과 같이 여러 사회적 과정을 전달해주는 정보 제공자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특히 위험을 보도할 때 국민들에게 미칠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보도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한동섭·김형일, 2005).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현대인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전병규·조민경·임현수, 2017). 더욱이 근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많아지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수집 제공 능력이 확대해 나가면서 미디어에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한 감염병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적절한 감염병 정보, 대안 및 대응책을 얻기 어렵다. 만약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더라도 정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Jin & Han, 2014).

무엇보다 미디어의 발달로 과거 방송 3사(KBS, MBC, SBS)와 4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주를 이뤘던 언론구조(백혜진, 2017)는 종이신문과, 방송사를 넘어 뉴스통신사 등 현재 인터넷신문사만 9000개가 넘을 정도로 언론구조의 정보 흐름은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 네이버(Naver)가 15개 신문사와 통신사 뉴스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뉴스 유통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김경희·배진아·김유정, 2015). 이후 2003년 다음(Daum)이 ‘미디어다음’을 출범하였고(최민재, 2005), 인터넷에서의 뉴스 이용 형태가 포털사이트로 대거 바뀌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이용자 수의 규모가 인터넷언론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김위근·황용석, 2020). 그리하여 오늘날 IT기반 서비스 형식의 포털 뉴스서비스까지 이르게 됐다. 현재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천 시스템 기반의 뉴스서비스와 구독 기반 뉴스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및 동영상의 자유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뉴스콘텐츠 이용자들은 점차 포털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선택적 뉴스콘텐츠 소비 형태로 변화하였다(심재웅, 2014).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위기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보가 시시각각 들어오다 보니 더욱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와 루머, 괴담 등이 속히 퍼져 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 전쟁, 질병, 대형사고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뉴스보도는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재난과 관련한 인지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노, 두려움, 동정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구교태, 2014).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갈등과 같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디어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김진영, 2003). 즉, 사회를 연결시켜 주고 정보소통 체계이기도 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위기를 인식하고 대처 방안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디어에

주목하게 되고 더욱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송해룡·조항민·이윤경·김원제, 2012).

신종감염병이라는 특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충족되는 욕구에 의존 할수록 미디어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역할이 더욱이 중요해지고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Ball-Rokeach, 1985; 송해룡·김찬원, 2014).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 결국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미디어 의존 이론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Bell-Rokeach, 19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구조의 안전성에 따른 미디어 의존 특성 연구들을 보면, 자연재해 위기상황에서 사회체제의 한 시스템으로서 미디어가 주요 정보원이었으며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더욱 의존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와 같은 사건·사고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연구도 있다(Hindman, 2004; Lowrey, 2004).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주변 환경에서 위협 내지 위기를 지각할 때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Loges, 1994).

이러한 미디어 의존현상은 의존의 강도와 범위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의존강도는 개인들이 미디어 정보 자원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이다. 이러한 강도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 목적의 미디어 접근성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Ball-Rokeach, 1985; Loges, 1994; Lowrey, 2004, 구교태, 2014).

로게스(Loges, 1994)는 개인과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재 및 자연재해에 대한 지각과 미디어 현상과의 관계를 위협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면서 이해와 지향성 목적을 위해 신문과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진과 관련한 연구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노출은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정보획득의 욕구는 커지고 미디어는 필요한 주요 정보원이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Young, 2003).

미디어 의존 이론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및 내용이 개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일치할 때 개인은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이론의 가정은 인간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디어의 메시지 효과도 함께 높을 것이라고 본다. 즉,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개인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미디어가 도움이 된다고 여기게 되면 그러한 미디어 메시지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 지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Ball-Rokeach, Rokeach, & Grube, 1984; Grant, Guthrie, & Ball-Rokeach, 1991). 다시 말해 미디어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될 경우에 수용자는 그 메시지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차동필, 2011). 이처럼 미디어 의존 이론에서는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함과 동시에 미디어의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인지·정서·행동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진영, 2003). 그러나 미디어는 감염병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사건을 드라마틱한 기사거리로 인식하여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며 사회 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Kasperson, 2001; 송해룡·김찬원, 2013). 결국 미디어가 감염병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공중은 그것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 들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행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백선기·이옥기, 2011).

2. 감염병 뉴스 보도 프레임

언론은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약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여론의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른 틀짓기가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Hallahan, 1999). 언론은 보도를 함에 있어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 혹은 의미를 담기도 한다(박기수, 2011). 그 동안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뉴스라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구성한 현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효성, 2014; 박단비·권상희·강보영·김세진, 2018).

엔트만(Entman, 1991)은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여 강조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정리하였다. 고프만(Goffman, 1974)은 사람들이 현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해석적 스키마로써 언론프레임을 보았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를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선택되어 해석 되어진 현실로, 독자들에게 기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분류하여 공급하기 위해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뉴스 프레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현실의 상을 전달하는지와 수용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떤 틀(frame)로 보도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며 특정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뤄지는 언론 보도의 경우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들에게 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임연희, 2015). 뉴스 프레임은 이슈 가운데서도 특정한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수용자들을 인도한다. 사실의 전부가 아닌, 뉴스 가치가 있는 일부를 강조하면서, 수용자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적 내용이 빠지거나 왜곡되기도 한다(Entman, 1993). 결국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관련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이슈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심 견해라고 정의되어진다(Gamson, 1992). 다시 말해 뉴스 메시지에 있어 프레임은 큰 줄기이자 곧 방향을 정해주는 깃발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박경숙, 2002).

감염병이라는 것은 의료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과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WHO, 2005). 무엇보다도 이를 공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신속한 정보전달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중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원천으로 생각하며 특히 언론보도 형태로 전달되는 질병 정보에 대해 공신력을 갖게 된다(최은비·김효숙, 2011).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메시지가 보도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우지숙·최정민, 2015).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론은 감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감시권 역할은 물론 주요 기관들을 견제하고 정부와 병원 등 주요 주체들의 위기 대응을 검증한다. 셋째,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양정혜, 2010). 언론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의 혼란이 곧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손영준·홍주현, 2011).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은 위기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위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에게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한다(R. A. Edwards, 2002). 언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발표 혹은 정부를 취재원, 정보원으로 여겨 보도한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의 발표가 곧 여론 및 쟁점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개인들이 이슈를 제기하고 독자적인 의제가 사회의제로 형성되는 순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이슈 관여도가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 건강, 경제적 상황 등에서의 언론 보도는 이슈의 중요도를 인지하게 되고 어떠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봐야 할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 확산처럼 즉각적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이 정보전달은 물론, 사회전반의 확산 혹은 재확산 등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영준·홍주현, 20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 보도에서 어떠한 시각과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했느냐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부의 위기 이슈를 확산 시킬 수도 있다. 위기 발생이 일어날 때 정부와 국민, 언론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며 위기를 악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도 각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해당 언론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전달하는 메시지의 수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박경숙·이관열, 2013).

박단비·권상희·강보영·김세진(2018)의 연구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안전한 측면을 중심 견해로 강조하는 프레임을 사용할 것이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이슈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들을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뉴스 프레임에 대해 여러 학자마다 표현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뉴스 프레임이라는 것은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부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냐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임미영·안창현·김규식·유홍식, 2010).

3. 감염병 위기와 위험커뮤니케이션

루만(Luhman, 1993)은 위험의 단계에 이르면, 이에 대한 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위험은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한 사전적인 성격이 강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undesirable outcomes), 발생 가능성(possibility of occurrence), 현실 상황 인식(state of reality)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고 설명하였다(김영욱, 2008).

위험이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의 위험성만이 ‘진짜 위험’으로 보았고, 대중들이 인식하는 위험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Powell · Leiss, 1997).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만이 기술적인 방법을 개선시키며 위험관리를 위해 몰두 했을 뿐, 대중에게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세계적으로 반핵 운동이 시작되면서 위험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과거의 자연재해와 달리 규모 적이나 공포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핵의 위험을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위험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탐색하게 되었다(Kasperson·Stallen, 1991).

이처럼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협의 규모와 심각성, 통제 및 관리 등이 개인과 조직,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Covello, 1992).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체적 및 환경적인 위협의 수준과 중요성,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또는 정책 등과 같은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송해룡·조항민·이윤경·김원제, 2015)로 보거나,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위협의 크기와 성격, 의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혹은 그 과정으로 보는 연구(소영진, 2010)가 있었다. 또한 위협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예방행위를 촉구하고자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Mileti·Fitzpatrick, 1991).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위험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협과 위기에 관련한 정보만을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safety)’과 ‘위험(risk)’의 충돌을 완화시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관련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위험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위협이 더욱이 감염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통 행위로도 볼 수 있다 (WHO, 2017).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또는 대처는 필수적이다. 특히 감염병 위기에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준비작업과 메뉴얼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박기수, 2020). 만약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중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WHO, 2017). 즉,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은 감염병의 대유행, 자연재해 및 인재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이슬기·이혁규, 2021).

국민은 정부가 신뢰할만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감염병 대응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부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응시간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부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정부신뢰가 상승하게 되면 감염병 발생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감염병 대응 참여를 높일 수 있다(최미정은재호, 2018).

미국에서도 위험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특히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위험 및 응급상황에 따른 위험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감염병과 같이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중요한 원칙은 바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 신뢰성, 존중, 교감, 위로, 행동 지침 등 6가지 원칙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최재욱·김경희·문지원 외 1인, 2015).

이처럼 정부와 국민 간 이루어지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특정한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이슬기·이혁규, 2021; Atman et al., 1994). 무엇보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인 위기관리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과제에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그 간의 기존연구들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며 보여줬다(송해룡·조항미, 2012).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이 보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은 개개인의 위기대응에 있어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가짜뉴스에 의존하게 되어 또 다른 위험과 피해를 야기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이슬기·이혁규, 2021). 즉, 전쟁과 테러, 재난과 같은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박경숙·이관열, 2013). 결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5년 감염병 메르스 확산 당시 통제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정용민(2015)은 메르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요인을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후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열흘 넘게 침묵한 점, 신속·정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꼽았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당시의 부족했던 위기관리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6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설치하고, 2017년에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 절차(SOP)」 등을 발간하였다(질병관리청, 2018). 또한 현재는 위험소통 5대 기본 원칙으로 ‘신속’, ‘정확’, ‘투명’, ‘신뢰’, ‘공감’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20).

4.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 선행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감염병과 관련한 전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인 ‘감염병 발생시에 정부의 대응’, ‘감염병 관련 법률 및 법적 내용’, ‘감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행동’, ‘언론보도’로 나눌 수 있었다. 정부대응에 관련한 연구는 33건,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과 관한 연구는 17건, 사회영향에 대한 연구는 11건, 감염병에 관한 인식 및 예방행동에 관한 연구는 11건,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는 36건으로 총 108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목록은 <부록 1>과 같다. 감염병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와 정부, 법 제도, 언론의 보도 형태, 여론, 국민 인식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 언론보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가 감염병과 같은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헬스커뮤니케이션과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질병과 관련한 연구는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 감염병 보도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어 왔다(송해룡·조항민, 2015).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느냐이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정보와 불안감 조장보다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예방법에 대한 의학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김춘식, 2009; 김옥태·김규찬, 2010; 주영기·유명순, 2011; 박기수·이귀옥·최명일, 2014; 손달임, 2020)을 보면, 언론의 감염병 보도가 감염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예방법을 알리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신문과 방송보도 연구 모두에서 나타났고,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재난보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인 의제의 공론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희봉·이연수·이해수, 2021).

먼저 수용자 중심으로 신종플루 보도를 살펴본 김옥태·김규찬(2010)의 연구에서는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통해 정보습득 보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으며, 박기수·이귀옥·최명일(2014)의 연구에서는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에 ‘안전’, ‘의료진’과 같은 키워드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문기사 프레임을 통해 신종플루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 본 주영기·유명순(2011)의 연구에서는 예방법 및 대책 등의 예후 프레임보다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방송뉴스보도를 분석한 송해룡·조항민(2015)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통계, 숫자, 심각성 등을 통해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많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국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되는 사망자수 보도, 과장된 표현 등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개인 신상과 사생활 노출이 우려 되는 등 해당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허용강·차수연·서필교 외 2인, 2015; 전지영, 2017; 정지영·표지영, 2020).

에볼라바이러스가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감염병 보도준칙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본 허용강·차수연·서필교 외 2인(2015)의 연구를 보면, 전체 기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보건기구의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으며,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특성’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정지영·표시영(2021)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가 나타나는 등 보도준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다. 불확실한 위기상황에서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감염병 관련 취재만 20년이 넘게 해온 뉴욕타임즈의 전문기자 도널드 맥널(Donald Mcneal)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감염병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코로나19가 곧 팬데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였다(박희봉·이연수·이해수, 2021).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 시간별로 나타나는 증상,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띤 의학기자를 중심으로 취재가 이뤄져야지만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진다. 이처럼 감염병 보도에 있어 기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김성진·박경우, 2009; 유재웅·조윤경, 2012; 김경희, 2017)에서는 여러 차례 재난보도에서의 전문기자 보도비중이 낮고, 우리나라와 해외 정부 및 기관 등에 한정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목정민·진달용(2014)이 연구에서는 일본 방사능 물질 유입과 같이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취재 할 때, 정부와 같은 공식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희봉·이연수·이해수(2021)의 연구에서도 감염병 상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이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나치게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자체 정보원에 의존하면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의견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보도 내용과 프레임이 단순 사실 전달에 치우치고, 불필요한 위험성을

강조 한 채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예방법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 한 쪽으로만 치우친 정보원의 활용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감염병 보도의 한계 혹은 문제점이 본 연구의 대상인 2000년 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발생한 감염병마다 여전히 계속 되고 있었는지, 감염병별과 언론사별로 각각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제3절 감염병과 정부 보도자료

1.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프레임

보도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자료’로서,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다(임현수·이준웅, 2011). 정부와 기업 등과 같은 취재원이 정책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을 갖고 기사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성격의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보도자료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언론을 매개로 국민들과도 보다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Gilpin, 2008; Sleurs, Jacobs, & Van Waes, 2003).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자로부터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며, 이로 인해 공신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그런 만큼 오랫동안 신뢰성 높은 정책 자료로써 인정되어 왔다(임현수·이준웅, 2011; Walters·Wlaters, 1992).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인적 취재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의 공공 의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나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Turk, 1986). 또한, 보도자료 취재원들은 자신들이 언론 측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정부의 정책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성을 보여준다(Tuchman, 1995). 보도자료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 작성의 토대와 근거를 제공하는 유효한 취재 자료이고 홍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소속된 정부 기관이나 부서의 공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선의 홍보 수단이 된다(Turk, 1991). 이로 인해, 정부측 홍보 담당자들은 언론 기사를 통한 바람직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며, 언론 분야 종사 경험을 지닌 숙달된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의뢰하여 뉴스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질 좋은 보도자료를 구성한 후 언론에 제공하게 된다(서병호·김춘식, 2001).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측 취재원과 언론사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고착되기도 한다.

보도자료는 일차적으로 ‘정부 주도의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되거나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를 통제하거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조작하려는 속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권신오, 2017). 이 같은 보도자료의 부정적인 속성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예방하면서 자유로운 언론 보도 및 정보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정부 보도자료의 공신력과 존재 가치가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염병 팬데믹이나 안보 문제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정부 보도자료의 중립성, 공신력, 진정성 등이 사회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 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21세기 이후부터 가속화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언론사가 증가하고 속보 경쟁도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도자료가 실시간으로 기사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언론사별로 양질의 보도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핵심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반드시 언론 보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이서현·최진봉, 2017). 언론사의 게이트키퍼링과 프레이밍 과정을 거치면서 보도자료의 내용이 원형 그대로 충실하게 보도되지 않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모종의 의도에 의해 편파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심지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방은주, 2013). 이처럼 정부 보도자료의 제공, 전달 과정에서 언론에 의한 재구성, 왜곡, 폐기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 역할에 못지않게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점을 잘 보여준다(Jung, 2008; Jung & Lee, 2012; 이서현, 2018).

사회 공공 의제나 중요한 정책의 숙의 과정에서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책 결정 및 정책 목표 실행에 필요한 조직적 스키마를 제공해 준다.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뉴스 수용자들의 정보 처리와 사회적 이슈 해석, 정책 평가 과정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므로 (Pen·Kosicki, 2001/2007), 공정하고도 바람직한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이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 공조 등이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의 의도나 목표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프레임이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언론 보도 환경이 구축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상호작용

정부 부처는 언론사의 주요 정보원 중 하나이다. 언론사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마다 출입 기자를 파견하여 부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수집·확보하고, 그를 활용하여 기사 작성을 한다. 정부 보도자료는 기본적인 신뢰성, 정확성, 영향력 등을 지니기 때문에 뉴스 취재원으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보편성,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취급 태도나 관점, 원칙 등이 균일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사 간의 갈등과 오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은 정책 홍보와 뉴스 정보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홍보 또는 PR 활동의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배포한 보도자료가 언론 보도를 통해 뉴스 수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PR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기관과 같이 공신력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보도자료들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사 구성 자료가 된다.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일정 부분 공신력 있는 보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서병호·김춘식, 2001; 남효윤, 2005; 임현수·이준웅, 2011; 이선정·반현, 2017). 아울러, 정부측의 보도자료가 언론사의 핵심 정보원이자 취재원이 되는 과정에서 언론사 또는 기자들의 태도나 원칙이 뉴스 보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부측 취재원과 언론인들 간에 긴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한다. 즉, 정부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는 사실은 해당 보도 자료가 뉴스 가치를 지니는 것뿐 아니라, 언론사와 정부 측 취재원 간의 협력과 소통 등 양자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이다(Giber·Johnson, 1961; 남효윤·구교태, 2004).

이처럼 기본적인 유용성과 편의성을 지닌 정부 보도자료 없이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관련된 기사를 온전히 작성하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 목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의도 등을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보도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점에서는 이를 더욱 고려하여,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사 보도 간의 균형적, 쌍방향적 상호 작용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상호작용이란, 정부 보도자료가 정부측 취재원과 언론사들 간에 기계적으로 전달·교류되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구성·전달하고 해석·평가하여 대국민 보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보도의 적절한 품질과 수준을 보장하고 향상·증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균형적, 상호 보완적으로 노력하고 소통하느냐는 보다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측도 보도자료의 전문성 및 심층적 구성을 위해 많은 연구와 탐색을 해야 하겠지만, 언론사 역시 정확한 보도자료 분석과 평가·점검 및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취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보도자료 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보도자료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보도자료에서 제공한 내용을 언론이 어느 정도 뉴스화 시켰는가, 인용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해당 연구 내용들의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공적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언론의 의존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많은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도자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achsman, 1977; Walters·Walters, 1992).

권신오·김관수(2015)의 연구를 보면 광주지역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하루 평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했는데 이 가운데 35.4%를 기사작성에 이용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취재의 톱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36.2%, 리라이트 44.8%, 보도자료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는 18.9%였다. 결국 리라이트와 원문이용을 더하면 보도자료의 63.79%를 기사작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상의 이유와, 정부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요인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남효운·구교태, 2004; 이재경·김진미, 2000; 임현수·이준웅, 2011; 전미영·박재영, 2019)이 있었다. 보도자료 및 기사선택, 보도방향 설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뉴스가치, 정치적 통제, 사주 및 데스크의 영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있다. 나아가 취재원과의 친분관계, 발행인이나 편집국장 등이 결과적으로 기사선정과 논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송병원·이명천·김요한, 2014; 남효윤, 2006; McQuail, 1992; Shoemaker, 1991). 즉, 시의적절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의 경우 더 많이 채택되며 편집국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부 보도자료에 미치는 언론사의 태도와 영향력을 분석한 방성현·이건호(2013)의 선행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의 프레임과 이를 토대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보도의 프레임 간의 차이는 특정 이슈의 현저한 특징을 더욱 심화시켜 여론을 격화시키거나, 반대로 특정 이슈를 전혀 보도되지 않도록 왜곡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아예 국민들이 인식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등 정반대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 보도자료를 매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언론사의 책임 의식과 그에 기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프레임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또한 언론이 보도자료에 의존하거나, 활용하는 정도는 재난과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더욱 높아졌으며 보도자료의 중요도 역시 더욱 커졌다. 이서현·최진봉(2017)은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상시적 소통이 요구되는데, 이 때 보도자료는 지방정부와 언론을 이어주는 정보원의 역할과 함께, 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서현·진명지·최낙진(2020)의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관련 언론기사의 60.7%에서 보도 자료의 본문 내용이 90% 이상(그대로 옮겨 씀 포함)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도 자료에서 잘못 표현된 부분마저도 기사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정보원, 프레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보도자료에 비해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유형들이 다양하였다. 진명지·이서현·최낙진(2020)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도자료가 실제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기사화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보도자료의 한정된 정보원과는 달리 언론보도에서는 의료계 전문가, 중국당국,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활용되었고, 프레임에서도 보도자료는 정보 프레임과 설득 프레임에 치우쳤다면, 언론보도에서는 이외에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 비판 프레임 등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부 보도자료 관련 선행연구

저자(년도)	주요 내용
권신오·김균수(2015)	광주광역시 언론사 기자를 중심으로 게이팅 과정으로서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김기태(1991)	한국언론의 보도자료 의존증에 대한 연구
남효윤·구교태(2004)	지역신문의 신문사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박종민·권구민·김필수·박진홍·조재형(2017)	2014년 국방부 대표쟁점 분석을 통해 이념성을 고려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비교
방성현·이건호(2013)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일간지 기사와 보도자료 프레임 비교를 통한 비구성적 현실 탐색 연구
신정철·김청택·박혜연·이수민(2020)	언론기사 빅데이터 및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관한 여론 추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참여자, 양상 및 이슈 분석
임현수·이준웅(2011)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는 과정에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서현(2018)	담뱃갑 경고 그림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와 언론 보도의 특성 및 비교 연구
이서현·진명지·최낙진(2020)	제주지역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활용
이서현·최진봉(2017)	지방정부의 보도자료가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연구
이선정·반현(2017)	저출산 이슈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이철한(2005)	보건복지부와 KT&G 양조직의 보도자료를 신문사별 채택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두 조직간 쟁점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이희성(2020)	카피킬러를 이용한 보도자료와의 문장 일치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온·오프라인 신문의 저널리즘 분석
전미영·박재영(2019)	군(軍) 관련 보도자료의 구성-배포-매체 단계별 요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의 영향 요인 연구
전형준·김학린(2013)	언론보도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메시지 전략 : 4대강 정책 해명 자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 대응에 있어서 정부 메시지 전략 분석
진명지·이서현·최낙진(2020)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가 어떻게 언론보도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초기 확산 및 초동 대응과정에서 한국 언론보도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는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1-1. 감염병별로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2-1. 감염병별로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3.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를 주차별로 살펴보았을 때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3-1. 감염병별로 주차별을 살펴보았을 때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언론보도의 정보원 및 프레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은 감염병 발생 시작부터 초기 단계의 언론보도가 언론사로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도 심층성 및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에 대한 계량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언론사별 특징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1>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감염병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한 각 감염병 발생 시점별로 그 특징과 차이점 등을 보도 심층성 및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는 감염병 발생 초기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프레임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도기사에 재현(representation)된 모든 프레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1>은 감염병별로 초기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프레임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점별로 프레임의 구성과 차이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감염병 발생 초기 한 달을 다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나눈 주차별로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에서 보도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1>은 감염병별로 초기 한 달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나눠 감염병 발생 시점과 종류에 따라 보도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는 감염병 발생 직후 최초의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 특성을 보도자료 유형, 제공형태로 살펴보고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와의 정보원과 프레임이 각각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도자료를 언론이 어떤 프레임과 관점에서 전달하는지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통계분석방법은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가 되는지를 보고, 20% 이상이 될 경우 Fisher의 정확 검정 수치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 다중교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 기간

1) 분석대상

2000년대 이후부터 해외 혹은 한국의 유입됐던 1급 법정 감염병 가운데 본 연구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감염병 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지면 보도를, 한국 방송 뉴스에서는 KBS의 뉴스9, SBS의 뉴스8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종합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부수와 구독률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일보와는 다른 국민주소유방식을 갖고 있는 진보적 논조의 신문인 한겨레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다 다양한 보도 기사를 통해 여러 가지 해석적 측면이 가능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방송사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영방송사인 KBS와 이와 다른 성격의 민영방송 SBS의 저녁뉴스 기사를 선정하였다. 이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접하는 데 있어 시청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와 대표적 민영방송인 SBS를 비교함으로써 방송사별 프레임과 보도태도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오누리·김은이, 2012).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기별에 따른 정부 제공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2) 분석기간

신종감염병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공중은 미디어의 보도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사안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그 내용에 의해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다 (Glik, 2007). 특히 감염병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추후 예방은 물론 사후 대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을 감염병별 최초 보도 이 후 한 달 간으로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이러한 한 달의 기간을 다시 1주부터 4주차까지 총 4개의 주차별로 나눠 초기의 발화 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기간

병명	기간(1개월)
사스	2003년 4월 3일 - 2003년 5월 2일
신종플루	2009년 5월 2일 - 2009년 6월 1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014년 7월 31일 - 2014년 8월 30일
메르스	2015년 5월 20일 - 2015년 6월 19일
코로나19	2020년 1월 9일 - 2020년 2월 8일

지면기사의 경우 보도자료가 주로 제공된 익일에 기사화 된다는 선행연구(이서현, 2018)에 따라 <표 9>와 같이 보도자료 분석기간은 언론보도 분석기간에서 각 하루 전을 기준으로 한 달간을 설정하였다.

<표 9> 감염병별 보도자료 분석기간

병명	기간(1개월)
사스	2003년 4월 2일 - 2003년 5월 1일
신종플루	2009년 5월 1일 - 2009년 5월 31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014년 7월 30일 - 2014년 8월 29일
메르스	2015년 5월 19일 - 2015년 6월 18일
코로나19	2020년 1월 9일 - 2020년 2월 8일

3) 자료 수집

먼저 분석기간 동안 한국 종합일간지 조선일보와 한겨레 지면 기사를 살펴보기 위해 기사 검색은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원문을 제공하는 아이서퍼(www.eyesurfer.co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의 경우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아이서퍼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가 없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지면기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사스’, ‘SARS’, ‘급성호흡증후군’ 키워드 검색 후 기사를 찾았다. 신종플루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는 아이서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하였다. 신종플루는 ‘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메르스는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코로나19는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19’로 검색하였다. 그 후 검색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감염병 보도 기사와 관련이 있는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본 키워드가 제목 혹은 내용에 나와 있지만 기사 내용이 감염병과 관련이 있지 않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다음은 방송 뉴스인 KBS 뉴스9(www.news.kbs.co.kr)와 SBS 뉴스8(www.news.sbs.co.kr)에서 관련 뉴스 내용을 찾기 위해 각 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석기간 설정을 한 후, 뉴스 다시보기와 뉴스 스크립터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된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위의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보도 기사 건수는 다음 <표 10>과 같으며 총 2,549건이었다.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낸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총 709건으로 나타났으며 SBS가 644건, KBS가 643건, 한겨레가 553건 순이었다.

<표 10>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건수

구분	병명(건)					
	전체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조선일보	709	116	43	29	304	217
한겨레	553	62	33	17	228	213
KBS	643	64	55	12	288	224
SBS	644	59	55	8	255	267
합계	2,549	301	186	66	1,075	921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위협과 염려로 기자의 취재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 책임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성이 크다. 나아가 감염 예방은 물론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매일, 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정례브리핑 자료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석대상 보도자료는 <표 11>과 같이 각 시기별 감염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와 정례브리핑 자료를 포함한 총 182건이다.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보했다.

<표 11> 감염병별 보도자료 분석건수

구분	건수
사스	11
신종플루	22
에볼라	11
메르스	83
코로나	55
합계	182

2. 분석방법 및 분석유목

1) 감염병 언론보도에 따른 유형 및 속성

감염병 보도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송해룡·조항민(2015)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보도 심층성, 보도 사실성, 보도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도 심층성이란 취재 보도의 깊이로 객관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다(김봉덕, 2009). 이러한 보도 심층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심층성과 취재 심층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사 심층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발생’, ‘원인분석’, ‘영향분석’, ‘대응분석’이라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언론보도의 내용이 감염병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송해룡·조항민(2015)의 분석유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각 언론사별로 단순하게 감염병 발생 및 확진 사례 등의 사건만을 전달하는지, 감염병 발생, 확산 및 소강 원인을 분석하는지,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영향과 앞으로 미칠 문제점 및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한 기사 및 평가를 덧붙이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기사 심층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취재 심층성은 ‘전문기자’, ‘일반기자’, ‘특파원’, ‘스튜디오 전문가 인터뷰’로 나눠 살펴보았다. ‘전문기자’는 보건, 의학, 과학, 경제 등 특정분야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자를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메르스 확산 당시 전문기자들이 일반기자들에 비해 해외의 취재원을 보다 면밀히 접촉하거나, 메르스 관련 논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고 반영하는 등 보다 깊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전형준, 2016).

기사 정보의 사실성은 기자 직업윤리의 주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제재의 핵심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자들이 이른바 ‘팩트(fact)’를 중요시하는 현실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학자들 역시 보도 사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언론학자들은

사실성을 객관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기자들이 취재활동이나 기사작성에 있어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를 밝혀내는데 주력해왔다(송용희, 2005).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보도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이고 사실중심적인 보도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와 같이 한국 언론보도가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사실성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사가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둔 ‘사실 중심적’인지,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한 ‘추측·예측 중심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도의 방향성은 언론보도의 논조로 이는 수용자들에게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김윤경·김지현·김영석, 2013). 이처럼 언론이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보도의 방향성은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조경숙·한균태, 2010). 본 연구에서 보도의 방향성은 제목(headline)과 리드(lead)문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판별하였다.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제목과 리드문장에서 기사의 전체적 방향이나 태도가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고영철, 2012). 만약 기사의 내용에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다음은 기사의 정보원이다. 정보원은 넓은 의미에서 인물뿐 아니라 문서 등의 정보 출처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문서의 작성자 역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용문 역시 큰 틀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대민·박진우, 2015). 뉴스의 정보원은 다양한 여론 전달을 위한 균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정보원에 근거한 뉴스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도경·윤영민, 2015) 이와 더불어 확인 가능한 정보원은 독자가 기사에서 정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목은영·이준웅, 2014). 이와 같이 감염병 언론보도의 내용적 특성을 담은 분석유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감염병 언론보도의 분석유목

대/중분류		유목	세부내용
보도 심층성	기사 심층성	① 사건발생	확진자 발생, 감염 사례, 확진자 퇴원 등과 같이 단순 사건 소개
		② 원인분석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소강 원인과 치사율에 대한 논의
		③ 영향분석	감염병이 현재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영향력
		④ 대응분석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기업, 개인 등의 대응책(대응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도 함께 포함)
	취재 심층성	① 전문기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예: 의학기자, 군사 전문기자 등)
		② 일반기자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자
		③ 특파원	해외에 파견된 취재기자
		④ 스튜디오 인터뷰	뉴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앵커 인터뷰 형식
보도 사실성	① 사실 중심적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분석	
	② 추측·예측 중심적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분석	
보도 방향성	① 긍정	정부(해외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② 중립	상기의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하게 배치된 경우	
	③ 부정	정부(해외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언론보도 정보원	① 한국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등), 지자체 등	
	② 한국 전문가	한국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전문가 집단	
	③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통화기금(IMF)	
	④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非감염국 포함)	
	⑤ 세계시민	해외의 감염국가 시민, 교민, 한인 등과 같이 해외 거주인	
	⑥ 해외 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해외 전문가 집단	

⑦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감염 환자, 환자 가족들 등
⑧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확진자 방문 기관, 업체, 주변 상인 등
⑨ 한국 및 해외 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⑩ 한국 및 해외 기업	제약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⑪ 시민단체·전국민주노총연맹	한국외 민간시민단체, 각 전국민주노총연맹 관계자 등
⑫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초·중·고·대학 관계자, 학생(대학생 포함) 등
⑬ 시민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자,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시민
⑭ 자영업자	여행사, 수산업, 유학원 등
⑮ 공항 관련 관계자	인천공항검역소, 방역소, 세관 업무 담당 등
⑯ 유학생	감염병 발생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 등
⑰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감염병 관련 고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나 항체검사, 바이러스 분리 실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경우, 밀접접촉 이후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자.
⑱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촌진흥청, KOTRA
⑲ 한국 및 해외 경찰	한국 및 세계 경찰 및 관련 관계자
⑳ 군 관계자	육군, 해군 등 군 관련 관계자
㉑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㉒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각 정당의 소속 되거나 무소속 정치인 등
㉓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등 종교 관련 단체
㉔ 법조계 관련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㉕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급식봉사단체 등
㉖ 기타	세계수학자대회 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소방본부, 환경미화원, 간병인 중개업체, 관광버스기사, 통역사, 방과후 교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병원 관계자, 프로농구 연맹, 복싱 국가대표 감독, IOC, 우체국택배 노동자

다음은 프레임에 대한 분석유목이다. 세메트코와 벨켄버그(Semetko·Valkenburg, 2000)의 프레임분류인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선행연구(박경숙, 2002; 송해룡·조항민, 2015 ;이민규·이예리, 2012)에서 사용된 13개의 프레임을 재구분하여 유사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 프레임끼리 범주화했다. 각 프레임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프레임 분류 및 정의

분류	정의
① 정책 프레임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정부지원 등
② 정보 프레임	감염병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감염병 전염 경로 정보 등
③ 경제 프레임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 집단, 정부 조직 등의 경제적 변화
④ 사회영향 프레임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과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
⑤ 갈등 프레임	법정분쟁, 도덕적 비난 등 갈등 묘사
⑥ 책임 프레임	정부의 감염병 방역 대책 미흡, 방역 허점 등
⑦ 설득 프레임	생활 속 방역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등
⑧ 공포 프레임	감염병의 심각성 및 위험 강조, 공포 조장 등
⑨ 예방 프레임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과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감염병 예방 행동권고
⑩ 인간흥미 프레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확진자, 의심자와 의료진의 노고 등을 다룬 내용
⑪ 희망적 프레임	감염병의 위험과 대유행이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이 보도 확진자 감소, 백신 등과 같은 기술개발, 영업 및 수업재개 등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른 유형 및 속성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내용적 특징에 대한 유형 및 속성이다. 감염병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 유형, 보도자료 제공형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도자료 유형은 선행연구 권신오(2017)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분석 유목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책홍보형’은 정책과 시책 등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가 담긴 경우다. 기존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책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보 제공형’은 정책 이외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보도 자료를 말한다. ‘인물과 동정’은 유력 인사 등의 동정 관련 정보가 담긴 경우다. ‘논평과 입장문’은 특정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 표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말한다. ‘사진과 동영상’은 특정 상황과 감정, 제공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이다. 보도자료 유형에 따른 코딩은 다중응답으로 설정하였다.

보도자료 제공형태 형태의 경우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경우, ‘보도자료와 붙임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정례브리핑과 붙임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 나눠 살펴보았다.

보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살펴본 것은 정보원과 프레임이다.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에서도 생산 주체는 특정 정보원의 선택과 배치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밝힌다(이서현, 2020). 이처럼 얼마나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는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서의 프레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원과 프레임은 복수 코딩을 하였으며 분석 대상 자료를 귀납적 방식으로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감염병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분석유목

구분	세부내용	
보도 자료 유형	① 정책 홍보형	정책과 시책, 기관 업무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위 가운데 대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담긴 보도자료
	② 정보 제공형	정책 등 이외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 (정보, 지식 중심)
	③ 인물과 동정	유력 인사와 총수 등의 움직임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
	④ 논평과 입장문	특정 사안에 대한 기관·단체의 의견 표명이 담긴 보도자료
	⑤ 사진과 동영상	특정 상황과 감정, 제공자의 입장을 표명 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
보도 자료 제공 형태	① 보도자료만	보도자료 형식에서 보도자료 내용만 있는 경우
	② 보도자료+붙임자료	보도자료와 붙임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
	③ 정례브리핑+붙임자료	정례브리핑 내용과 붙임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
보도 자료 정보원	① 한국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등), 지자체 등
	② 한국 전문가	한국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전문가 집단
	③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통화기금(IMF)
	④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非감염국 포함)
	⑤ 세계시민	해외의 감염국가 시민, 교민, 한인 등과 같이 해외 거주인
	⑥ 해외 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해외 전문가 집단
	⑦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감염 환자, 환자 가족들 등
	⑧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확진자 방문 기관, 업체, 주변 상인 등
	⑨ 한국 및 해외 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⑩ 한국 및 해외 기업	제약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⑪ 시민단체·전국민주노총연맹	한국의 민간시민단체, 각 전국민주노총연맹 관계자 등
	⑫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초·중·고·대학 관계자, 학생(대학생 포함) 등
	⑬ 시민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자,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시민

	⑮ 공항 관련 관계자	인천공항검역소, 방역소, 세관 업무 담당 등
	⑯ 유학생	감염병 발생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 등
	⑰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감염병 관련 고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나 항체검사, 바이러스 분리 실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경우, 밀접접촉 이후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자.
	⑱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촌진흥청, KOTRA
	⑲ 한국 및 해외 경찰	한국 및 세계 경찰 및 관련 관계자
	⑳ 군 관계자	육군, 해군 등 군 관련 관계자
	㉑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㉒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각 정당의 소속 되거나 무소속 정치인 등
	㉓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등 종교 관련 단체
	㉔ 법조계 관련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㉕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급식봉사단체 등
	㉖ 기타	세계수학자대회 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소방본부, 환경미화원, 간병인 중개업체, 관광버스기사, 통역사, 방과후 교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병원 관계자, 프로농구 연맹, 복싱 국가대표 감독, IOC, 우체국택배 노동자
보도 자료 프레임	① 정책 프레임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정부지원 등
	② 정보 프레임	감염병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감염병 정보 등
	③ 경제 프레임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 집단, 정부 조직 등의 경제적 변화
	④ 사회영향 프레임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과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
	⑤ 갈등 프레임	법정분쟁, 도덕적 비난 등 갈등 묘사
	⑥ 책임 프레임	정부의 감염병 방역 대책 미흡, 방역 허점 등
	⑦ 설득 프레임	생활 속 방역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등
	⑧ 공포 프레임	감염병의 심각성 및 위험 강조, 공포 조장 등
	⑨ 예방 프레임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과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감염병 예방행동권고
	⑩ 인간흥미 프레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확진자, 의심자와 의료진의 노고 등을 다룬 내용
	⑪ 희망적 프레임	감염병의 위험과 대유행이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이 보도 확진자 감소, 백신 등과 같은 기술개발, 영업 및 수업재개 등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다중응답 교차분석 포함)을 실시하였다. 한 셀의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20%를 넘는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 작업은 연구자와 박사학위소지자 1명으로 총 2명의 코더가 공동으로 하였다. 만약 코딩 진행과정에서 유형 분류 판별이 서로 다르거나 다소 난해한 기사자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와 코더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결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코딩 전 사전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다. 또한 코더 간 신뢰도 검증에도 2명의 코더가 참여하였다. 분석 대상 보도 자료 및 언론 보도의 10%를 대상으로 홀스티(Holsti)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했다. 그 결과 보도자료 분석유목 항목별 신뢰도 계수는 모두 1.0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의 경우 ① 보도시기 1.0, ② 보도 심층성 0.83, ③ 보도 사실성 1.0, ④ 보도 방향성 0.94, ⑤ 정보원 0.98, ⑥ 프레임 1.0으로 확인되었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감염병 언론보도의 특성

연구문제 1.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는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감염병 초기 언론의 보도 특성을 먼저 기사 심층성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 <표 15>와 같이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모두 대응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수는 총1,309건(42.5%)이었다. 즉,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등의 대안책과 정부 방역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영향분석이 773건(25.1%), 사건발생이 622건(20.2), 원인분석이 379(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현재 및 미래에 미칠 영향과 단순 확진자 발생 및 방역 동향 등의 기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경로와 이유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는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대응분석이 359건(42.66%), 영향분석이 214건(25.4%), 사건발생이 166건(19.7%), 원인분석이 104건(12.3%)이었다. 한겨레는 대응분석이 298건(43.5%), 영향분석이 179건(26.1%), 사건발생이 116건(16.9%), 원인분석이 92건(13.4%)이었다. KBS는 대응분석이 336건(44%), 영향분석이 188건(24.6%), 사건발생이 145건(19%), 원인분석이 95건(12.4%)이었다. 마지막으로 SBS는 대응분석이 316건(39.9%), 사건발생이 195건(24.7%), 영향분석이 192건(24.3%), 원인분석이 88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언론사별 기사 심층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근소한 차이기는 했지만 대응분석, 영향분석, 사건발생, 원인분석 순으로 기사량을 차지한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SBS의 경우 사건발생과 관련한 기사가 영향분석의 기사보다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표 15> 언론사별 기사 심층성

기사 심층성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사건발생	166(19.7)	116(16.9)	145(19.0)	195(24.7)	622(20.2)
원인분석	104(12.3)	92(13.4)	95(12.4)	88(11.1)	379(12.3)
영향분석	214(25.4)	179(26.1)	188(24.6)	192(24.3)	773(25.1)
대응분석	359(42.6)	298(43.5)	336(44.0)	316(39.9)	1,309(42.5)
합계	843(100)	685(100)	764(100)	791(100)	3,083(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취재 심층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6>과 같이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유형은 일반기자가 2,005건(76.8%)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이 324건(12.4%), 전문기자가 262건(10.0%)이었다. 통계적으로 언론사별 취재 심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일반기자와 전문기자가 함께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인터뷰의 경우, 방송사 KBS와 SBS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KBS가 18건(2.8%), SBS가 3건(0.5%)으로 나타나 KBS가 SBS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감염병이라는 주제는 전문적 지식이 지닌 기자가 취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지만 그간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일반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 관행적이어서 일각에서는 기사 취재의 심층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았다(송해룡·조항민, 2015).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염병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기자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그간의 취재 관행이라 볼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 지식과 판단, 근거를 갖고 보도해야 하는 감염병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기자 양성,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전문기자의 보도건수가 78건(13.2%)으로 가장 높았으며 SBS가 52건(8.1%)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히 알아보면, 조선일보는 일반기자가 취재한 보도건수가 567건(77.8%), 특파원이 86건(11.8%), 전문기자가 76건(10.4%) 순이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일반기자 비율이 439건(74.0%)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문기자가 78건(13.2%), 특파원이 74건(12.5%) 순으로 다른 언론사와 달리 전문기자 취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일반기자가 478건(74.0%), 특파원이 94건(14.6%), 전문기자가 56건(8.7%), 스튜디오 인터뷰가 18건(2.8)이었다. SBS는 일반기자가 521건(80.9%), 특파원이 70건(10.9%), 전문기자 52건(8.1%),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이 3건(0.5%)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언론사별 취재 심층성

취재 심층성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전문기자	76(10.4)	78(13.2)	56(8.7)	52(8.1)	262(10.0)
일반기자	567(77.8)	439(74.0)	478(74.0)	521(80.9)	2,005(76.8)
특파원	86(11.8)	74(12.5)	94(14.6)	70(10.9)	324(12.4)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18(2.8)	3(0.5)	21(0.8)
합계	729(100)	591(100)	646(100)	646(100)	2,612(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보도의 사실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7>과 같이 전체 보도 비율의 98%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신문사, 방송사 모두 상당히 사실 중심적 기반에 둔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긍정적인 언론보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겨레의 경우 사실 중심적 보도가 546건(98.7%)으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의 경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7건(2.6%)으로 다른 언론사들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로는 관련 보건당국 또는 전문가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의 시민, 유학생들의 현지상황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보도 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주변 상인들의 추측성 인터뷰만을 그대로 다룬 보도들이 있었다.

언론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696건(98.2%), 한겨레는 546건(98.7%), KBS는 628건(97.7%), SBS는 627건(97.4%)으로 나타났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는 조선일보가 13건(1.8%), 한겨레가 7건(1.3%), KBS가 15건(2.3%), SBS가 17건(2.6%)이었다. 언론사별로 보도 사실성은 서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17> 언론사별 보도 사실성

보도 사실성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사실 중심적	696(98.2)	546(98.7)	628(97.7)	627(97.4)	2,497(98.0)
추측·예측 중심적	13(1.8)	7(1.3)	15(2.3)	17(2.6)	52(2.0)
합계	709(100)	553(100)	643(100)	644(100)	2,54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보도 방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음 <표 18>과 같이 한국 언론보도는 감염병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한 쪽 시각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6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인 논조의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감염병 발생 사례, 발생동향, 방역 대응, 정부 정책, 감염병 정보, 예방 수칙 등의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부정이 290건(11.4%), 긍정이 32건(1.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논조의 경우 정부의 허술한 방역을 비판하거나 일관성 있지 않는 정부의 메시지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을 지적,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기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의 경우,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당시 미국 보건당국의 미완성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와 치료제 개발 추진에 따른 긍정적 평가 내용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확산 되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발 빠른 대처 및 대응으로 감염병 위기에서 벗어났던 해외 정부 사례에 대한 기사 등이 있었다.

언론사별로 논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논조가 607건(85.6%)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논조가 89건(12.6%), 긍정적인 논조가 13건(1.8%) 순이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470건(85.0%)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논조가 76건(13.7%), 긍정적인 논조가 7건(1.3%)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중립적인 논조가 577건(89.7%), 부정적인 논조가 60건(9.3%), 긍정적인

논조가 6건(0.9%)이었으며 SBS는 중립적인 논조가 573건(89.0%), 부정적인 논조가 65건(10.1%), 긍정적인 논조가 6건(0.9%)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사별로 보도 방향성은 서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중립적인 보도가 많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보도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염병과 관련한 위기상황에서 언론이 분명한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비론적 보도를 하는 형태,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18> 언론사별 보도 방향성

보도 방향성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긍정	13(1.8)	7(1.3)	6(0.9)	6(0.9)	32(1.3)
중립	607(85.6)	470(85.0)	577(89.7)	573(89.0)	2,226(87.4)
부정	89(12.6)	76(13.7)	60(9.3)	65(10.1)	290(11.4)
합계	709(100)	553(100)	643(100)	644(100)	2,548(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정보원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 <표 19>와 같이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59건(31.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 전문가가 615건(15.2%),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362건(8.9%), 시민 270건(6.7%), 한국 및 해외 기업 184건(4.5%),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184건(4.5%), 한국 및 해외 언론 179건(4.4%), 세계기구가 154건(3.8%), 해외 전문가 146건(3.6%), 세계시민 130건(3.2%), 자영업자 113건(2.8%), 확진자 및 가족 73건(1.8%).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가 68건(1.7%),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61건(1.5%), 공항 관련 관계자와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각각 41건(1.0%), 의심·추정 환자·자가격리자 34건(0.8%), 공공기관 33건(0.8%), 유학생 23건(0.6%), 한국 및 해외경찰 22건(0.5%), 군 관계자가 19건(0.5%), 기타가 15건(0.4%), 시민단체가 12건(0.3%), 법조계 관계자 및 기부단체·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6건(0.1%), 종교 단체가 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염병의 경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및 지자체의 의견과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만 더불어 대중의 위험인식과 심각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입장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언론사별로 정보원 유형을 비교해보면 조선일보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99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 전문가 209건(17.6%), 해외정부 및 지자체 118건(9.9%), 한국 및 해외 언론 84건(7.1%), 한국 및 해외 기업 78건(6.6%), 시민 63건(5.3%), 세계기구 및 해외 전문가가 각각 53건(4.5%), 세계시민 36건(3.3%),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7건(3.1%), 자영업자 30건(2.5%),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28건(2.4%),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9건(1.6%),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6건(1.3%), 교육부 및 교육청 11건(0.9%),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 기타가 각각 8건(0.7%), 공공기관 7건(0.6%), 공항 관련 관계자 및 군 관계자가 6건(0.5%), 법조계 관계자 5건(0.4%), 유학생 및 시민단체 3건(0.3%),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2건(0.2%)이었다.

한겨레의 경우도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18건(34.0%)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울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언론사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가 144건(15.4%), 해외정부 및 지자체 84건(8.9%), 한국 및 해외 언론 60건(6.4%), 한국 및 해외 기업 52건(5.6%), 시민 39건(4.2%), 해외 전문가 38건(4.1%),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3건(3.5%), 세계기구 30건(3.2%),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23건(2.5%), 세계시민 21건(2.2%), 교육부 및 교육청 19건(2.0%),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1건(1.2%),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공공기관이 10건(1.1%), 공항 관련 관계자 6건(0.6%), 시민단체 3건(0.3%), 군 관계자 2건(0.2%), 유학생과 한국 및 해외경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가 각각 1건(0.1%)이었으며 기타 항목은 없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14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133건(13.8%)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와는 달리 시민 유형이 85건(8.8%)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80건(8.3%),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57건(5.9%), 세계기구 44건(4.6%), 세계시민 34건(3.5%), 한국 및 해외 기업 28건(2.9%), 해외 전문가 27건(2.8%), 자영업자

26건(2.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이 20건(2.1%), 공항 관련 관계자 16건(1.7%),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4건(1.5%),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13건(1.3%), 유학생 8건(0.8%), 교육부 및 교육청 6건(0.6%), 한국 및 해외 경찰과 군 관계자 각각 5건(0.5%), 시민단체 4건(0.4%), 종교단체와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가 각각 2건(0.2%)이었으며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SBS 역시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2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133건(13.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시민이 85건(8.8%), 해외정부 및 지자체 80건(8.3%),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57건(5.9%), 세계시민 39건(4.0%), 자영업자 36건(3.7%), 해외 전문가 29건(3.0%), 세계기구 27건(2.8%), 한국 및 해외 기업이 26건(2.7%), 한국 및 해외 관계자 20건(2.1%),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이 15건(1.6%), 공항 관련 관계자와 공공기관 13건(1.3%), 유학생 11건(1.1%), 의심·추정환자·자가 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이 각각 8건(0.8%), 군 관계자 6건(0.6%), 교육부 및 교육청과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기타가 각각 5건(0.5%), 시민단체 2건(0.2%),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 1건(0.1%)이었으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신문사와 방송사의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순의 비율까지는 동일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해외 기업 순이었지만 방송사인 KBS와 SBS는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순이었다. 이는 신문사의 경우 해외와 관련된 정보원을 갖고 언론 보도가 한 부분이 많았고 방송사는 한국과 관련된 정보원을 다소 많이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방송보도에서 시민,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의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형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방송보도 특성상 현장 스케치성 보도 또는 인물 위주의 일회성 및 단순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정보원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신력 있는 유형인지, 단순 감염병 확진자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정보원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 자영업자, 확진자 및 가족,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등이 등장한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제공하는 내용은 감염병 전반의 방역 및 예방에 대한 정보성 기사가 아닌, 확진자가 다녀 간 후 불안한 현재 주변 상황, 분위기 등을 전달하며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하는 취지의 기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한국정부 및 지자체	299(25.1)	318(34.0)	314(32.6)	328(33.9)	1,259(31.1)
한국 전문가	209(17.6)	144(15.4)	129(13.4)	133(13.8)	615(15.2)
세계기구	53(4.5)	30(3.2)	44(4.6)	27(2.8)	154(3.8)
해외정부 및 지자체	118(9.9)	84(8.9)	80(8.3)	80(8.3)	362(8.9)
세계시민	36(3.0)	21(2.2)	34(3.5)	39(4.0)	130(3.2)
해외 전문가	52(4.4)	38(4.1)	27(2.8)	29(3.0)	146(3.6)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28(2.4)	10(1.1)	20(2.1)	15(1.6)	73(1.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7(3.1)	33(3.5)	57(5.9)	57(5.9)	184(4.5)
한국 및 해외 언론	84(7.1)	60(6.4)	20(2.1)	15(1.6)	179(4.4)
한국 및 해외 기업	78(6.6)	52(5.6)	28(2.9)	26(2.7)	184(4.5)
시민단체	3(0.3)	3(0.3)	4(0.4)	2(0.2)	12(0.3)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6(1.3)	11(1.2)	21(2.2)	20(2.1)	68(1.7)
시민	63(5.2)	39(4.1)	83(8.6)	85(8.8)	270(6.6)
자영업자	30(2.5)	21(2.2)	26(2.7)	36(3.7)	113(2.8)
공항 관련 관계자	6(0.5)	6(0.6)	16(1.7)	13(1.3)	41(1.0)
유학생	3(0.2)	1(0.1)	8(0.8)	11(1.1)	23(0.6)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8(0.7)	5(0.5)	13(1.3)	8(0.8)	34(0.8)
공공기관	7(0.6)	10(1.1)	3(0.3)	13(1.3)	33(0.8)
한국 및 해외 경찰	8(0.7)	1(0.1)	5(0.5)	8(0.8)	22(0.5)
군 관계자	6(0.5)	2(0.2)	5(0.5)	6(0.6)	19(0.5)
교육부 및 교육청	11(0.9)	19(2.0)	6(0.6)	5(0.5)	41(1.0)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9(1.6)	23(2.5)	14(1.5)	5(0.5)	61(1.5)
종교단체	1(0.1)	1(0.1)	2(0.2)	0(0.0)	4(0.1)
법조계 관계자	5(0.4)	1(0.1)	0(0.0)	0(0.0)	6(0.1)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2(0.2)	1(0.1)	2(0.2)	1(0.1)	6(0.1)
기타	8(0.7)	0(0.0)	2(0.2)	5(0.5)	15(0.4)
합계	1,190(100)	934(100)	963(100)	967(100)	4,054(100)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1-1. 감염병별로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1에 따른 감염병별로 언론보도의 특성 가운데 먼저 기사심층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20>과 같이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 초기 발생시 언론보도는 대응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수는 총 1,309건(42.5%)이었다. 이어 영향분석이 773건(25.1)%, 사건발생이 622건(20.2), 원인분석이 379(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스 발생 당시 언론보도는 대응분석이 165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영향분석 108건(28.6%), 사건발생(19.6%), 원인분석 31건(8.2%)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시기에는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사례등과 같이 단순 사건보도인 사건발생이 89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응분석 79건(30.9%), 영향분석 71건(27.7%), 원인분석 17건(6.6%) 순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이슈가 있을 당시에는 영향분석이 27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대응분석이 26건(33.3%), 사건발생 15건(19.2%), 원인분석이 10건(12.8%)이었다.

메르스 발생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55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발생(19.3%), 영향분석 226건(18.3%), 원인분석 220건(17.8%)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는 대응분석이 486건(42.9%), 영향분석이 341건(30.1%), 사건발생이 205건(18.1%), 원인분석이 101건(8.9%)순이었다. 이처럼 감염병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감염병 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은 방역 대책 및 대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감염병이 현재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과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

기사 심층성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사건발생	74(19.6)	89(34.8)	15(19.2)	239(19.3)	205(18.1)	622(20.2)
원인분석	31(8.2)	17(6.6)	10(12.8)	220(17.8)	101(8.9)	379(12.3)
영향분석	108(28.6)	71(27.7)	27(34.6)	226(18.3)	341(30.1)	773(25.1)
대응분석	165(43.7)	79(30.9)	26(33.3)	553(44.7)	486(42.9)	1,309(42.5)
합계	378(100)	256(100)	78(100)	1,238(100)	1,133(100)	3,083(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 발생시에 취재 심층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아래 <표 21>과 같이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유형은 일반기자가 2,005건(7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특파원이 324건(12.4%), 전문기자가 262건(10.0%), 스튜디오 인터뷰 21건(0.8%)이었다. 스튜디오 인터뷰의 경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발생 당시의 보도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만 21건(2.2%)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취재 심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감염병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사스 발생 당시 일반기자는 200건(65.4%), 특파원은 78건(25.5%), 전문기자는 28건(9.2%)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시기에는 일반기자가 143건(75.3%), 특파원 30건(15.8%), 전문기자 17건(8.9%)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이슈가 되던 당시 보도에서는 일반기자가 49건(67.1%), 특파원 13건(17.8%), 전문기자 11건(15.1%) 순이었다. 메르스 발생 시의 보도에서는 일반기자 905건(82.4%), 전문기자 151(13.8%), 특파원 42건(3.8%) 순으로 일반기자에 대한 비중이 다른 언론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언론사들이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취재 비율이 높았던 반면, 메르스 때는 두 번째로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708건(74.9%), 특파원 161건(17.0%), 전문기자 55건(5.8%), 스튜디오 인터뷰 21건(2.2%) 순이었다. 즉, 감염병 종류에 상관없이 감염병 관련 보도에서는

일반기자가 취재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당시의 기사는 다른 감염병 시기에 비해 전문기자가 취재한 보도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 감염병별 취재 심층성

취재 심층성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전문기자	28(9.2)	17(8.9)	11(15.1)	151(13.8)	55(5.8)	262(100)
일반기자	200(65.4)	143(75.3)	49(67.1)	905(82.4)	708(74.9)	2,005(76.8)
특파원	78(25.5)	30(15.8)	13(17.8)	42(3.8)	161(17.0)	324(12.4)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21(2.2)	21(0.8)
합계	306(100)	190(100)	73(100)	1,098(100)	945(100)	2,612(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로 살펴본 보도 사실성이다. 분석한 결과, 다음 <표 22>와 같이 사실 중심적이 2,497건(98.0%), 추측·예측 중심적이 52건(2.0%)으로 감염병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보도 사실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사스 관련 보도는 사실 중심적이 288건(96%), 추측·예측 중심적이 12건(4.0%)이었으며 신종플루는 사실 중심적이 184건(98.4%), 추측·예측 중심적이 3건(1.6%)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사실 중심적이 66건(97.1%), 추측·예측 중심적이 2(2.9%)이었고, 메르스는 사실 중심적이 1,059건(98.7%), 추측·예측 중심적이 14건(1.3%)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당시는 사실 중심적 보도가 900건(97.7%), 추측·예측 중심적이 21건(2.3%)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심적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감염병 시기는 메르스 98.7%였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사스 4.0%였다.

<표 22> 감염병별 보도 사실성

보도 사실성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사실 중심적	288(96.0)	184(98.4)	66(97.1)	1,059(98.7)	900(97.7)	2,497(98.0)
추측·예측 중심적	12(4.0)	3(1.6)	2(2.9)	14(1.3)	21(2.3)	52(2.0)
합계	300(100)	187(100)	68(100)	1,073(100)	921(100)	2,54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 보도 방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음 <표 23>과 같이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6건(8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정이 290건(11.4%), 긍정이 32건(1.3%)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보도방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사스 발생시점의 보도에서는 중립보도가 264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보도가 31건(10.3%), 긍정보도가 5건(1.7%)이었다. 신종플루 당시에도 중립적인 보도가 176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10건(5.3%), 긍정보도가 1건(0.5%)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이슈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56건(82.4%),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9건(13.2%), 긍정보도가 3건(4.4%)이었으며 메르스 시점의 보도에서는 중립적인 보도가 889건(82.9%), 부정적인 보도가 167건(15.6%), 긍정보도가 17건(1.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점의 보도 방향성은 중립적인 보도가 842건(91.4%), 부정적인 보도가 73건(7.9%),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6건(0.7%)이었다. 중립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신종플루(94.1%) 당시였으며, 부정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메르스(15.6%), 긍정적인 보도가 높았던 시기는 에볼라바이러스병(3건, 4.4%)이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게 감염자 발생 지역과 환자가 머문 병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보도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언론보도는 “초기 대응 실패”, “컨트롤 타워 부재”, “우왕좌왕 정부기관의 대응” 등을 지적한 기사들이 속출하였다.

<표 23> 감염병별 보도 방향성

보도 방향성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긍정	5(1.7)	1(0.5)	3(4.4)	17(1.6)	6(0.7)	32(1.3)
중립	264(88.0)	176(94.1)	56(82.4)	889(82.9)	842(91.4)	2,227(87.4)
부정	31(10.3)	10(5.3)	9(13.2)	167(15.6)	73(7.9)	290(11.4)
합계	300(100)	187(100)	68(100)	1,073(100)	921(100)	2,54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로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을 <표 24>와 같이 살펴보았다. 사스 발생 시점의 보도에서 주요 활용된 정보원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05건(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62건(14.4%), 한국 전문가가 43건(10.0%), 한국 및 해외 언론이 34건(7.4%), 한국 및 해외 기업이 32건(7.4%), 세계시민과 공항 관련 관계자가 각각 25건(5.8%), 세계기구와 시민이 각각 21건(4.9%), 해외 전문가 15건(3.5%),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3건(3.0%), 자영자와 유학생이 각각 10건(2.3%), 공공기관 6건(1.4%), 한국 및 해외 경찰 4건(0.9%),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군 관계자가 각각 1건(0.2%)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8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55건(20.5%), 세계기구가 28건(10.4%), 한국 및 해외 언론이 24건(9.0%), 한국 전문가가 22건(8.2%), 세계시민 16건(6.0%), 해외 전문가 11건(4.1%), 시민 10건(3.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7건(2.6%), 한국 및 해외 기업 3건(1.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2건(0.7%), 공항 관련 관계자와 공공기관이 각각 1건(0.4%)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 자영업자, 의심·추정환자·격리환자,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시점에서 언론보도의 정보원 활용은 다른 감염병 시점과 달리 세계기구가 27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정부 및 지자체 20건(14.8%), 해외정부 및 지자체 19건(14.1%), 한국 및 해외 언론 17건(12.6%), 해외 전문가 13건(9.6%), 한국 전문가 10건(7.4%), 세계시민 9건(6.7%), 한국 및 해외 기업 5건(3.7%),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4건(3.0%),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시민, 자영업자가 각각 2건(1.5%),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가 각각 1건(0.7%)이었다. 그 외 공항 관련 관계자, 유학생, 공공기관,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다음으로 메르스 발생 시점의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595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5종 감염병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한국 전문가가 338건(19.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141건(8.3%), 시민 130건(7.6%),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57건(3.3%), 자영업자 54건(3.2%), 한국 및 해외 기업 50건(2.9%),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44건(2.6%), 해외정부 및 지자체 41건(2.4%), 해외 전문가 39건(2.3%), 세계기구 36건(2.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34건(2.0%),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각각 21건(1.2%), 세계시민 19건(1.1%), 한국 및 해외 언론, 공공기관, 군 관계자가 각각 17건(1.0%), 한국 및 해외 경찰 11건(0.6%), 시민단체 7건(0.4%), 법조계 관계자와 기타가 각각 6건(0.4%), 유학생 3건(0.2%). 공항 관련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2건(0.1%)이었으며 종교단체는 0건(0.0%)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점의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459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가 205건(13.4%),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87건(12.2%), 시민 107건(7.0%), 한국 및 해외 기업 96건(6.3%), 한국 및 해외 언론 87건(5.7%), 해외 전문가 72건(4.7%), 세계시민 65건(4.2%), 자영업자 47건(3.1%). 세계기구 44건(2.9%),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5건(2.3%), 교육부 및 교육청 20건(1.3%),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7건(1.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5건(1.0%), 공항 관련 관계자 13건(0.8%), 의심·추정

환자·자가격리자 11건(0.7%), 유학생 10건(0.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공공 기관이 각각 9건(0.6%), 기타 8건(0.5%), 한국 및 해외 경찰 7건(0.5%), 종교단체와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4건(0.3%), 시민단체 3건(0.2%), 법조계 관계자는 0건(0.0%)이었다.

다른 감염병 당시보다 코로나19 당시 기사에서 정보원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이 직업과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4>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한국정부 및 지자체	105(24.4)	82(30.6)	20(14.8)	595(34.8)	459(29.9)	1,261(30.9)
한국 전문가	43(10.0)	22(8.2)	10(7.4)	338(19.8)	205(13.4)	618(15.2)
세계기구	21(4.9)	28(10.4)	27(20.0)	36(2.1)	44(2.9)	156(3.8)
해외정부 및 지자체	62(14.4)	55(20.5)	19(14.1)	41(2.4)	187(12.2)	364(8.9)
세계시민	25(5.8)	16(6.0)	9(6.7)	19(1.1)	65(4.2)	134(3.3)
해외 전문가	15(3.5)	11(4.1)	13(9.6)	39(2.3)	72(4.7)	150(3.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1(0.2)	7(2.6)	1(0.7)	57(3.3)	9(0.6)	75(1.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1(0.2)	6(2.2)	2(1.5)	141(8.3)	35(2.3)	185(4.5)
한국 및 해외 언론	34(7.9)	24(9.0)	17(12.6)	17(1.0)	87(5.7)	179(4.4)
한국 및 해외 기업	32(7.4)	3(1.1)	5(3.7)	50(2.9)	96(6.3)	186(4.6)
시민단체	0(0.0)	0(0.0)	2(1.5)	7(0.4)	3(0.2)	12(0.3)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3(3.0)	2(0.7)	4(3.0)	34(2.0)	15(1.0)	68(1.7)
시민	21(4.9)	10(3.7)	2(1.5)	130(7.6)	107(7.0)	270(6.6)
자영업자	10(2.3)	0(0.0)	2(1.5)	54(3.2)	47(3.1)	113(2.8)
공항 관련 관계자	25(5.8)	1(0.4)	0(0.0)	2(0.1)	13(0.8)	41(1.0)
유학생	10(2.3)	0(0.0)	0(0.0)	3(0.2)	10(0.7)	23(0.6)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1(0.2)	0(0.0)	1(0.7)	21(1.2)	11(0.7)	34(0.8)
공공기관	6(1.4)	1(0.4)	0(0.0)	17(1.0)	9(0.6)	33(0.8)
한국 및 해외 경찰	4(0.9)	0(0.0)	0(0.0)	11(0.6)	7(0.5)	22(0.5)
군 관계자	1(0.2)	0(0.0)	0(0.0)	17(1.0)	1(0.1)	19(0.5)
교육부 및 교육청	0(0.0)	0(0.0)	0(0.0)	21(1.2)	20(1.3)	41(1.0)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0(0.0)	0(0.0)	0(0.0)	44(2.6)	17(1.1)	61(1.5)
종교단체	0(0.0)	0(0.0)	0(0.0)	0(0.0)	4(0.3)	4(0.1)
법조계 관계자	0(0.0)	0(0.0)	0(0.0)	6(0.4)	0(0.0)	6(0.1)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0(0.0)	0(0.0)	0(0.0)	2(0.1)	4(0.3)	6(0.1)
기타	0(0.0)	0(0.0)	1(0.7)	6(0.4)	8(0.5)	15(0.4)
합계	430(100)	268(100)	135(100)	1,708(100)	1,535(100)	4,076(100)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2.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다음은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 <표 25>와 같이 정보 프레임이 1,489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프레임 743건(17.1%), 사회영향 프레임 644건(14.8%), 책임 프레임 385건(8.9%), 갈등 프레임 271건(6.2%), 경제 프레임 212건(4.9%), 설득 프레임 205건(4.7%), 공포 프레임 204건(4.7%), 희망적 프레임 87건(2.0%), 인간흥미 프레임 74건(1.7%), 예방 프레임 36건(0.8%) 순이었다.

이처럼 프레임의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정보 프레임과 정책 프레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감염병 관련 정보,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하는 보도 등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과 지원 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언론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동향과 정부 대책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로 확산 및 전개되어 나가는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병 관련 상황 업데이트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다양한 정책에 더욱 주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이 잘못된 대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우려 상황은 어떠한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보도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프레임, 설득 프레임, 책임 프레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확진자에 대한 프레임을 언론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실제 언론에서 감염병 첫 발생국가와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포와 갈등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368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영향 프레임이 190건(15.9%), 정책 프레임이 189건(15.8%), 책임 프레임 108건(9.0%), 갈등 프레임 90건(7.5%), 경제 프레임 80건(6.7%), 설득 프레임 51건(4.3%), 공포 프레임 42건(3.5%), 인간흥미 프레임 33건(2.8%), 희망적 프레임 26건(2.2%), 예방 프레임 20건(1.7%)이었다.

한겨레도 정보 프레임이 314건(3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 180건(18.4%), 사회영향 프레임 146건(14.9%), 책임 프레임 105건(10.7%), 경제 프레임 67건(6.8%), 갈등 프레임 61건(6.2%), 설득 프레임 36건(3.7%), 공포 프레임 32건(3.3%), 희망적 프레임 17건(1.7%), 인간흥미 프레임 13건(1.3%), 예방 프레임 9건(0.9%)이었다.

KBS의 경우 정보 프레임이 379건(35.4%), 정책 프레임 204건(19.1%), 사회영향 프레임 161건(15.0%), 책임 프레임 78건(7.3%),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각각 60건(5.6%), 갈등 프레임 56건(5.2%), 경제 프레임 33건(3.1%), 희망적 프레임 22건(2.1), 인간흥미 12건(1.1%), 예방 프레임 5건(0.5%)이었다.

SBS는 정보프레임이 428건(38.3%)으로 언론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170건(15.4%), 사회영향 프레임 147건(13.3%), 책임 프레임 94건(8.5%), 공포 프레임 70건(6.3%), 갈등 프레임 64건(5.8%), 설득 프레임 58건(5.3%), 경제 프레임이 32건(2.9%), 희망적 프레임이 22건(2.0%), 인간흥미 프레임이 16건(1.5%), 예방 프레임 2건(0.2%)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 KBS, SBS와 달리 정보 프레임 다음으로 사회영향 프레임이 두 번째로 높은 보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 역시 한겨레, KBS, SBS는 갈등 프레임인 반면 조선일보는 경제 프레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SBS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문사와 방송사별로 비교해보면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에 비해 경제 프레임 유형의 비중이 높았고 방송사의 경우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신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보도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와, 자영업자들의 고통, 구직난, 실직자의 어려운 실정, 우려되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등에 주목한 반면, 방송보도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포프레임이 11.9%를 차지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낙인, 차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

프레임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체
정책 프레임	189(15.8)	180(18.4)	204(19.1)	170(15.4)	743(17.1)
정보 프레임	368(30.7)	314(32.0)	379(35.4)	428(38.8)	1,489(34.2)
경제 프레임	80(6.7)	67(6.8)	33(3.1)	32(2.9)	212(4.9)
사회영향 프레임	190(15.9)	146(14.9)	161(15.0)	147(13.3)	644(14.8)
갈등 프레임	90(7.5)	61(6.2)	56(5.2)	64(5.8)	271(6.2)
책임 프레임	108(9.0)	105(10.7)	78(7.3)	94(8.5)	385(8.9)
설득 프레임	51(4.3)	36(3.7)	60(5.6)	58(5.3)	205(4.7)
공포 프레임	42(3.5)	32(3.3)	60(5.6)	70(6.3)	204(4.7)
예방 프레임	20(1.7)	9(0.9)	5(0.5)	2(0.2)	36(0.8)
인간흥미 프레임	33(2.8)	13(1.3)	12(1.1)	16(1.5)	74(1.7)
희망적 프레임	26(2.2)	17(1.7)	22(2.1)	22(2.0)	87(2.0)
합계	1,197(100)	980(100)	1,070(100)	1,103(100)	4,350(100)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2-1. 감염병별로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다음은 감염병별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26>과 같이 정보 프레임이 1,489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프레임 743건(17.1%), 사회영향 프레임 644건(14.8%), 책임 프레임 385건(8.9%), 갈등 프레임 271건(6.2%), 경제 프레임 212건(4.9%), 설득 프레임 205건(4.7%), 공포 프레임 204건(4.7%), 희망적 프레임 87건(2.0%), 인간흥미 프레임 74건(1.7%), 예방 프레임 36건(0.8%)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별로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스 시점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135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87건(18.2%), 사회영향 프레임이 83건(17.3%), 경제 프레임이 49건(10.2%), 공포 프레임이 32건(6.7%), 갈등 프레임이 30건(6.3%), 책임 프레임이 23건(4.8%), 희망적 프레임이 14건(2.9%), 설득 프레임이 11건(2.3%), 인간흥미 프레임이 10건(2.1%), 예방 프레임이 5건(1.0%)이었다.

신종플루 관련 프레임 유형은 마찬가지로 정보프레임이 11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공포 프레임이 56건(16.9%), 정책 프레임이 46건(13.9%), 사회영향 프레임이 41건(12.3%), 희망적 프레임 28건(8.4%), 갈등 프레임 10건(3.0%), 인간 흥미 프레임 9건(2.7%), 책임 프레임 8건(2.4%), 설득 프레임 7건(2.1%), 경제 프레임 5건(1.5%), 예방 프레임 3건(0.9%)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 36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 29건(25.4%), 사회영향 프레임 19건(16.7%), 공포 프레임 12건(10.5%), 책임 프레임 9건(7.9%), 희망적 프레임 4건(3.5%), 갈등 프레임과 인간흥미 프레임이 각각 2건(1.8%)이었으며 경제 프레임 1건(0.9%), 설득프레임과 예방 프레임은 0건(0.0%)이었다.

메르스 관련 보도 프레임 유형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704건(40.1%)으로 5종 감염병 가운데 정보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256건(14.6%), 책임 프레임이 216건(12.3%), 사회영향 프레임 165건(9.4%), 갈등 프레임 123건(7.0%), 설득 프레임 94건(5.4%), 경제 프레임 62건(3.5%), 공포 프레임 50건

(2.9%), 인간홍미 프레임 38건(2.2%), 희망적 프레임 31(1.8%), 예방 프레임 15건(0.9%)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도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 495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영향 프레임이 336건(20.1%), 정책 프레임이 325건(19.4%), 책임 프레임 129건(7.7%), 갈등 프레임 106건(6.3%), 경제 프레임 95건(5.7%), 설득 프레임 93건(5.6%), 공포 프레임 54건(3.2%), 인간홍미 프레임 15건(0.9%), 예방 프레임 13건(0.8%), 희망적 프레임 10건(0.6%)으로 확인되었다.

신종플루의 경우, 다른 4종의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초기 언론보도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포심을 확산시켰다. 그의 반해 예방프레임이 3건(0.9%)으로 가장 적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4종의 감염병과 비교해 봤을 때 신종플루는 치명률이 약 0.056%으로 가장 낮고, 치료제를 통한 실질적인 일상 회복이 다소 빠른 시간 가능해졌으며, 현재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에 비해 초기 언론보도에서 정부가 추정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1,000만 명이 감염돼 2만 명 사망 가능성”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위험성과 공포심을 확산시켰다. 반면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에 대한 예방프레임이 3건(0.9%)으로 가장 적었다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적 해석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코로나19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SBS 뉴스에서는 1월 29일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중국 전역으로 공포가 번져 우한은 폐닉 상태다”라고 보도했으며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7일 조선일보에서는 “우한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서울 및 전국 곳곳이 율령도시처럼 변해간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표 26> 감염병별 프레임 유형

프레임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정책 프레임	87(18.2)	46(13.9)	29(25.4)	256(14.6)	325(19.4)	743(17.1)
정보 프레임	135(28.2)	119(35.8)	36(31.6)	704(40.1)	495(29.6)	1,489(34.2)
경제 프레임	49(10.2)	5(1.5)	1(0.9)	62(3.5)	95(5.7)	212(4.9)
사회영향 프레임	83(17.3)	41(12.3)	19(16.7)	165(9.4)	336(20.1)	644(14.8)
갈등 프레임	30(6.3)	10(3.0)	2(1.8)	123(7.0)	106(6.3)	271(6.2)
책임 프레임	23(4.8)	8(2.4)	9(7.9)	216(12.3)	129(7.7)	385(8.9)
설득 프레임	11(2.3)	7(2.1)	0(0.0)	94(5.4)	93(5.6)	205(4.7)
공포 프레임	32(6.7)	56(16.9)	12(10.5)	50(2.9)	54(3.2)	204(4.7)
예방 프레임	5(1.0)	3(0.9)	0(0.0)	15(0.9)	13(0.8)	36(0.8)
인간흥미 프레임	10(2.1)	9(2.7)	2(1.8)	38(2.2)	15(0.9)	74(1.7)
희망적 프레임	14(2.9)	28(8.4)	4(3.5)	31(1.8)	10(0.6)	87(2.0)
합계	479(100)	332(100)	114(100)	1,754(100)	1,671(100)	4,350(100)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3.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를 주차별로 살펴보았을 때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다음은 분석기간인 한 달을 4개의 주차별로 나눠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 보도 특성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기사 심층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이 1주차에서 조선일보는 대응분석이 40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25건(26.3%), 사건발생 20건(21.1%), 원인분석 10건(10.5%)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영향분석이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응분석 17건(29.3%), 사건발생 16건(27.6%), 원인분석 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KBS는 대응분석이 22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향분석 19건(31.7%), 사건발생 12건(20.0%), 원인분석 7건(11.7%)이었다. SBS는 영향분석이 20건(32.3%) 가장 많았고, 사건발생과 대응분석이 각각 17건(27.4%)이었으며 원인분석이 8건(12.9%)이었다. 이와 같이 감염병 발생 첫 주인 1주차에서는 감염병 발생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 미칠 영향과 어떻게 감염병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왜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 내용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영향분석이 38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응 분석이 36건(32.1%), 사건발생이 23건(20.5%), 원인분석이 15건(13.4%)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대응분석이 52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영향분석이 28건(24.6%), 사건발생이 21건(18.4%), 원인분석이 13건(11.4%)이었다. KBS는 사건발생과 영향분석, 대응분석이 각각 24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분석은 11건(13.3%)이었다. SBS는 대응분석이 48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향분석이 23건(23%), 사건발생이 18건(18.0%), 원인분석이 11건(11.0%)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선일보는 1주차와 달리 2주차에는 영향분석에 대한 기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겨레는 오히려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1주차에 비해 약 16%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BS는 단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사건발생 기사와 영향분석, 대응분석이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SBS는 영향분석 기사가 많았던 1주차와 달리 2주차에서는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비율이 약 20%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대응분석이 135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81건(26.9%), 사건발생이 52건(17.3%), 원인분석 33건(11.0%)이었다. 다음으로 한겨레는 대응분석이 113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영향분석이 54건(23.8%), 사건발생이 33건(14.5%), 원인분석이 27건(11.9%)으로 나타났다. KBS는 대응분석이 115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영향분석이 48건(20.9%), 사건발생이 34건(14.8%), 원인분석이 33(14.3%)이었다. SBS는 대응분석이 115건(50.0%), 영향분석이 55건(23.9%), 사건발생이 41건(17.8%), 원인분석이 22건(9.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주차에서 감염병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KBS, SBS 모두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는 여전히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언론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의 감염병 관련 대응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주차에서 조선일보는 대응분석이 148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건발생이 71건(21.2%), 영향분석이 20건(20.9%), 원인분석이 46건(13.7%)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대응분석이 116건(40.6%), 영향분석이 77건(26.9%), 원인분석이 47건(16.4%), 사건발생이 46건(16.1%)이었다. KBS는 대응분석이 175건(44.8%), 영향분석이 97건(24.8%), 사건발생이 75건(19.2%), 원인분석이 44건(11.3%)이었다. SBS는 대응분석이 139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건발생이 119건(29.8%), 영향분석이 94건(23.6%), 원인분석이 47건(11.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주차에서는 전체 언론사 모두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조선일보와 SBS에서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주차별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염병 발생 초기 이래로 시간 경과에 따른 확산정도가 커지면서 확산과정과 감염병이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하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주차별 언론사의 기사 심층성

기사 심층성	1 주차				2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사건발생	20(21.1)	16(27.6)	12(20.0)	17(27.4)	23(20.5)	21(18.4)	24(28.9)	18(18.0)
원인분석	10(10.5)	5(8.6)	7(11.7)	8(12.9)	15(13.4)	13(11.4)	11(13.3)	11(11.0)
영향분석	25(26.3)	20(34.5)	19(31.7)	20(32.3)	38(33.9)	28(24.6)	24(28.9)	23(23.0)
대응분석	40(42.1)	17(29.3)	22(36.7)	17(27.4)	36(32.1)	52(45.6)	24(28.9)	48(48.0)
합계	95(100)	58(100)	60(100)	62(100)	112(100)	114(100)	83(100)	100(100)

기사 심층성	3 주차				4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사건발생	52(17.3)	33(14.5)	34(14.8)	41(17.8)	71(21.2)	46(16.1)	75(19.2)	119(29.8)
원인분석	33(11.0)	27(11.9)	33(14.3)	22(9.6)	46(13.7)	47(16.4)	44(11.3)	47(11.8)
영향분석	81(26.9)	54(23.8)	48(20.9)	55(23.9)	70(20.9)	77(26.9)	97(24.8)	94(23.6)
대응분석	135(44.9)	113(49.8)	115(50.0)	115(50.0)	148(44.2)	116(40.6)	175(44.8)	139(34.8)
합계	301(100)	227(100)	230(100)	230(100)	335(100)	286(100)	391(100)	39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취재 심층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8>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일반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58(69.9%)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이 13건(15.7%), 전문기자가 12(14.5%)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일반기자가 30건(62.5%), 전문기자 11건(22.9%), 특파원이 7건(14.5%)이었으며 KBS는 일반기자가 31건(63.3%), 특파원 11건(22.4%), 전문기자 7건(14.3%)이었다. SBS는 일반기자 30건(60.0%), 전문기자 17건(14.0%), 특파원 13건(26.0%)이었다. 이처럼 1주차에서 조선일보와 KBS는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이 보도한 기사 건수의 비율이 높았고, 한겨레와 SBS는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았다.

2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일반기자 73건(79.3%), 전문기자 11건(12.0%), 특파원 8건(8.7%)이었다. 한겨레는 일반기자 66건(67.3%), 전문기자 18건(18.4%), 특파원 12건(12.2%)이었다. KBS는 일반기자가 38건(55.9%), 특파원 16건(23.5%), 전문기자 14건(20.6%)이었으며 SBS는 일반기자 46건(63.7%), 특파원 13건(17.1%), 전문기자 12건(16.9%), 스튜디오인터뷰 2건(2.7%)이었다. 이와 같이 2주차에서는 KBS와 SBS인 방송사에서만 특파원의 비율이 일반기자 다음으로 높았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일반기자가 205건(78.2%), 특파원 29건(11.1%), 전문기자 28건(10.7%)이었으며 한겨레는 일반기자 153건(77.7%), 특파원 23건(11.7%), 전문기자 21건(10.7%)이었다. KBS는 일반기자가 149건(73.8%), 특파원 28건(13.9%), 전문기자 20건(9.9%)이었으며 스튜디오인터뷰가 5건(2.5%)으로 나타났다. SBS는 일반기자가 154건(83.7%), 특파원 20건(10.9%), 전문기자 9건(4.9%), 스튜디오 인터뷰 1건(0.5%)이었다. 3주차에서는 언론사 모두가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다.

4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일반기자가 231건(79.1%), 특파원 36건(12.3%), 전문기자 25건(8.6%)이었으며 한겨레는 일반기자가 190건(76.6%), 특파원 32건(12.8%), 전문기자 28건(11.2%)이었다. KBS는 일반기자가 260건(79.5%), 특파원 39건(11.9%), 전문기자 15건(4.6%), 스튜디오인터뷰 13건(4.0%)이었으며 SBS는 일반기자 291건(85.8%), 전문기자와 특파원이 각각 24건(7.1%)이었다. 4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사 모두가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다. 위와 같이

1, 2주차와 3, 4주차자의 비율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일반기자의 비율은 3, 4주차로 갈수록 더욱 늘어났고, 반면에 특파원과 전문기자의 보도 건수는 3, 4주차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다 보니 발생 첫 주차에 발생국가에 대한 현상황과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가 많아 1, 2주차에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기자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기자 활용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표 28> 주차별 언론사의 취재 심층성

취재 심층성	1 주차				2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문기자	12(14.5)	11(22.9)	7(14.3)	17(14.0)	11(12.0)	18(18.4)	14(20.6)	12(16.9)
일반기자	58(69.9)	30(62.5)	31(63.3)	30(60.0)	73(79.3)	66(67.3)	38(55.9)	46(63.7)
특파원	13(15.7)	7(14.6)	11(22.4)	13(26.0)	8(8.7)	12(12.2)	16(23.5)	13(17.1)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7)
합계	83(100)	48(100)	49(100)	50(100)	92(100)	96(100)	68(100)	73(100)

취재심층성	3 주차				4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전문기자	28(10.7)	21(10.7)	20(9.9)	9(4.9)	25(8.6)	28(11.2)	15(4.6)	24(7.1)
일반기자	205(78.2)	153(77.7)	149(73.8)	154(83.7)	231(79.1)	190(76.0)	260(79.5)	291(85.8)
특파원	29(11.1)	23(11.7)	28(13.9)	20(10.9)	36(12.3)	32(12.8)	39(11.9)	24(7.1)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5(2.5)	1(0.5)	0(0.0)	0(0.0)	13(4.0)	0(0.0)
합계	262(100)	197(100)	202(100)	184(100)	292(100)	250(100)	327(100)	39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보도사실성을 알아보면, <표 29>와 같이 1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76건(95.0%),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4건(5.0%)이었다. 한겨레는 사실 중심적이 89건(100.0%)이었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KBS는 사실 중심적인 249건(98.0%), 추측·예측 중심적이 5건(2.0%)이었으며, SBS는 사실 중심적이 282건(98.6%), 추측·예측 중심적이 4건(1.4%)이었다. 이처럼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첫 주의 보도에서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42건(97.1%),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건(2.3%)이었으며 한겨레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90건(97.8%),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2건(2.2%)이었다. KBS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79건(98.4%),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3건(1.6%)이었으며 SBS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35건(99.6%),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건(0.4%)이었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48건(100.0%),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한겨레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68건(100.0%)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KBS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97건(98.0%),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4건(2.0%)이었으며 SBS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315건(96.6%),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1건(3.4%)이었다.

4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이 50건(100.0%), 추측·예측 중심적은 없었고, 한겨레는 사실 중심적인 68건(95.8%),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3건(4.2%)이었다. KBS는 사실 중심적이 180건(97.8%), 추측·예측 중심적이 4건(2.2%)이었으며, SBS는 사실 중심적이 329건(97.1%), 추측·예측 중심적이 10건(2.9%)이었다.

<표 29> 주차별 언론사의 보도 사실성

보도 사실성	1 주차				2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사실 중심적	76(95.0)	89(100.0)	249(98.0)	282(98.6)	42(97.1)	90(97.8)	179(98.4)	235(99.6)
추측·예측 중심적	4(5.0)	0(0.0)	5(2.0)	4(1.4)	1(2.3)	2(2.2)	3(1.6)	1(0.4)
합계	80(100)	89(100)	254(100)	286(100)	43(100)	92(100)	182(100)	236(100.0)

보도 사실성	3 주차				4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사실 중심적	48(100.0)	68(100.0)	197(98.0)	315(96.6)	50(100.0)	68(95.8)	180(97.8)	329(97.1)
추측·예측 중심적	0(0.0)	0(0.0)	4(2.0)	11(3.4)	0(0.0)	3(4.2)	4(2.2)	10(2.9)
합계	48(100)	68(100)	201(100)	326(100)	50(100)	71(100)	184(100)	33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보도방향성을 살펴보면, <표 30>과 같이 1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보도가 71건(8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8건(10.0%), 긍정보도가 1건(1.3%)이었다. 한겨레는 중립보도가 39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긍정보도와 부정보도는 각각 2건(4.7%)이었다. KBS는 중립보도가 43건(89.6%)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4건(8.4%), 긍정보도가 1건(2.1%)이었으며 SBS는 중립보도가 48건(96.0%)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2건(4.0%), 긍정보도는 없었다.

2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중립보도가 68건(76.4%), 부정보도 20건(22.5%), 긍정보도는 1건(1.1%)이었다. 한겨레는 중립보도가 77건(83.7%), 부정보도가 14건(15.2%), 긍정보도는 1건(1.1%)이었다. KBS는 중립보도가 58건(85.3%), 부정보도 10건(14.7%), 긍정보도는 없었으며 SBS는 중립보도가 50건(70.4%), 부정보도 19건(26.8%), 긍정보도 2건(2.8%)이었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중립보도가 21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긍정보도가 41건(1.6%), 부정보도가 37건(14.6%)이었으며 한겨레는 중립보도가 154건(84.6%), 부정보도가 28건(15.4%), 긍정보도는 없었다. KBS는 중립보도가 182건(90.5%), 부정보도가 18건(9.0%), 긍정보도가 1건(0.5%)이었으며 SBS는 중립보도가 159건(86.4%), 부정보도가 22건(12.0%), 긍정보도가 3건(1.6%)이었다.

4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중립보도가 255건(89.2%), 부정보도가 24(8.4%), 긍정보도가 7건(2.4%)이었다. 한겨레는 중립보도가 200건(84.7%), 부정보도가 32건(13.6%), 긍정보도가 4건(1.7%)이었으며 KBS는 중립보도가 294건(90.2%), 부정보도 28건(8.6%), 긍정보도가 4건(1.2%)이었으며 SBS는 중립보도가 316건(93.2%), 부정보도가 22건(6.5%), 긍정보도가 1건(0.3%)이었다.

이처럼 1주차에서는 대체적으로 언론사 모두 중립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2주차에서는 1주차에 비해 중립보도의 비율은 다소 낮아졌고, 부정보도의 비율이 높아졌다. 3, 4주차에서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감염병 확산이 점차 심화되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 보도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30> 주차별 언론사의 보도 방향성

보도 방향성	1 주차				2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긍정	1(1.3)	2(4.7)	1(2.1)	0(0.0)	1(1.1)	1(1.1)	0(0.0)	2(2.8)
중립	71(88.8)	39(90.7)	43(89.6)	48(96.0)	68(76.4)	77(83.7)	58(85.3)	50(70.4)
부정	8(10.0)	2(4.7)	4(8.3)	2(4.0)	20(22.5)	14(15.2)	10(14.7)	19(26.8)
합계	80(100)	43(100)	48(100)	50(100)	89(100)	92(100)	68(100)	71(100)

보도 방향성	3 주차				4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긍정	4(1.6)	0(0.0)	1(0.5)	3(1.6)	7(2.4)	4(1.7)	4(1.2)	1(0.3)
중립	213(83.9)	154(84.6)	182(90.5)	159(86.4)	255(89.2)	200(84.7)	294(90.2)	316(93.2)
부정	37(14.6)	28(15.4)	18(9.0)	22(12.0)	24(8.4)	32(13.6)	28(8.6)	22(6.5)
합계	254(100)	182(100)	201(100)	184(100)	286(100)	236(100)	326(100)	339(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첫 보도의 시작인 1주차의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이다. 26개의 정보원 항목 가운데 다음 <표 31>과 같이 상위 순으로 7개의 항목만을 추렸다. 조선일보에서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2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5건(17.1%), 한국 및 해외 언론이 23건(15.8%), 한국 전문가 14건(9.6%), 세계기구와 해외 전문가가 각각 13건(8.9%), 세계시민 11건(7.5%)이었다. 한겨레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4건(34.8%),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2건(17.4%), 한국 및 해외언론이 9건(13.0%), 한국전문가 5건(7.2%), 해외 전문가 4건(5.8%), 세계기구와 세계시민이 각각 3건(4.3%)이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0건(26.3%),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1건(14.5%), 한국 전문가와 세계기구가 각각 9건(11.8%), 한국 및 해외 언론이 5건(6.6%), 해외 전문가 4건(5.3%), 세계시민이 3건(3.9%)이었다. S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4건(35.3%),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1건(16.2%), 세계기구 9건(13.2%), 한국 전문가 8건(11.8%), 해외 전문가 5건(7.4%), 세계시민과 한국 및 해외언론이 2건(2.9%)이었다.

<표 31> 1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1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한국정부 및 지자체	25(17.1)	24(34.8)	20(26.3)	24(35.3)
한국 전문가	14(9.6)	5(7.2)	9(11.8)	8(11.8)
세계기구	13(8.9)	3(4.3)	9(11.8)	9(13.2)
해외정부 및 지자체	27(18.5)	12(17.4)	11(14.5)	11(16.2)
세계시민	11(7.5)	3(4.3)	3(3.9)	2(2.9)
해외 전문가	13(8.9)	4(5.8)	4(5.3)	5(7.4)
한국 및 해외 언론	23(15.8)	9(13.0)	5(6.6)	2(2.9)
multiple coding				

1주차에서는 감염병 첫 발생국가와 관련된 정보원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와 해외 언론의 반응,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 측의 방역 및 대응 등과 같은 정보로 인한 정보원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겨레와 KBS,

SBS와 달리 해외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한 정보원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및 해외언론에 대한 비율도 한겨레와 KBS, SBS에 비해 높았다.

2주차에서의 상위 7개 항목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32>와 같다. 1주차와 달리 세계시민과 해외 전문가 대신 한국 및 해외 기업과 시민 항목이 상위항목에 올랐다. 먼저 조선일보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4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27건(17.4%), 세계기구와 한국 및 해외 언론이 각각 16건(10.3%), 시민 11건(7.1%), 한국 및 해외 기업 8건(5.2%), 해외정부 및 지자체 2건(1.3%)이었다. 한겨레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55건(35.3%), 한국 전문가 23건(14.7%), 세계기구 17건(10.9%), 한국 및 해외 언론 11건(7.1%), 해외정부 및 지자체 9건(5.8%), 시민 8건(5.1%), 한국 및 해외 기업 6건(3.8%)이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2건(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계기구가 16건(15.7%), 한국 전문가 14건(13.7%), 한국 및 해외 언론 6건(5.9%), 시민 5건(4.9%), 해외정부 및 지자체 4건(3.9%), 한국 및 해외 기업 2건(2.0%) 순으로 나타났다. S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 18건(18.0%), 세계기구 13건(13.0%), 시민 5건(5.0%), 해외정부 및 지자체 4건(4.0%), 한국 및 해외 언론 3건(3.0%)이었다.

<표 32> 2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1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한국정부 및 지자체	44(28.4)	55(35.3)	32(31.4)	34(34.0)
한국 전문가	27(17.4)	23(14.7)	14(13.7)	18(18.0)
세계기구	16(10.3)	17(10.9)	16(15.7)	13(13.0)
해외정부 및 지자체	2(1.3)	9(5.8)	4(3.9)	4(4.0)
한국 및 해외 언론	16(10.3)	11(7.1)	6(5.9)	3(3.0)
한국 및 해외 기업	8(5.2)	6(3.8)	2(2.0)	0(0.0)
시민	11(7.1)	8(5.1)	5(4.9)	5(5.0)

multiple coding

이처럼 2주차에서는 언론사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 정보원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전문가에 대한 비율도 높아졌다. 반면에 해외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비율은 약 10%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이후 약 일주일 지난 후부터 언론보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한국 전문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한국과 해외 기업,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영향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3> 3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1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한국정부 및 지자체	100(23.6)	114(35.4)	102(34.1)	96(33.6)
한국 전문가	75(17.7)	47(14.6)	38(12.7)	36(12.6)
해외정부 및 지자체	41(9.7)	22(6.8)	24(8.0)	26(9.1)
해외 전문가	19(4.5)	8(2.5)	10(3.3)	11(3.8)
한국 및 해외 언론	26(6.1)	19(5.9)	4(1.3)	2(0.7)
한국 및 해외 기업	28(6.6)	15(4.7)	3(1.0)	5(1.7)
시민	24(5.7)	15(4.7)	29(9.7)	34(11.9)
multiple coding				

3주차에서의 상위 7개 항목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33>과 같이 2주차에서의 세계기구 항목 대신 해외 전문가가 등장 하면서 한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조선일보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00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75건(17.7%), 해외정부 및 지자체 41건(9.7%), 한국 및 해외기업 28건(6.6%), 한국 및 해외 언론 26건(6.1%), 시민 24건(5.7%), 해외 전문가 19건(4.5%)순이었다. 한겨레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14건(35.4%), 한국 전문가 47건(14.6%), 해외정부 및 지자체 22건(6.8%), 한국 및 해외 언론 19건(5.9%), 한국 및 해외 기업과 시민이 각각 15건(4.7%), 해외 전문가 8건(2.5%)이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02건(34.1%), 한국 전문가가 38건(12.7%), 시민이 29건(9.7%), 해외정부 및 지자체 24건(8.0%), 해외 전문가 10건

(3.3%), 한국 및 해외 언론 4건(1.3%), 한국 및 해외 기업 3건(1.0%)으로 나타났다. S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9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36건(12.6%), 시민이 34건(11.9%), 해외정부 및 지자체 26건(9.1%), 해외 전문가 11건(3.8%), 한국 및 해외 기업 5건(1.7%), 한국 및 해외 언론 2건(0.7%)이었다.

4주차에서의 상위 7개 항목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34>와 같이 3주차에서의 해외 전문가 항목 대신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등장하였다. 먼저 조선일보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 93건(20.0%), 한국 및 해외 기업 35건(7.5%), 해외정부 및 지자체 34건(7.3%), 시민 26건(5.6%),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20건(4.3%), 한국 및 해외 언론 19건(4.1%) 순이었다. 한겨레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5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 69건(17.8%), 해외정부 및 지자체 33건(8.5%), 한국 및 해외 기업 29건(7.5%), 한국 및 해외 언론 21건(5.4%),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20건(5.2%), 시민 14건(3.6%)이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60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68건(14.0%), 시민 46건(9.5%),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4건(7.0%), 해외정부 및 지자체 29건(6.0%), 한국 및 해외 기업 21건(4.3%)이었다. S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74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71건(13.8%), 시민 45건(8.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8건(7.4%), 해외정부 및 지자체 30건(5.8%), 한국 및 해외 기업 20건(3.9%) 순이었다. 이와 같이 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이후 4주가 되는 시기인 만큼, 확산의 정도도 커지면서 계속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대책과 그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감염병 상황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 전문가들로부터 얻고,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의 현재 상황, 미친 영향, 분위기 등을 알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주차별 정보원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1, 2주차에는 감염병 발생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시민, 기업 등을 통해 감염경로 및 확산정도, 각 국가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집중하고 3, 4주차에는 감염병 확산 정도가 커지고, 확진자가 다양한 국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해외 전문가와,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등 각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보원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34> 4주차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1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한국정부 및 지자체	130(28.0)	125(32.3)	160(32.9)	174(33.9)
한국 전문가	93(20.0)	69(17.8)	68(14.0)	71(13.8)
해외정부 및 지자체	34(7.3)	33(8.5)	29(6.0)	30(5.8)
학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20(4.3)	20(5.2)	34(7.0)	38(7.4)
한국 및 해외 언론	19(4.1)	21(5.4)	5(1.0)	8(1.6)
한국 및 해외 기업	35(7.5)	29(7.5)	21(4.3)	20(3.9)
시민	26(5.6)	14(3.6)	46(9.5)	45(8.8)

multiple coding

다음으로 주차별 언론사의 프레임 유형이다. 다음 <표 35>와 같이 11개 항목 가운데 상위 7개만을 추렸다. 먼저 1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43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영향 프레임 23건(17.2%), 정책 프레임 18건(13.4%), 공포 프레임 13건(9.7%), 책임 프레임 8건(6.0%), 갈등 프레임 6건(4.5%), 설득 프레임 4건(3.0%)이었다. 한겨레는 정보 프레임이 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 17건(21.1%), 사회영향 프레임 10건(12.7%), 설득 프레임 4건(5.1%), 공포 프레임 3건(3.8%), 갈등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이 각각 2건(2.5%)으로 나타났다. KBS는 정보 프레임이 31건(39.7%), 사회영향 프레임 12건(15.4%), 정책 프레임 10건(12.8%), 공포 프레임 8건(10.3%), 설득 프레임 4건(5.1%), 책임 프레임 3건(3.8%), 갈등 프레임 1건(1.3%)이었다. SBS는 정보 프레임이 37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 12건(14.1%), 사회영향 프레임 11건(12.9%), 공포 프레임 7건(8.2%), 책임 프레임 4건(4.7%), 갈등 프레임 3건(3.5%), 설득 프레임 1건(1.2%)이었다. 이처럼 언론사 모두 정보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았던 프레임은 유형은 조선일보와 KBS의 경우 사회영향 프레임이, 한겨레와 SBS에서는 정책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공포 프레임은 KBS의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았다.

2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49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 영향 프레임이 31건(18.8%), 정책 프레임이 26건(15.8%), 책임 프레임이 18건(10.9%), 갈등 프레임이 17건(10.3%), 공포 프레임이 8건(4.8%), 설득 프레임이 4건(2.4%)이었다. 한겨레는 정보 프레임이 48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30건(18.2%), 사회영향 프레임이 29건(17.6%), 책임 프레임이 20건(12.1%), 갈등 프레임이 16건(9.7%), 설득 프레임이 5건(3.0%), 공포 프레임이 2건(1.2%)이었다. KBS는 정보 프레임이 48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영향 프레임이 19건(14.5%), 공포 프레임이 18건(13.7%), 책임 프레임이 12건(9.2%), 설득 프레임이 8건(6.1%), 갈등 프레임이 7건(5.3%)으로 나타났다. SBS는 정보 프레임이 58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책임 프레임이 22건(14.9%), 정책 프레임이 20건(13.5%), 사회영향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각각 13건(8.8%), 설득 프레임 9건(6.1%), 갈등 프레임 7건(4.7%)이었다. 이를 통해 2주차에서의 언론사별 언론보도 모두 정보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사회영향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한겨레는 정책 프레임을, KBS는 공포 프레임을, SBS는 정보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주차에서는 신문사에서의 공포 프레임 활용 비율이 낮아 졌지만, 오히려 방송사에서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119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76건(17.6%), 사회영향 프레임이 71건(16.5%), 책임 프레임이 49건(11.4%), 갈등 프레임이 38건(8.8%), 설득 프레임이 19건(4.4%), 공포 프레임이 11건(2.6%)이었다. 한겨레는 정보 프레임이 101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66건(20.0%), 사회영향 프레임이 48건(14.5%), 책임 프레임이 37건(11.2%), 갈등 프레임이 20건(6.1%), 설득 프레임이 15건(4.5%), 공포 프레임이 11건(3.3%)이었다. KBS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11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67건(20.2%), 사회영향 프레임이 48건(14.5%), 설득 프레임이 27건(8.2%), 책임 프레임이 25건(7.6%), 공포 프레임이 2건(6.0%)이었다. SBS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113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58건(18.1%), 사회영향 프레임이 48건(15.0%), 책임 프레임이 28건(8.8%), 공포 프레임이 21건(6.6%), 설득 프레임이 18건(5.6%), 갈등 프레임이 17건(5.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사회영향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이, KBS는 설득 프레임이, SBS는 정보 프레임, 공포 프레임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정책 프레임, 정보 프레임, 설득 프레임, 공포 프레임은 방송사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사회영향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은 신문사가 더 높았다.

4주차에서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157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69건(14.8%), 사회영향 프레임이 65건(13.9%), 책임 프레임이 33건(7.1%), 갈등 프레임이 29건(6.2%), 설득 프레임이 24건(5.1%), 공포 프레임이 10건(2.1%)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정보 프레임이 136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67건(16.5%), 사회영향 프레임 59건(14.5%), 책임 프레임 46건(11.3%), 갈등 프레임이 23건(5.7%), 공포 프레임이 16건(3.9%), 설득 프레임이 12건(3.0%)이었다. KBS는 정보 프레임이 188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112건(21.1%), 사회영향 프레임이 82건(15.5%), 책임 프레임이 38건(7.2%), 갈등 프레임이 34건(6.4%), 설득 프레임이 21건(4.0%), 공포 프레임이 14건(2.6%)이었다. SBS는 정보 프레임이 22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80건(14.5%), 사회영향 프레임이 75건(13.6%), 책임 프레임이 40건(7.3%), 갈등 프레임이 37건(6.7%), 설득 프레임이 30건(5.5%), 공포 프레임이 29건(5.3%)이었다. 이처럼 3주차와는 달리 4주차에서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이, KBS는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이, SBS는 정보 프레임, 갈등 프레임, 설득 프레임, 공포 프레임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문사는 방송사에 비해 책임 프레임이 많았고, 방송사는 그 외 정책 프레임, 정보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갈등 프레임, 설득 프레임, 공포 프레임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위의 결과처럼 주차별로 프레임 유형은 큰 차이 없이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 언론의 감염병 발생 초기 한 달 동안 주로 감염병 발생동향, 정부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의 방역대응책 등에 주목한 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 등과 같이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사는 다소 결여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주차별 언론사의 프레임 유형

프레임	1 주차				2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정책 프레임	18(13.4)	17(21.1)	10(12.8)	12(14.1)	26(15.8)	30(18.2)	15(11.5)	20(13.5)
정보 프레임	43(32.1)	29(36.7)	31(39.7)	37(43.5)	49(29.7)	48(29.1)	48(36.6)	58(39.2)
사회영향 프레임	23(17.2)	10(12.7)	12(15.4)	11(12.9)	31(18.8)	29(17.6)	19(14.5)	13(8.8)
갈등 프레임	6(4.5)	2(2.5)	1(1.3)	3(3.5)	17(10.3)	16(9.7)	7(5.3)	7(4.7)
책임 프레임	8(6.0)	2(2.5)	3(3.8)	4(4.7)	18(10.9)	20(12.1)	12(9.2)	22(14.9)
설득 프레임	4(3.0)	4(5.1)	4(5.1)	1(1.2)	4(2.4)	5(3.0)	8(6.1)	9(6.1)
공포 프레임	13(9.7)	3(3.8)	8(10.3)	7(8.2)	8(4.8)	2(1.2)	18(13.7)	13(8.8)

프레임	3 주차				4 주차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정책 프레임	76(17.6)	66(20.0)	67(20.2)	58(18.1)	69(14.8)	67(16.5)	112(21.1)	80(14.5)
정보 프레임	119(27.6)	101(30.6)	112(33.8)	113(35.3)	157(33.6)	136(33.5)	188(35.5)	220(40.0)
사회영향 프레임	71(16.5)	48(14.5)	48(14.5)	48(15.0)	65(13.9)	59(14.5)	82(15.5)	75(13.6)
갈등 프레임	38(8.8)	20(6.1)	14(4.2)	17(5.3)	29(6.2)	23(5.7)	34(6.4)	37(6.7)
책임 프레임	49(11.4)	37(11.2)	25(7.6)	28(8.8)	33(7.1)	46(11.3)	38(7.2)	40(7.3)
설득 프레임	19(4.4)	15(4.5)	27(8.2)	18(5.6)	24(5.1)	12(3.0)	21(4.0)	30(5.5)
공포 프레임	11(2.6)	11(3.3)	20(6.0)	21(6.6)	10(2.1)	16(3.9)	14(2.6)	29(5.3)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3-1. 감염병별로 주차별을 살펴보았을 때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다음은 감염병별로 주차별 언론보도 특성 가운데 기사 심층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36>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주차에서 사스 당시는 대응분석이 24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14건(27.1%), 사건발생이 7건(14.6%), 원인분석이 4건(8.3%)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 때는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이 각각 41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건발생이 34건(28.6%), 원인분석이 3건(2.5%)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영향분석이 17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대응분석이 14건(31.8%), 원인분석이 7건(15.9%), 사건발생 6건(13.6%)이었다. 메르스 때는 사건발생이 10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분석이 5건(25.5%), 대응분석이 4건(20.0%), 영향분석이 1건(5.0%)이었다. 코로나19는 대응분석이 13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12건(27.3%), 원인분석이 11건(25.0%), 사건발생이 8건(18.2%)이었다. 이처럼 1주차에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분석과 영향분석에, 메르스 때는 사건발생과 원인분석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14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발생이 12건(29.3%), 영향분석이 8건(19.5%), 원인분석이 7건(17.1%)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사건발생이 12건(38.7%), 대응분석이 10건(32.3%), 영향분석이 8건(25.8%), 원인분석이 1건(3.2%)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10건(52.6%), 영향분석이 5건(26.3%), 사건발생이 3건(15.8%), 원인분석이 1건(5.3%)이었다. 메르스 때는 대응분석이 50건(36.5%), 영향분석이 31건(22.6%), 사건발생 29건(21.2%), 원인분석 27건(19.7%)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76건(42.0%), 영향분석이 61건(33.7%), 사건발생이 30건(16.6%), 원인분석이 14건(7.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주차에서 사스와 신종플루는 사건발생과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메르스, 코로나19는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에 대한 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 사스 당시 대응분석이 35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22건(25.6%), 사건발생 21건(24.4%), 원인분석 8건(9.3%)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대응분석이 19건(40.4%), 영향분석 14건(29.8%), 사건발생 11건(23.4%), 원인분석 3건(6.4%)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사건발생과 영향분석이 각각 3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대응분석이 1건(14.3%), 원인분석은 없었다. 메르스 때는 대응분석이 25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향분석이 87건(17.5%), 사건발생이 80건(16.1%), 원인분석이 73건(14.7%)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164건(46.6%), 영향분석이 112건(31.8%), 사건발생이 45건(12.8%), 원인분석이 31건(8.8%)이었다. 이와 같이 2주차와 달리 3주차에서는 사스와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도가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사건발생과 영향분석이, 메르스와 코로나19는 2주차와 동일하게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의 비율이 높았다.

4주차에서 사스 당시, 대응분석이 92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영향분석이 65건(32.0%), 사건발생이 34건(16.7%), 원인분석이 12건(5.9%)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사건발생이 32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인분석이 10건(16.9%), 대응분석이 9건(15.3%), 영향분석이 8건(13.6%)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사건발생이 3건(37.5%), 원인분석과 영향분석이 각각 2건(25.0%), 대응분석이 1건(12.5%)이었다. 메르스 때는 대응분석이 243건(41.5%), 사건발생이 120건(20.5%), 원인분석이 115건(19.7%), 영향분석 107건(18.3%)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233건(41.9%), 영향분석이 156건(28.1%), 사건발생이 122건(21.9%), 원인분석이 45건(8.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주차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도는 3주차와 달리 사건발생과 원인분석이 가장 많았으며, 메르스도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차별로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 가운데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제로 감염병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스는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만 발생하였고, 에볼라바이러스병도 사실상 국내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발생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도 분석기간이 감염병 발생 초기로 1차 확산기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첫 확진자(31번 환자) 발생이 있었던 시기가 해당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보도 건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첫 환자 발생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건발생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36>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기사 심층성

기사 심층성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건발생	7(14.6)	34(28.6)	6(13.6)	10(50.0)	8(18.2)
원인분석	4(8.3)	3(2.5)	7(15.9)	5(25.0)	11(25.0)
영향분석	13(27.1)	41(34.5)	17(38.6)	1(5.0)	12(27.3)
대응분석	24(50.0)	41(34.5)	14(31.8)	4(20.0)	13(29.5)
합계	48(100)	119(100)	44(100)	20(100)	44(100)
기사 심층성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건발생	12(29.3)	12(38.7)	3(15.8)	29(21.2)	30(16.6)
원인분석	7(17.1)	1(3.2)	1(5.3)	27(19.7)	14(7.7)
영향분석	8(19.5)	8(25.8)	5(26.3)	31(22.6)	61(33.7)
대응분석	14(34.1)	10(32.3)	10(52.6)	50(36.5)	76(42.0)
합계	41(100)	31(100)	19(100)	137(100)	181(100)
기사 심층성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건발생	21(24.4)	11(23.4)	3(42.9)	80(16.1)	45(12.8)
원인분석	8(9.3)	3(6.4)	0(0.0)	73(14.7)	31(8.8)
영향분석	22(25.6)	14(29.8)	3(42.9)	87(17.5)	112(31.8)
대응분석	35(40.7)	19(40.4)	1(14.3)	256(51.6)	164(46.6)
합계	86(100)	47(100)	7(100)	496(100)	352(100)
기사 심층성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건발생	34(16.7)	32(54.2)	3(37.5)	120(20.5)	122(21.9)
원인분석	12(5.9)	10(16.9)	2(25.0)	115(19.7)	45(8.1)
영향분석	65(32.0)	8(13.6)	2(25.0)	107(18.3)	156(28.1)
대응분석	92(45.3)	9(15.3)	1(12.5)	243(41.5)	233(41.9)
합계	203(100)	59(100)	8(100)	585(100)	556(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로 주차별 언론보도 특성 가운데 취재 심층성을 알아보았다. 다음 <표 37>과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1주차 사스 당시의 보도에서는 일반기자가 28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파원 8건(20.0%), 전문기자 4건(10.0%)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일반기자가 72건(77.4%)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13건(14.0%), 전문기자 8건(8.6%)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일반기자 27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9건(20.9%), 전문기자 7건(16.3%)이었다. 메르스 때는 전문기자 1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자 9건(47.4%), 특파원은 없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특파원이 1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자 13건(37.1%), 전문기자 8건(22.9%)이었다. 1주차에서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지만 메르스는 전문기자가, 코로나19는 특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2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기자 8건(25.0%), 특파원 4건(12.5%)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일반기자 16건(76.2%)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4건(19.0%), 전문기자 1건(4.8%)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일반기자 12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 4건(22.2%), 특파원 2건(11.1%)이었으며 메르스 때는 일반기자가 70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 30건(27.5%), 특파원 9건(8.3%)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일반기자 105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파원 30건(20.1%), 전문기자 12건(8.1%), 스튜디오 인터뷰 2건(1.3%)이었다. 2주차에서는 감염병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기자가 취재한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사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는 두 번째로 전문기자가, 신종플루와 코로나19는 특파원이 많았다.

3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42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19건(27.9%), 전문기자 7건(10.3%)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일반기자가 2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11건(31.4%), 전문기자 3건(8.6%)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일반기자 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파원 1건(16.7%)이었으며, 메르스는 일반기자가 373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 55건(12.3%), 특파원 19건(4.3%)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220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50건(17.3%), 전문기자 13건(4.5%), 스튜디오 인터뷰 6건(2.1%)이었다. 이처럼 모든 감염병에서 일반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메르스를 제외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에서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이 취재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메르스는 전문기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일반기자 110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47건(28.3%), 전문기자 9건(5.4%)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일반기자가 34건(8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기자 5건(12.2%), 특파원 2건(4.9%)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일반기자가 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 1건(16.7%)이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453건(86.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 56건(10.7%), 특파원 14건(2.7%)이었으며 코로나19 때는 일반기자 370건(7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파원 67건(14.2%), 전문기자 22건(4.7%), 스튜디오 인터뷰 13건(2.8%)이었다. 이와 같이 사스와 에볼라, 코로나19는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일반기자 다음으로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염병별 주차별로 취재 심층성이 다소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분석기간 동안 해당 감염병으로 인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많아졌고, 메르스는 중동국가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였음에도 국내유입이 됐으며 치사율도 높았기 때문에 의학관련 전문기자의 보도로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표 37>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취재 심층성

취재 심층성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문기자	4(10.0)	8(8.6)	7(16.3)	10(52.6)	8(22.9)
일반기자	28(70.0)	72(77.4)	27(62.8)	9(47.4)	13(37.1)
특파원	8(20.0)	13(14.0)	9(20.9)	0(0.0)	14(40.0)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0(0.0)
합계	40(100)	93(100)	43(100)	19(100)	35(100)
취재 심층성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문기자	8(25.0)	1(4.8)	4(22.2)	30(27.5)	12(8.1)
일반기자	20(62.5)	16(76.2)	12(66.7)	70(64.2)	105(70.5)
특파원	4(12.5)	4(19.0)	2(11.1)	9(8.3)	30(20.1)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2(1.3)
합계	32(100)	21(100)	18(100)	109(100)	149(100)
취재 심층성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문기자	7(10.)	3(8.6)	0(0.0)	55(12.3)	13(4.5)
일반기자	42(61.8)	21(60.0)	5(83.3)	373(83.4)	220(76.1)
특파원	19(27.9)	11(31.4)	1(16.7)	19(4.3)	50(17.3)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6(2.1)
합계	68(100)	35(100)	6(100)	447(100)	289(100)
취재 심층성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문기자	9(5.4)	5(12.2)	0(0.0)	56(10.7)	22(4.7)
일반기자	110(66.3)	34(82.9)	5(83.3)	453(86.6)	370(78.4)
특파원	47(28.3)	2(4.9)	1(16.7)	14(2.7)	67(14.2)
스튜디오 인터뷰	0(0.0)	0(0.0)	0(0.0)	0(0.0)	13(2.8)
합계	166(100)	41(100)	6(100)	523(100)	472(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보도 사실성이다. <표 38>과 같이 1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12건(96.6%),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4건(3.4%)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42건(97.7%),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건(2.3%), 에볼라바이러스병은 27건(93.1%),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2건(6.9%)이었다. 메르스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300건(98.7%),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4건(1.3%), 코로나19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15건(99.1%),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2건(0.9%)이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기인 1주차에서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감염병 발생 시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61건(98.4%)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건(1.6%)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33건(100.0%)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7건(100.0%)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메르스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2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3건(1.3%)이었으며 코로나19 당시에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10건(98.6%)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3건(1.4%)이었다.

3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58건(92.1%)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5건(7.9%)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55건(98.2%),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1건(1.8%)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2건(100.0%)이었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메르스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83건(98.3%)이었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5건(1.7%)이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20건(98.2%)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4건(1.8%)이었다.

4주차에서 사스 때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57건(96.6%)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2건(3.4%)이었으며, 신종플루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54건(98.2%)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1건(1.8%)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10건(100.0%)이었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없었다. 메르스 때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51건(99.2%)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2건(0.8%)이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255건(95.5%)으로 가장 많았고,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는 12건(4.5%)이었다. 이처럼 감염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신종플루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제외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는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8>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보도 사실성

보도 사실성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실 중심적	112(96.6)	42(97.7)	27(93.1)	300(98.7)	215(99.1)
추측·예측 중심적	4(3.4)	1(2.3)	2(6.9)	4(1.3)	2(0.9)
합계	116(100)	43(100)	29(100)	304(100)	217(100)
보도 사실성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실 중심적	61(98.4)	33(100.0)	17(100.0)	225(98.7)	210(98.6)
추측·예측 중심적	1(1.6)	0(0.0)	0(0.0)	3(1.3)	3(1.4)
합계	62(100)	33(100)	17(100)	228(100)	213(100)
보도 사실성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실 중심적	58(92.1)	55(98.2)	12(100.0)	283(98.3)	220(98.2)
추측·예측 중심적	5(7.9)	1(1.8)	0(0.0)	5(1.7)	4(1.8)
합계	63(100)	56(100)	12(100)	288(100)	224(100)
보도 사실성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사실 중심적	57(96.6)	54(98.2)	10(100.0)	251(99.2)	255(95.5)
추측·예측 중심적	2(3.4)	1(1.8)	0(0.0)	2(0.8)	12(4.5)
합계	59(100)	55(100)	10(100)	253(100)	267(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주차별 보도 방향성으로 다음 <표 39>와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차에서 사스 당시의 보도 방향성을 살펴보면, 중립보도가 36건(90.0%)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3건(7.5%), 긍정보도가 1건(2.5%)이었다. 신종플루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85건(92.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6건(6.5%), 긍정보도가 1건(1.1%)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중립보도가 35건(92.1%)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2건(5.3%), 긍정보도가 1건(2.6%)이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15(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보도가 3건(16.7%), 긍정보도는 없었다. 코로나19 때에는 중립보도가 30건(90.9%)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2건(6.1%), 긍정보도가 1건(3.0%)이었다. 이처럼 감염병 종류와 상관없이 1주차에서는 중립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메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감염병 발생시에는 긍정보도와, 중립보도, 부정보도가 있었다.

2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30건(93.8%), 긍정보도와 부정보도가 각각 1건(3.1%)이었으며 신종플루는 중립보도가 20건(95.2%), 부정보도가 1건(4.8%), 긍정보도가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중립보도가 15건(83.3%), 부정보도가 2건(11.1%), 긍정보도가 1건(5.6%)이었으며, 메르스 때는 중립보도가 68건(63.6%), 부정보도가 37건(34.6%), 긍정보도가 2건(1.9%)이었다. 코로나19는 중립보도가 120건(84.5%), 부정보도가 22건(15.5%), 긍정보도는 없었다. 이와 같이 2주차에서는 메르스 당시 때가 부정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긍정보도가 50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 16건(24.2%), 긍정보도는 없었다. 신종플루 때는 32건(94.1%)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 2건(5.9%), 긍정보도는 없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중립보도 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 2건(33.3%), 긍정보도는 없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357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보도가 69건(6.0%), 긍정보도가 6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주차에서는 감염병별 전체적으로 부정보도에 대한 비율이 2주차에 비해 높아졌으며,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제외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는 긍정보도가 없었다.

4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148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11건(6.8%), 긍정보도가 3건(1.9%)이었으며, 신종플루 때는 중립보도가 39건(97.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1건(2.5%), 긍정보도는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부정보도가 3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중립보도가 2건(33.3%), 긍정보도 1건(16.7%)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때는 중립보도가 449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58건(11.2%), 긍정보도가 9건(1.7%)이었다. 코로나19는 중립보도가 427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보도가 33건(7.1%), 긍정보도가 3건(0.6%)이었다. 이와 같이 4주차에서는 중립보도에 대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반면, 부정보도는 낮아졌고, 신종플루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 모두에서 긍정보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감염병별 주차별 보도 방향성에서 특히 부정 보도에 2주차에 메르스 당시 다소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보건당국이 접촉자 판단 기준으로 세웠던 곳 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39>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보도 방향성

보도 방향성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긍정	1(2.5)	1(1.1)	1(2.6)	0(0.0)	1(3.0)
중립	36(90.0)	85(92.4)	35(92.1)	15(83.3)	30(90.9)
부정	3(7.5)	6(6.5)	2(5.3)	3(16.7)	2(6.1)
합계	40(100)	92(100)	38(100)	18(100)	33(100)

보도 방향성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긍정	1(3.1)	0(0.0)	1(5.6)	2(1.9)	0(0.0)
중립	30(93.8)	20(95.2)	15(83.3)	68(63.6)	120(84.5)
부정	1(3.1)	1(4.8)	2(11.1)	37(34.6)	22(15.5)
합계	32(100)	21(100)	18(100)	107(100)	142(100)

보도 방향성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긍정	0(0.0)	0(0.0)	0(0.0)	6(1.4)	2(0.7)
중립	50(75.8)	32(94.1)	4(66.7)	357(82.6)	265(93.6)
부정	16(24.2)	2(5.9)	2(33.3)	69(16.0)	16(5.7)
합계	66(100)	34(100)	6(100)	432(100)	283(100)

보도 방향성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긍정	3(1.9)	0(0.0)	1(16.7)	9(1.7)	3(0.6)
중립	148(91.4)	39(97.5)	2(33.3)	449(87.0)	427(92.2)
부정	11(6.8)	1(2.5)	3(50.0)	58(11.2)	33(7.1)
합계	162(100)	40(100)	6(100)	516(100)	463(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첫 보도의 시작인 1주차의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았다. 26개의 정보원 항목 가운데 다음 <표 40>과 같이 상위 순으로 7개의 항목만을 추렸다. 사스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8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0건(16.7%), 한국 및 해외 언론 7건(11.7%), 해외 전문가 5건(8.3%), 세계기구와 세계시민이 각각 2건(3.3%), 한국 전문가 1건(1.7%)이었다. 신종플루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6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 23건(17.2%), 세계기구 19건(14.2%), 한국 전문가와 한국 및 해외 언론이 각각 14건(10.4%)이었으며, 세계시민 7건(5.2%), 해외 전문가 6건(4.5%)으로 나타났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3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부 및 지자체와 세계기구, 한국 및 해외언론이 각각 10건(12.8%)이었으며, 해외 전문가 9건(11.5%), 한국 전문가와 세계시민은 각각 7건(9.0%),이었다. 메르스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15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 6건(21.4%), 해외 전문가는 1건(3.6%)이었으며 그 외 세계기구, 해외 정부 및 지자체, 세계시민, 한국 및 해외 언론의 정보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당시에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5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4건(23.7%), 한국 전문가와 한국 및 해외 언론이 각각 8건(13.6%), 해외 전문가 5건(8.5%), 세계기구와 세계시민은 각각 3건(5.1%)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염병별로 주요 정보원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해외정부 및 지자체였는데 이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첫 보도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방역 대책을 하나갈지, 또한 감염병 발생국가인 해당 해외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0> 1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한국정부 및 지자체	18(30.2)	36(26.9)	10(12.8)	15(53.6)	14(23.7)
한국 전문가	1(1.7)	14(10.4)	7(9.0)	6(21.4)	8(13.6)
세계기구	2(3.3)	19(14.2)	10(12.8)	0(0.0)	3(5.1)
해외정부 및 지자체	10(16.7)	23(17.2)	13(16.7)	0(0.0)	15(25.4)
세계시민	2(3.3)	7(5.2)	7(9.0)	0(0.0)	3(5.1)
해외 전문가	5(8.3)	6(4.5)	9(11.5)	1(3.6)	5(8.5)
한국 및 해외 언론	7(11.7)	14(10.4)	10(12.8)	0(0.0)	8(13.6)

multiple coding

2주차의 감염병별 상위 7개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41>과 같이 1주차와 달리 시민 정보원이 등장하였다. 사스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3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10건(24.4%), 한국 및 해외 언론 4건(9.8%), 해외 정부 및 지자체가 3건(7.3%), 세계기구와 세계시민, 시민이 각각 1건(2.4%)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 때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3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부 및 지자체, 세계기구, 세계시민, 시민, 한국 및 해외 언론이 각각 3건(9.7%)이었으며, 시민은 1건(3.2%), 한국 전문가는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가 9건(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7건(22.6%), 한국전문가와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3건(9.7%), 한국 및 해외 언론 1건(3.2%), 세계시민과 시민은 없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72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 36건(21.3%), 시민 11건(6.5%), 한국 및 해외 언론 9건(5.3%), 해외정부 및 지자체 7건(4.1%), 세계시민 5건(3.0%), 세계기구 1건(0.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70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36건(14.9%), 한국 전문가가 33건(13.7%), 시민 11건(6.5%), 한국 및 해외 언론이 19건(7.9%), 세계시민이 16건(6.6%), 세계기구가 10건(4.1%)이었다. 이처럼 2주차에서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당시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되었고, 신종플루는 해외

정부 및 지자체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스와 메르스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 한국 전문가가, 코로나19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정보원 활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1> 2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한국정부 및 지자체	13(31.7)	3(9.7)	7(22.6)	72(42.6)	70(29.0)
한국 전문가	10(24.4)	0(0.0)	3(9.7)	36(21.3)	33(13.7)
세계기구	1(2.4)	3(9.7)	9(29.0)	1(0.6)	10(4.1)
해외정부 및 지자체	3(7.3)	13(41.9)	3(9.7)	7(4.1)	36(14.9)
세계시민	1(2.4)	3(9.7)	0(0.0)	5(3.0)	16(6.6)
시민	1(2.4)	1(3.2)	0(0.0)	11(6.5)	16(6.6)
한국 및 해외 언론	4(9.8)	3(9.7)	1(3.2)	9(5.3)	19(7.9)
multiple coding					

3주차의 감염병별 상위 7개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42>와 같이 2주차와 달리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한국 및 해외 기업이 등장하였다. 먼저 사스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24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 13건(14.0%), 한국 전문가 10건(10.8%), 한국 및 해외 언론 6건(6.5%), 한국 및 해외 기업 4건(4.3%), 시민 3건(3.2%),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는 없었다. 신종플루 때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건(24.0%), 한국 및 해외 언론 5건(10.0%), 한국 전문가와 시민은 각각 2건(4.0%),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한국 및 해외 기업은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4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부 및 지자체 2건(14.3%), 해외정부 및 지자체와 시민은 각각 1건(7.1%),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와 한국 및 해외 기업은 없었다. 메르스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38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는 124건(18.0%), 시민은 61건(8.9%),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는 51건(7.4%), 해외정부 및 지자체는 21건(3.1%), 한국 및 해외 기업은 13건(1.9%), 한국

및 해외 언론은 6건(0.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36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63건(13.0%), 한국 전문가가 60건(12.3%), 시민 35건(7.2%), 한국 및 해외 기업 34건(7.0%), 한국 및 해외 언론 30건(6.2%),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는 5건(1.0%)이었다. 이처럼 3주차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해외정부 및 지자체 정보원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메르스와 코로나19에서만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 3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한국정부 및 지자체	24(25.8)	12(24.0)	2(14.3)	238(34.6)	136(28.0)
한국 전문가	10(10.8)	2(4.0)	0(0.0)	124(18.0)	60(12.3)
해외정부 및 지자체	13(14.0)	15(30.0)	1(7.1)	21(3.1)	63(13.0)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0(0.0)	0(0.0)	0(0.0)	51(7.4)	5(1.0)
한국 및 해외 언론	6(6.5)	5(10.0)	4(28.6)	6(0.9)	30(6.2)
한국 및 해외 기업	4(4.3)	0(0.0)	0(0.0)	13(1.9)	34(7.0)
시민	3(3.2)	2(4.0)	1(7.1)	61(8.9)	35(7.2)

multiple coding

4주차의 감염병별 상위 7개의 정보원 유형은 다음 <표 43>과 같이 3주차와 달리 세계기구와, 자영업자가 등장하였다. 사스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50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36건(15.4%), 한국 전문가 22건(9.4%), 시민 15건(6.4%), 세계기구 11건(4.7%), 자영업자 4건(1.7%),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1건(0.4%)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1건(59.6%), 한국 전문가 6건(11.5%),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5건(9.6%), 해외정부 및 지자체 4건(7.7%), 시민 2건(3.8%), 세계기구와 자영업자는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세계기구 4건(44.4%), 해외정부 및 지자체 2건(22.2%)이었으며,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시민, 자영업자는

없었다. 메르스 때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전문가가 169건(20.9%),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76건(9.4%), 시민 58건(7.2%), 자영업자 26건(3.2%), 해외정부 및 지자체 12건(1.5%)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39건(32.0%), 한국 전문가는 104건(13.9%), 해외정부 및 지자체 72건(9.7%), 시민 56건(7.5%),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0건(4.0%), 자영업자 27건(3.6%), 세계기구 19건(2.5%)으로 나타났다. 4주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와 해외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정보원만이 등장했으며, 그 외 나머지 감염병 발생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해외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주차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3주차에 비해 다소 해외정부 및 지자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처럼 주차별로 정보원 유형의 다소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1주차에서는 감염병 첫 발생국가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 2, 3주차부터는 유행기가 시작되는 각 감염병에 형태에 따라 시민,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적, 경제적에 보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영업자가 등장했는데 특히나 그 정도가 강했던 메르스와 코로나19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4주차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정보원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한국정부 및 지자체	50(21.4)	31(59.6)	0(0.0)	269(33.2)	239(32.0)
한국 전문가	22(9.4)	6(11.5)	0(0.0)	169(20.9)	104(13.9)
세계기구	11(4.7)	0(0.0)	4(44.4)	24(3.0)	19(2.5)
해외정부 및 지자체	36(15.4)	4(7.7)	2(22.2)	12(1.5)	72(9.7)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1(0.4)	5(9.6)	0(0.0)	76(9.4)	30(4.0)
시민	15(6.4)	2(3.8)	0(0.0)	58(7.2)	56(7.5)
자영업자	4(1.7)	0(0.0)	0(0.0)	26(3.2)	27(3.6)

multiple coding

다음으로 주차별 감염병별로 나타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44>와 같이 11개 항목 가운데 상위 7개만을 추렸다. 먼저 사스 당시 보도 프레임은 정보 프레임이 19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영향 프레임이 12건(19.0%), 정책 프레임이 9건(14.3%), 공포 프레임이 6건(9.5%), 책임 프레임이 4건(6.3%), 설득 프레임이 3건(4.8%), 갈등 프레임이 2건(3.2%)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정보 프레임이 53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23건(14.2%), 공포 프레임이 20건(12.3%), 사회영향 프레임이 19건(11.7%), 갈등 프레임이 7건(4.3%), 책임 프레임이 4건(2.5%), 설득 프레임이 3건(1.9%)으로 나타났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23건(35.4%), 정책 프레임이 18건(27.7%), 사회영향 프레임이 12건(18.5%), 책임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각각 3건(4.6%), 갈등 프레임이 1건(1.5%), 설득 프레임은 없었다. 메르스 때는 정보 프레임이 17건(77.3%), 책임 프레임이 3건(13.6%), 설득 프레임이 2건(9.1%),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갈등 프레임, 공포 프레임은 없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28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영향 프레임이 13건(20.3%), 정책 프레임이 7건(10.9%), 설득 프레임이 5건(7.8%), 책임 프레임이 3건(4.7%), 갈등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각각 2건(3.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주차에서 사스와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을, 신종플루와 에볼라는 정책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을, 메르스는 정보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17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이 각각 7건(14.0%), 공포 프레임이 5건(10.0%), 설득 프레임이 2건(4.0%), 갈등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은 없었다. 신종플루 때는 공포 프레임이 11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보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이 각각 10건(22.7%), 정책 프레임이 4건(9.1%), 갈등 프레임이 3건(6.8%), 설득 프레임이 2건(4.5%), 책임 프레임이 1건(2.3%)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정책 프레임이 9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프레임이 8건(27.6%), 사회영향 프레임이 5건(17.2%), 공포 프레임이 4건(13.8%) 책임 프레임이 2건(6.9%), 갈등 프레임과

설득 프레임은 없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9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책임 프레임이 37건(18.6%), 정책 프레임이 21건(10.6%), 갈등 프레임이 15건(7.5%), 사회영향 프레임 14건(7.0%), 공포 프레임이 8건(4.0%), 설득 프레임이 7건(3.5%)이었다. 코로나19 때는 정보 프레임이 77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영향 프레임이 56건(19.5%), 정책 프레임이 50건(17.4%), 책임 프레임이 32건(11.1%), 갈등 프레임이 29건(10.1%), 설득 프레임 15건(5.2%), 공포 프레임은 13건(4.5%)이었다. 이처럼 신종플루는 1주차와 달리 사회영향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의 비율이, 코로나19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주차에서 사스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34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이 각각 18건(17.0%), 책임 프레임이 11건(10.4%), 공포 프레임이 9건(8.5%), 갈등 프레임이 6건(5.7%), 설득 프레임은 없었다. 신종플루 때는 정보 프레임이 20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공포 프레임은 17건(26.2%),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은 각각 10건(15.4%), 책임 프레임은 2건(3.1%), 갈등 프레임과 설득 프레임은 0건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공포 프레임이 4건(40.0%), 정보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은 각각 2건(20.0%),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은 각각 1건(10.0%), 갈등 프레임과 설득 프레임은 없었다. 메르스 때는 정보 프레임이 255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125건(17.7%), 책임 프레임이 89건(12.9%), 사회영향 프레임이 76건(10.7%), 갈등 프레임이 53건(7.5%), 설득 프레임이 43건(6.1%), 공포 프레임이 16건(2.3%)이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134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113건(21.6%), 사회영향 프레임이 110건(21.0%), 설득 프레임이 36건(6.9%), 책임 프레임이 35건(6.7%), 갈등 프레임이 30건(5.7%), 공포 프레임이 17건(3.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주차에서는 대체적으로 2주차와 비슷한 비율의 프레임 유형을 보였다. 다소 차이점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 공포 프레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4주차에서 사스 당시는 정보 프레임이 65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53건(20.4%), 사회영향 프레임이 46건(17.7%), 갈등 프레임이 22건(8.5%), 공포 프레임이 12건(4.6%), 책임 프레임이 8건(3.1%), 설득 프레임이 6건(2.3%)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 때는 정보 프레임이 36건(59.0%), 정책 프레임이 9건(14.8%), 공포 프레임이 8건(13.1%), 사회영향 프레임과 설득 프레임이 각각 2건(3.3%), 책임 프레임이 1건(1.6%), 갈등 프레임은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때는 정보 프레임이 3건(30.0%), 책임 프레임이 2건(20.0%), 정책 프레임과 사회영향 프레임, 갈등 프레임, 공포 프레임이 각각 1건(10.1%), 설득 프레임은 없었다. 메르스 당시에는 정보 프레임이 341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110건(13.3%), 책임 프레임이 87건(10.5%), 사회영향 프레임이 75건(9.1%), 갈등 프레임이 55건(6.7%), 설득 프레임이 42건(5.1%), 공포 프레임이 26건(3.2%)이었다. 이처럼 4주차에서는 3주차와 비슷한 비율의 프레임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처럼 대체적으로 주차별 주요 프레임은 정책 프레임, 정보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이었다. 그러다 2주차 메르스 당시 책임 프레임이, 코로나19 때는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메르스는 보건당국의 계획과 정보와는 달리 병실 밖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졌고, 코로나19는 우한 교민의 국내 이송과 관련하여 예정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주차별 감염병에 따른 프레임 유형

프레임	1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정책 프레임	9(14.3)	23(14.2)	18(27.7)	0(0.0)	7(10.9)
정보 프레임	19(30.2)	53(32.7)	23(35.4)	17(77.3)	28(43.8)
사회영향 프레임	12(19.0)	19(11.7)	12(18.5)	0(0.0)	13(20.3)
갈등 프레임	2(3.2)	7(4.3)	1(1.5)	0(0.0)	2(3.1)
책임 프레임	4(6.3)	4(2.5)	3(4.6)	3(13.6)	3(4.7)
설득 프레임	3(4.8)	3(1.9)	0(0.0)	2(9.1)	5(7.8)
공포 프레임	6(9.5)	20(12.3)	3(4.6)	0(0.0)	2(3.1)
프레임	2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정책 프레임	7(14.0)	4(9.1)	9(31.0)	21(10.6)	50(17.4)
정보 프레임	17(34.0)	10(22.7)	8(27.6)	91(45.7)	77(26.8)
사회영향 프레임	7(14.0)	10(22.7)	5(17.2)	14(7.0)	56(19.5)
갈등 프레임	0(0.0)	3(6.8)	0(0.0)	15(7.5)	29(10.1)
책임 프레임	0(0.0)	1(2.3)	2(6.9)	37(18.6)	32(11.1)
설득 프레임	2(4.0)	2(4.5)	0(0.0)	7(3.5)	15(5.2)
공포 프레임	5(10.0)	11(25.0)	4(13.8)	8(4.0)	13(4.5)
프레임	3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정책 프레임	18(17.0)	10(15.4)	1(10.0)	125(17.7)	113(21.6)
정보 프레임	34(32.1)	20(30.8)	2(20.0)	255(36.0)	134(25.6)
사회영향 프레임	18(17.0)	10(15.4)	1(10.0)	76(10.7)	110(21.0)
갈등 프레임	6(5.7)	0(0.0)	0(0.0)	53(7.5)	30(5.7)
책임 프레임	11(10.4)	2(3.1)	2(20.0)	89(12.6)	35(6.7)
설득 프레임	0(0.0)	0(0.0)	0(0.0)	43(6.1)	36(6.9)
공포 프레임	9(8.5)	17(26.2)	4(40.0)	16(2.3)	17(3.3)
프레임	4 주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정책 프레임	53(20.4)	9(14.8)	1(10.0)	110(13.3)	155(19.4)
정보 프레임	65(25.0)	36(59.0)	3(30.0)	341(41.3)	256(32.1)
사회영향 프레임	46(17.7)	2(3.3)	1(10.0)	75(9.1)	157(19.7)
갈등 프레임	22(8.5)	0(0.0)	1(10.0)	55(6.7)	45(5.6)
책임 프레임	8(3.1)	1(1.6)	2(20.0)	87(10.5)	59(7.4)
설득 프레임	6(2.3)	2(3.3)	0(0.0)	42(5.1)	37(4.6)
공포 프레임	12(4.6)	8(13.1)	1(10.1)	26(3.2)	22(2.8)

multiple coding

제2절 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적 특성 및 언론보도와 비교 분석

연구문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언론보도의 정보원 및 프레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에 따른 감염병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5종 감염병과 관련한 초기 보도자료의 양은 다음 <표 45>와 같이 총 182건이었다. 사스 발생 시점의 보도자료 건수는 11건(6.0%)이었으며 신종플루는 22건(12.1%), 에볼라바이러스병은 11건(6.0%), 메르스는 83건(45.6%), 코로나19는 55건(30.2%)이었다. 이와 같이 메르스 발생 초기의 보도자료 건수가 83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가 55건(3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관련한 보도자료의 양은 다소 적으로 확인되었다. 사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같은 경우 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크지는 않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심각한 국가의 위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에 비해 보도자료가 많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의 감염병 관련 정부의 대응 체계가 메르스, 코로나19 발생 시점과는 달랐던 면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표 45> 감염병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량 비교

구분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보도자료	11(6.0)	22(12.1)	11(6.0)	83(45.6)	55(30.2)	182(100)

보도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46>과 같이 정보 제공형이 113건(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홍보형 93건(42.1%), 인물과 동정 11건(5.0%), 논평과 입장문 4건(1.8%)이었다. 감염병별과 보도자료 유형은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염병별로 보면 사스 관련 보도자료는 정보 제공형이 6건(46.2%), 정책 홍보형이 5건(38.5%), 인물과 동정 2건(15.4%), 논평과 입장문은 없었다. 사스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당시 참여정부는 사스에 대한 정보를 받 빠르게 공유하고 초기 대응으로 발생동향 및 관리대책과 함께 전국에 사스 방역 강화지침을 내렸다. 또한 사스라는 감염병을 초기 괴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사용금지 요청을 내렸으며 한국의 사스 의심신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2건(15.4%)에 대한 인물과 동정은 사스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및 보건장관 회의 진행에 따른 보도자료였다.

신종플루 관련 보도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정책 홍보형이 15건(50.0%), 정보 제공형 13건(43.3%), 인물과 동정 2건(6.7%), 논평과 입장문은 없었다.

감염병 발생 초기 인플루엔자 관련 추정환자가 3명으로 늘고 그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신종인플루엔자 모니터링 센터가 가동되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 기준을 급성호흡기질환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해외여행시에 주의 사항 및 귀국 유학생들에게 실시되는 방역관련 정보제공 등이 있었다. 2건(6.7%)의 인물과 동정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WHO 전략 상황실간의 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내용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논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감염병이 증폭 됐을 시 치사율이 높아 사망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사실상 한국의 발병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유형을 살펴보면 정책 홍보형이 6건(42.9%), 정보 제공형 5건(35.7%), 인물과 동정 2건(14.3%), 논평과 입장문 1건(7.1%)이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출혈열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예방 대책, 질병 정보, 에볼라출혈열 발생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지침 등이 있었다. 2건(14.3%)의 인물과 동정은 복지부장관이 인천공항검역소 및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검역과 격리병실 등 대비 상황을 점검, 김해·부산·제주검역소 및 제주대학교병원

현장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1건(7.1%)의 논평과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전국 국립검역소 대책회의로 에볼라 한국유입 차단에 만전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메르스의 대한 보도자료 유형을 보면 정보 제공형이 55건(57.9%), 정책 홍보형이 34건(35.8%), 인물과 동정 4건(4.2%), 논평과 입장문이 2건(2.1%)이었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한국 유입이 된 것이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추가유입과 한국 추가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세웠으며 관련 대응 조치를 강화, 민관 합동 총력 대응을 선언하였다. 또한 메르스 밀접접촉사 전수 재조사 및 중동지역 입국자 모니터링과 메르스 격리 가구에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게다가 메르스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질의응답식의 형태로 제공했으며 한국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 및 전체 유전체 분석 결과, 기존 중동지역 메르스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하는 점과 무분별한 메르스 관련 유언비에 대해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또 4건(4.2%)의 인물과 동정은 한국과 사우디 메르스 전문가 회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국과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사전 예고 등이었으며 2건(2.2%)의 논평과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에 대한 발표문과 WHO 제9차 메르스 긴급위원회 결과에 대한 발표문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도자료 유형은 정보 제공형이 34건(49.3%), 정책 홍보형이 33건(47.8%), 인물과 동정, 논평과 입장문이 각각 1건(1.4%)이었다. 우한시에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이래로 한국 조사대상 가운데 유증상자 1명이 발생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강화와 우한지 방문자 예방수칙 수준을 당부해 나갔다. 이후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알려야 하는 정책 및 사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등이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공 하였다. 또한 한국 발생 현황과, 확진자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정보, 유증상사 조사 결과와 함께 감염증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배포하였다. 그 밖의 1건(1.4%)의 인물과 동정은 박능후 장관이 인천공항검역소 검역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이었으며 논평과 입장문(1건, 1.4%)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장관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하는 내용의 입장문이었다.

이와 같이 보도자료 유형은 정보 제공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서 언론보도 프레임에서 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겠다. 보도자료에서 주로 다루지는 내용이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 전달, 방역대책, 정책 홍보성 등인데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에 내포된 정보 내지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형

유형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정책 홍보형	5(38.5)	15(50.0)	6(42.9)	34(35.8)	33(47.8)	93(42.1)
정보 제공형	6(46.2)	13(43.3)	5(35.7)	55(57.9)	34(49.3)	113(51.1)
인물과 동정	2(15.4)	2(6.7)	2(14.3)	4(4.2)	1(1.4)	11(5.0)
논평과 입장문	0(0.0)	0(0.0)	1(7.1)	2(2.1)	1(1.4)	4(1.8)
합계	13(100)	30(100)	14(100)	95(100)	69(100)	221(100)

Fisher's exact test: $p > .05$

보도자료 제공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47>와 같이 ‘보도자료만’이 89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자료+붙임자료가 85건(46.7%), 정례브리핑+붙임자료가 8건(4.4%)이었다. 감염병별로 보도자료 제공형태는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보도자료만’ 9건(81.8%), 보도자료+붙임자료, 정례브리핑+붙임자료가 각각 1건이었다. 신종플루 보도자료의 제공형태는 ‘보도자료만’ 12건(54.4%), 보도자료+붙임자료 10건(45.5%), 정례브리핑+붙임자료는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보도자료 형태는 보도자료+붙임자료가 6건(54.5%), ‘보도자료만’ 5건(45.%)이었으며 메르스는 ‘보도자료만’ 44건(53.0%), 보도자료+붙임자료 39건(47.0%)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보도자료+붙임자료 29건(52.7%), ‘보도자료만’

19건(34.5%), 정례브리핑+붙임자료 7건(12.7%)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보도자료만'(89건, 48.9%) 제공형태는 대부분 한국 접촉자 및 확진자 수, 동선이었다. 보도자료+붙임자료(85건, 36.7%)의 경우 감염병 발생원인 및 증상, 발생지역 방문시 주의사항, 예방수칙 등이었으며 정례브리핑+붙임자료(8건, 4.4%)은 코로나19 당시 7건(12.7%), 사스 1건(9.1%)이었고 다른 감염병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사스의 정례브리핑+붙임자료는 2003년 4월 2일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동향과 관리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코로나19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우한교민 이송 상황 및 입소 후 진행사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표 4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공형태

제공형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보도자료만	9(81.8)	12(54.4)	5(45.5)	44(53.0)	19(34.5)	89(48.9)
보도자료+붙임자료	1(9.1)	10(45.5)	6(54.5)	39(47.0)	29(52.7)	85(46.7)
정례브리핑+붙임자료	1(9.1)	0(0.0)	0(0.0)	0(0.0)	7(12.7)	8(4.4)
합계	11(100)	22(100)	11(100)	83(100)	55(100)	182(100)

Fisher's exact test: $p < .05$

감염병 발생 시점별로 보도자료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8>과 같이 전체적으로 정보원 유형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세계기구, 해외정부 및 지자체, 공항 관련 관계자로 나타났으며, 감염병별로 보도자료 정보원은 서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스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9건(81.8%), 세계기구,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1건(9.1%)이었으며 한국 전문가, 공항 관련 관계자는 없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2건(95.7%), 한국 전문가 1건(4.3%)이었으며 세계기구, 해외정부 및 지자체, 공항 관련 관계자는 모두 0건(0.0%)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11건, 100.0%) 정보원만 있었으며 남지 한국 전문가, 세계기구, 해외정부 및 지자체, 공항 관련 관계자는 없었다.

메르스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82건(94.3%), 세계기구 4건(4.6%), 한국 전문가 1건(1.1%)이었으며 해외정부 및 지자체, 공항 관련 관계자는 모두 0건(0.0%)이었다.

코로나19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54건(91.5%), 세계기구 2건(3.4%), 한국 전문가, 해외정부 및 지자체, 공항 관련 관계자가 각각 1건(1.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보도자료에서의 정보원 유형만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감염병 관련 보도자료의 정보원보다 다양했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한국 정부 정보원만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보원

정보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한국정부 및 지자체	9(81.8)	22(95.7)	11(100.0)	82(94.3)	54(91.5)	178(93.2)
한국 전문가	0(0.0)	1(4.3)	0(0.0)	1(1.1)	1(1.7)	3(1.6)
세계기구	1(9.1)	0(0.0)	0(0.0)	4(4.6)	2(3.4)	7(3.7)
해외정부 및 지자체	1(9.1)	0(0.0)	0(0.0)	0(0.0)	1(1.7)	2(1.0)
공항 관련 관계자	0(0.0)	0(0.2)	0(0.0)	0(0.0)	1(1.7)	1(0.5)
합계	11(100)	23(100)	11(100)	87(100)	59(100)	191(100)

Fisher's exact test: $p > 0.05$

다음은 보도자료 프레임은 다음 <표 49>와 같이 감염병별로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보도자료 프레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먼저 사스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8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프레임이 5건(33.3%), 설득 프레임과 예방 프레임이 각각 1건(6.7%)이었으며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은 각각 0건(0.0%)이었다.

신종플루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마찬가지로 정보 프레임이 17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책 프레임 13건(38.2%), 설득 프레임과 예방 프레임이 각각 2건(5.9%)이었고,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은 각각 0건(0.0%)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정책 프레임이 9건(47.4%), 정보 프레임이 6건(31.6%)이었으며 예방 프레임이 3건(15.8%), 설득 프레임이 1건(5.3%).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이 각각 0건(0.0%)이었다.

메르스 관련 보도자료의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 59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이 30건(30.03%), 설득 프레임 5건(5.1%), 예방 프레임 2건(2.0%), 경제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이 각각 1건(1.0%)이었다. 메르스 당시 경제 프레임의 경우 메르스 격리자 가구 가운데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포털 댓글과 SNS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유언비어에 대한 법적 처벌 조치 관련한 내용이었다. 책임 프레임 관련 내용은 메르스 관련 ‘제9차 WHO IHR 긴급위원회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의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합동평가단은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최적화 되지 않았고 보건당국이 항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표 4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프레임

정보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전체
정책 프레임	5(33.3)	13(38.2)	9(47.4)	30(30.03)	32(32.7)	89(33.6)
정보 프레임	8(53.3)	17(50.0)	6(31.6)	59(59.6)	35(35.7)	125(47.2)
경제 프레임	0(0.0)	0(0.0)	0(0.0)	1(1.0)	1(1.0)	2(0.8)
갈등 프레임	0(0.0)	0(0.0)	0(0.0)	1(1.0)	1(1.0)	2(0.8)
책임 프레임	0(0.0)	0(0.0)	0(0.0)	1(1.0)	0(0.0)	1(0.4)
설득 프레임	1(6.7)	2(5.9)	1(5.3)	5(5.1)	8(8.2)	17(6.4)
예방 프레임	1(6.7)	2(5.9)	3(15.8)	2(2.0)	21(21.4)	29(10.9)
합계	15(100)	34(100)	19(100)	99(100)	98(100)	265(100)

Fisher's exact test: $p > 0.05$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35건(35.7%), 정책 프레임이 32건(32.7%), 예방 프레임이 21(21.4%), 설득 프레임이 8건(8.2%), 경제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이 각각 1건(1.0%)이었으며 책임 프레임은 0건(0.0%)이었다. 경제 프레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로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검사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갈등 프레임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문건 다수가 온라인에 확산 된 것에 따른 수사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및 확산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을 비교한 결과로 <표 50>과 같다.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보도자료에서 한국정부 및 지자체는 178건(93.2%), 세계기구 7건(3.7%), 한국 전문가 3건(1.6%), 해외정부 및 지자체 2건(1.0%), 공항 관련 관계자 1건(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세계기구, 해외정부 및 지자체만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정보원만을 가지고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면, 보도자료와 같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61건(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 전문가는 618건(15.2%), 해외정부 및 지자체 364건(8.9%), 세계기구 156건(3.8%), 공항 관련 관계자 41건(1.0%)이었다. 특히 의외로 전문가와 같이 한국 전문가의 비율이 보도자료에 비해 높아 실제 기사의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도자료 보다 다양한 정보원들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시민, 해외 전문가,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기업, 시민단체,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시민, 자영업자, 공항 관련 관계자, 유학생,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공공기관,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는 보도자료에서 활용되지 않은 정보원이다.

<표 50>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 비교

정보원	보도자료	언론보도	전체
한국정부 및 지자체	178(93.2)	1261(30.9)	1439(33.7)
한국 전문가	3(1.6)	618(15.2)	621(14.6)
세계기구	7(3.7)	156(3.8)	163(3.8)
해외정부 및 지자체	2(1.0)	364(8.9)	366(8.6)
세계시민	0(0.0)	134(3.3)	134(3.1)
해외 전문가	0(0.0)	149(3.7)	149(3.5)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0(0.0)	75(1.8)	75(1.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0(0.0)	185(4.5)	185(4.3)
한국 및 해외 언론	0(0.0)	179(4.4)	179(4.2)
한국 및 해외 기업	0(0.0)	186(4.6)	186(4.4)
시민단체	0(0.0)	12(0.3)	12(0.3)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0(0.0)	68(1.7)	68(1.6)
시민	0(0.0)	270(6.6)	270(6.3)
자영업자	0(0.0)	113(2.8)	113(2.6)
공항 관련 관계자	1(0.5)	41(1.0)	42(1.0)
유학생	0(0.0)	23(0.6)	23(0.5)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0(0.0)	34(0.8)	34(0.8)
공공기관	0(0.0)	33(0.8)	33(0.8)
한국 및 해외 경찰	0(0.0)	22(0.5)	22(0.5)
군 관계자	0(0.0)	19(0.5)	19(0.4)
교육부 및 교육청	0(0.0)	41(1.0)	41(1.0)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0(0.0)	61(1.5)	61(1.4)
종교단체	0(0.0)	4(0.1)	4(0.1)
법조계 관계자	0(0.0)	6(0.1)	6(0.1)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0(0.0)	6(0.1)	6(0.1)
기타	0(0.0)	15(0.4)	15(0.4)
합계	191(100)	4075(100)	4266(100)

multiple coding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표 51>과 같이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프레임은 유형은 정보 프레임과 정책 프레임이었다. 정보원 유형이 결국 보도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먼저, 상세하게 보도자료의 프레임 유형은 살펴보면 정보 프레임 125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 89건(33.6%), 예방 프레임 29건(10.9%), 설득 프레임 17건(6.4%),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이 각각 2건(0.8%), 책임 프레임 1건(0.4%), 사회영향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언론보도에서는 보도자료 프레임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영향 프레임, 공포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이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에서 전체 비율 가운데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도자료에서는 대개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검역과 방역 절차, 감염병 관련 정보, 예방 수칙 등을 강조한 반면, 언론보도에서는 감염병이 현재 미친 영향과 미래의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논의, 감염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추후 감염병 종식을 기대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라든지, 의료진의 노고 등에 내용에 주목하여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모두 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는 전체 프레임 가운데 정책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이 80.8%를 차지하고, 언론보도 프레임 역시 정책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이 5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정부의 보도자료를 언론이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의 대응방안과 정보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활용해야 함은 인정하지만, 기사 작성에 있어 정부의 보도자료 제공이 전문적인 취재 활동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이다.

<표 51>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 비교

프레임	보도자료	언론보도	전체
정책 프레임	89(33.6)	743(17.1)	832(18.)
정보 프레임	125(47.2)	1489(34.2)	1614(35.0)
경제 프레임	2(0.8)	212(4.9)	214(4.6)
사회영향 프레임	0(0.2)	644(14.8)	644(14.)
갈등 프레임	2(0.8)	271(6.2)	273(5.9)
책임 프레임	1(0.4)	385(8.9)	386(8.4)
설득 프레임	17(6.4)	205(4.7)	222(4.8)
공포 프레임	0(0.0)	204(4.7)	204(4.4)
예방 프레임	29(10.9)	36(0.8)	65(1.4)
인간흥미 프레임	0(0.0)	74(1.7)	74(1.6)
희망적 프레임	0(0.0)	87(2.0)	87(1.9)
합계	265(100)	4350(100)	4615(100)

multiple coding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및 함의

21세기 이후의 감염병은 초기에 감염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면서 감염 지역이나 국가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손실을 입히게 된다(이선영, 2020). 이로 인해 감염병 발병 이후 초기 한 달간의 상황 통제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최미영 외, 2020), 적절한 초기 대응 및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각국이 보유한 사회적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유관 기관과 방역·방재 시스템, 관련 인력, 비상 재정 편성 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와 국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면서 감염병의 진행 상황과 위험성, 대응 수칙, 관련 정보 등을 사회 전체에 알리고 전파·확산시키는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감염병 문제가 구조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동 비상사태로 부각된 최근 20년을 대상으로 5종 감염병 발생 초기의 한 달간의 한국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미래의 또 다른 국가 위급 재난시의 보다 바람직한 언론 보도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감염 우려로 인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제한(이서현·진명지·최낙진, 2020)되고, 위기 대처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 정부 보도자료라는 공식적인 채널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기에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언론보도와 정보원 및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수행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반적인 결론 및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5종 감염병에 대한 2곳 신문사와 2곳 방송사들의 보도 특성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도 심층성, 보도 사실성, 보도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을 언론보도의 특성을 구성하는

유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보도 심층성은 기사 심층성과 취재 심층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사 심층성에서는 언론사와 감염병별 전반적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에 대한 기사 분석을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고 원인분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별에서도 감염병 발생 첫 주차인 1주차에서는 영향분석과, 대응분석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고,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는 가장 적었다. 이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현재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어떠한지, 감염병 발생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정부 및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감염병 유입 경로 등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3주차에 들어섰을 때 보다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감염병 발생이 본격화 되면서 모든 언론사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방역대책으로 감염병에 대응할지를 살펴보는 대응분석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잘못된 방역을 꼬집는 기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감염병 발생 이래로 시간이 지나 확산정도와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면서 이와 같은 보도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나름대로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부정적인 영향과 발생 빈도가 미래에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보도 형태에만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공공 기관, 지자체 등의 대응 방식의 장단점, 개선점, 보완점 등을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의 과급효과와 위험성을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혹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 경제 성장이 둔화 될 것을 우려하여 감염병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은 감염병의 심각성과 개연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예방법 내지 매뉴얼 등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감염병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감염병 상황에 대한 세밀한

브리핑을 진행해 정부의 신뢰감을 높여 불확실한 위기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루머, 가짜뉴스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겠다. 이러한 당위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응 분석에 치중된 한국 언론보도의 보도 심층성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동시에,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보여주었다고 평할 수 있겠다.

보도 심층성의 또 다른 요인인 ‘취재 심층성’에서는 일반 기자 취재가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전문 기자의 취재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5종 감염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모두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5종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들에 비해 전문 기자 취재 보도 비율이 더욱 낮았다. 코로나19의 경우 다른 4종 감염병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대대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뉴스와 기사의 수량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제작됐지만, 전문 기자의 수는 이 같은 기사 수량의 폭증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차별로 살펴본 취재 심층성에서도 4개의 주차별 가운데 1주차에서가 전문기자 비율이 다소 높았고 2주차부터는 서서히 감소해 4주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1주차의 비율보다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이고, 예방을 위한 의학적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전문기자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지 않은 것이다.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위협 요인인 감염병 관련 보도의 경우, 기사 및 뉴스 제작자의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취재 심층성,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것은 한국 언론계의 척박한 현실이자 관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개선은 힘들겠지만 인류 사회의 새로운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감염병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감염병 분야만이라도 전문 기자의 비중을 늘리고 의학전문기자를 양성하여 취재 심층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추가적으로 명확한 감염병 발생 초기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도준칙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보도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거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문가를 마치 전문가로 내세워 보도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아가 적어도 감염병 발생 후 한 달간은 일일 기사 건수의 과반수 이상이 의학전문기자가 직접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감염병 보도준칙에 추가적으로 초기 보도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과 부합하는 예시안을 제시하며, 보도 기준, 기사 비율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보도 특성의 또 다른 구성 요인인 ‘보도 사실성’을 살펴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감염병별로도 종류와는 상관없이 추측성 보도가 사실 중심적 보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보도에 있어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단순 확진자 발생 수치, 중계식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할 때 마다 고질적으로 추측성 기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스부터, 오늘날의 코로나19 당시 까지 혼선을 부추기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해왔고, 미약한 주장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쓴 기사와 추측성 기사 자체를 다시 재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이는 감염병 보도준칙의 대한 내용과도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약 20년 동안 감염병 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보도에 있어 사실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도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여론 분열과 다양한 억측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부른 판단과 가짜 뉴스 등은 더 큰 공포감을 조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루머, 괴담을 만들어내므로 언론은 더욱더 세밀하고 전문성을 갖춘 취재와 신중한 보도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감염병 보도 준칙의 기본 원칙 가운데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언론은 끊임 없이 본질적인 내용 전달이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람직한 감염병 보도를 위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 윤리 의식 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시스템을 활발하게 실행해 나가 효율적으로 가짜 뉴스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하겠다.

‘보도 방향성’에서는 중립적인 논조로 보도한 기사들이 중추를 이루는 가운데, 시기별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아지거나,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간간히 확인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립적 관점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종플루 시기에 중립 보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메르스 시기에 부정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 시기에 긍정적인 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한국에서 발병되지 않았지만 당시 치료제와 예방약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검역에 만발을 다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개발한 실험용 치료제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다룬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해당 수치는 보도건수로만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선행연구(송해룡·조항민, 2015)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실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외사례를 주로 보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언론이 객관성과 중립적인 자세의 보도를 했다고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중립보도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보도의 객관성을 말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에서 뚜렷하고 분명한 언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허점과 미흡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정확한 상황 전달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정보원 유형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감염병의 속성에 합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스와 신종플루 당시에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와 해외 정부 및 지자체를, 메르스, 코로나19 때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와 한국 전문가를

많이 활용한 반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를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발생 경로는 어떠한지, 감염병이 유행기를 거쳐 확산세가 커졌는지, 치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정보원의 차이는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차별로는 살펴보면 1주차에서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해외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조선일보는 특히 해외정부 및 지자체와 한국 및 해외언론에 대한 비율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았다. 그러다 2주차에서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정보원은 줄어들고, 언론사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와 한국 전문가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1주차와 달리 한국 및 해외 기업과 시민 항목이 생긴 만큼, 감염병이 발화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와 함께 기업들과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3주차에는 해외 전문가가 정보원으로 등장했고, 4주차에는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 역시도 감염병의 확산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정보원들이 주차가 지날수록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활용한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문사의 경우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해외 기업의 순서였지만, 방송사의 경우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뉴스 제작 메카니즘 및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한 타당하고도 현실적인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속보성을 위한 생중계식 보도, 선정적인 장면의 뉴스 편집, 영상중심의 취재 관행 되풀이, 비슷한 장면 위주의 단순보도 등은 아닌지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제된 보도에서 벗어나 신문사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 공조 하에 각자가 보유한 제작 인력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심층 기사들을 제작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신문사와 방송사 간에 상호 보완적인 효과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나아가 공공성을 갖고 확진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심층적인 기획보도로 감염병 정보 제공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레임에서는 감염병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들은 정보 프레임과 정책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현황 및 동향, 방역 대책,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신문사의 경우 경제 프레임 유형의 비중이 높고 방송사의 경우에는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신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차별로는 1주차와 2주차에서 언론사 모두 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공포 프레임의 경우 KBS가 가장 많았다. 공영 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또 다른 신뢰성 있는 정보와 뉴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니며, 이러한 신뢰성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때 쌓이게 된다(강형철, 2018).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난상황에서 공론장의 역할과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이러한 공포심 조장 보도를 한 다는 것은 곧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더욱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2주차에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공포 프레임 활용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영상매체 특성상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영향이 큰 만큼 불안을 심화시키는 기사를 양산했을 때, 인쇄매체보다 훨씬 큰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여론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심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동훈·김지윤·강현숙, 2016)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의존이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의 뉴스보도는 수용자들에게 하여금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분노 등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키고(구교태, 2014).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위기를 인식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도 한다(송해룡·조항민·이윤경·김원제, 2012). 때문에 방송보도의 공포 프레임을 감소시키면서, 대중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대응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보도 프레임을 구성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뉴스보도에서 프레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는 프레임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도 지적되는 사안이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과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정하는 등 여러 차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발생시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언론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인 책무에 더욱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종 감염병별 정부 보도자료 특성과 언론보도와 정보원 및 프레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도자료 제공처이자, 정보원 유형으로 등장하는 우리나라와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언론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프레임 유형에서도 보도자료를 구성하는 정보 프레임과 정책 프레임이 실제 언론보도에서 동일하게 주요 상위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보도 특성에서 언론보도가 보도자료에 비해 확장되고 다원화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유형에서도 언론사들이 보도자료 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였고, 보도 프레임에서도 언론보도가 상대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보도자료의 프레임은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예방 프레임, 설득 프레임,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책임 프레임 등이 나타난 반면, 언론 보도는 여기에 사회 영향 프레임, 공포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 등 보다 풍부한 프레임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도 프레임의 모든 종류를 망라해서 비교하는 경우이고, 보도 프레임 중 정보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언론보도, 보도자료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재까지 아직 소수, 소량에 불과한 프레임들을 활성화하여, 감염병별 언론보도 프레임을 다원화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언론보도 보다 더욱 좁은 관점과 내용, 특성을 드러내는 정부 보도자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일정한 기준 속에 선별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언론사 고유의 노하우와 메카니즘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공중들은 슬픔, 분노, 불안, 스트레스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단순명료하게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하겠다. 즉, 국가와 사회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본질적, 근본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와 정부 보도자료의 보도 사실성, 중립적인 보도 방향성 등은 발전적으로 유지하되, 보도 심층성 강화 및 차별화된 뉴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심층적, 전문적, 과학적인 기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사회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감염병 발생 초기 언론보도의 특성은 세부적인 차이는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다소 결과가 같지 않은 이유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근접성의 차이, 감염병의 국내유입 여부, 확산세, 치사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겠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부터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과 같이 언론의 변화는 사스가 유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의 코로나19를 겪는 현재를 모두 지나왔다. 특히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확산되고, 이 후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증가한 것이 지금의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과 공포 촉발, 속보경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정보 전달 등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와 보도의 대상이자 객체인 감염병 간에 보도 특성의 유사성과 공통성이 확인되는 것은 일견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별, 감염병별 보도 유사성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심화되면, 자칫 획일적인 감염병 보도 관행이 고착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사회적 대응을 무디게 할 위험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원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입장 내지 조언, 분석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의 언론보도가 필요하겠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초반의 5종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양상,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감염병 보도의 현주소를 폭넓게 진단해 보았다. 나아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감염병 언론보도의 발전적인 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과 함의가 감염병 보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정책적, 실무적 지침이자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5종 감염병에 대한 초기 확산과 초동 대응 과정에서 한국 언론보도의 양상과 함께 약 20년간의 추이 변화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발생 후 초기 한 달간의 언론보도의 양상, 기술적, 내용적 특성 등을 분석했으며 보다 자세히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도 내용의 심층성, 취재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 등 다섯 가지 요인을 갖고 알아보았다. 나아가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적 특징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언론보도와 정부 보도자료 가운데 정보원과 프레임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감염병 언론보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1종이나 2종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5종의 감염병 관련 보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 한국 언론의 감염병 보도에 대한 양상을 전체적, 거시적으로 살펴보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한계점도 남아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해당 감염병 첫 기사를 기준으로 한 달간 보도된 기사 전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초기 한 달의 보도가 기사의 심층성과 사실성 등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을지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감염병별로 확산기, 유행기 등의 시점과 퍼져나가는 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동일한 시점으로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앞서 종식이 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19 역시도 발생에서 종식까지 전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모두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보도자료와 감염병 뉴스기사 간의 상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시점에 따른 정부 대응 및 언론 보도의 변화, 해외 보도와의 비교 분석 역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도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지만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정보 역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질병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추가적으로 이들 부처의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 감염병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SNS 등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일간지에서는 속보성을 강조하는 즉시 기사화뿐만 아니라 보강 및 심층 취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보다 깊이 있게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속보성 매체인 소셜미디어와 SNS, 저속형 뉴스매체로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와 비교 분석, 나아가 각 매체에서 정부 보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만구 (2021).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보호체계 및 운영관리 개선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소영 (2020). 코로나19 보도를 통해 본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의 향후 과제. *言論仲裁*, 155, 86-93.
- 강승지 (2021). '위드 코로나' 앞으로 한달..의료역량·국민 공감에 성패 갈린다. *뉴스1코리아*, 2021.10.03.
- 강형철 (2018).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존립 의의와 과제. <언론정보연구>, 55권 15호, 5-55.
- 고대유·박재희 (2018).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243-280.
- 고영철 (2012). 한 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37-78.
-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권 3호. 128-147.
- 국회입법조사처 (2009).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권신오 (2017). 취재기자와 데스크의 보도자료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언론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신오·김균수 (2015). 게이트키퍼 과정으로서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언론사 기자를 중심으로.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6호, 65-85.
- 김경희·배진아·김유정 (2015). <모바일시대의 포털 뉴스 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나현·오하영 (2021).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 기반 COVID-19 Pandemic 분석결과.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5권 4호, 495-500.
- 김도경·윤영민 (2015). 방송은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 광고충량제,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수신료 인상 보도 내용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4권 6호. 109-135.
- 김동규 (2002). 한국 언론이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139-156.
- 김병건 (2015).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사설의 비판적 담화 분석. <한말연구>, 38권 1호,

- 47-76.
- 김병철 (2019). 메르스 보도가 메르스 정보 검색행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207-224.
- 김봉덕 (2009). 지역언론의 뉴스품질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 지역균형발전 보도에 관한 다양성, 심층성, 객관성 분석.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논문,
- 김선욱 (2020). ‘코로나19’ 역습은 인간의 자연 파괴가 원인. 장흥투데이, 2020.03.05.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권 3호, 5-25.
- _____ (2020). 감염병 보도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1666호. 1-4.
- 김영옥 (2006).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192-232.
- 김영옥·함승경·안현의 (2015). 언론의 세월호 참사보도 구성 : 프레임, 정보원, 재난보도 준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7호, 51-77.
- 김영호 (2021). 감염병과의 위험한 동거 :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21세기 감염병. 서울 : 지성사.
- 김옥태·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11권 7호, 51-77.
- 김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39-50.
- 김윤경·김지현·김영석 (2013). 성폭력 뉴스 프레임이 개인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개별 정서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245-271.
- 김은성 (2015). 메르스 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위기관리 이론과실천>, 11권 10호, 91-109.
- 김위근·황용석 (2020). <한국 언론과 포털 뉴스 서비스>.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재영 (2021). 초연결성은 어떻게 지역성과 만나나?: ‘당근마켓’ 사례를 통한 탐색적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108권 7-29.
- 김정현 (2010). 대학생 집단의 신종플루에 대한 인식과 지각적 편향.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77-98.
- 김진영 (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미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민족 정체성, 미디어 의존,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119-154.
- 김태림 (2016). 세계 각국의 응급의료시스템 도입시기의 인구·보건지표 비교분석. 울산대

-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경·권상희 (201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과학 보도 프레임 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6권 1호. 37-53.
- 남효운 (2005).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33-256.
- _____ (2006). 언론보도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의 규모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1호, 115-146.
- 남효운·구교태 (2004).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5권, 41-64.
- 목은영·이준웅 (2014).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반영, 관점 균형성이 뉴스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428-456.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경숙·이관열 (2013). 매체 이용과 매체 신뢰 및 공정성 인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2권 2호, 305-336.
- 박기수 (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26.
- _____ (2020)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동향: 주요국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3권 0호, 87-101.
- 박단비·권상희·강보영·김세진 (2018). 텍스트와 이미지에 나타난 메르스 감염병 프레임 분석 : 인스타그램(Instagram)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7권 3호, 123-156.
- 박대민·박진우 (2015).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의 정보원 및 인용문 분석 = 경제저널리즘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37-61.
- 박상표·조홍준 (2010). 2009 신종플루의 위험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 비판사회정책, 30, 7-48.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박지웅 (2021). 팬데믹과 초연결생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겨울호, 1-21.
- 박희봉·이연수·이혜수 (2021). 과학적 불확실성과 공영방송, 재난의 공론장 : COVID-19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권 1호, 71-114.
- 방성현·이건호 (2013). 일간지 기사와 보도자료 프레임 비교를 통한 비구성적 현실 탐색.

-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163-186.
- 방은주 (2013). 국내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 이용과 뉴스 제작 과정의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선기·이옥기 (2011).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 분석과 보도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62-67.
- 백선기·이옥기·이경락(2012).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 연구: KBS, NHK, CNN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8.
- 백혜진 (2017). 전략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 변화하는 공중의역할과 미디어 환경. <대한의사협회지> 60권 4호, 306-313.
- 백화종 (1997). 전국감염병감시시스템 구축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5권 8호, 50-58.
- 서병호·김춘식 (2001). 정부의 대언론 홍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16-249.
- 소영진 (2010). 위험책임의 사회적 분배,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1-121.
- 손영준·홍주현 (2019).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한겨레·조선·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22권 3호, 175-210.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송병원·이명천·김요한 (2014).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론과학연구> 14권 4호, 146-188.
- 송종현 (2019). 세월호 참사 5년...재난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문제. <언론중재>, 152권, 56-61.
- 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3). 미디어의존과 미디어 보도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성 연구: 원자력기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9권, 115-147.
- _____ (2014). 공중의 사이버범죄 위험특성과 공포감이 결과적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2권, 129-156.
- 송해룡·조항민·이윤경·김원제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 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권 1호, 65-100.
- 송해룡·조항민 (2015). 국내 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 연구: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6호, 45-68.
- 송해룡·김원제 (2017).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 감염병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3권 6호, 1-14.
- 신윤정 (2020).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국제이주기구(IOM) 보건·국경·이동 관리 (HBMM) 체계의 시사점. <보건복지>, 379권, 1-8.
- 심재웅 (2011).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탐색적 고찰: 포털의 법적 성격과 규제의 시각, <한국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105-125.
-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정치커뮤니케이션>, 17호, 169-212.
- 오누리·김은이 (2012). 북한에 대한 방송뉴스 내용분석 :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에 관련한 KBS와 SBS 저녁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87-123.
- 오윤경·류현숙·허준영·김황열·김대훈 (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87호, 1-22.
- 오재승 (2020). <미국은 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을까>. 서울 : 소설친구.
- 우지숙·최정민(2015).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5개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行政論叢> 53권 2호 315-343.
- 유재웅·조윤경 (2012). 자연재난 보도에서 공식/비공식 정보원 이용에 관한 연구: 시민 제작 콘텐츠 이용정도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권 3호, 67-84.
- 이규명 (2018). 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훈·김지윤·강현숙 (2016).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 스펀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5권 2호, 355-383.
- 이미나·홍주현 (2016).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 메시지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5호. 124-136.
- 이민규·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378-414.
- 이서현·최진봉 (2017).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언론과학연구>, 17권 1호, 28-55.
- 이서현·진명지·최낙진 (2020). 지방정부의 보도 자료는 언론 보도에 어떻게 활용되었나? : 제주 지역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4권 6호, 1-32.
- 이선영 (2020).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응급실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정 연구 :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정·반현 (2017). 저출산 이슈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의 프레임 비교. <광고 PR실학연구> 10권 5호, 161-190.

- 이성우·정성희 (2020).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이슈&진단, 413, 1-25.
- 이슬기·이혁규·유나리 (202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권 4호, 271-305.
- 이진로·안병규 (2010). 신종플루 담론의 형성 구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권 1호, 1-29.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1-307.
- 이효성 (2014) 한국언론의 좌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훈철 (2020).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09 신종플루발 경기침체 재현하나. 뉴스1코리아, 2020.03.12.
- 임미영·안창현·김규식·유홍식 (2010).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457-498.
- 임연희 (20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179-201.
- 임현수·이준웅 (2011).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5-31.
- 장지연 (2016). 감염병 대응에서 나타난 한국의 거버넌스구조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492-516.
- 전병규·조민경·임현수 (2017). 텔레비전 의존이 위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98년 홍수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1권 3호, 19-28.
- 전지영 (2017). 감염병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 분석-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3권 1호, 1-5.
- 전형준 (2016). 기자 경력 및 기자 전문성에 따른 취재활동 분석 : 메르스 취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권 10호, 381-391.
- 정윤진·최선 (2017). 정부의 안보인식과 위기관리 시스템 :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권 2호, 133-157.
- 정지영·표시영 (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인격권>, 7권 1호, 193-236.
- 정혜선 (2020). 감염병에 대한 의료계 대처의 역사.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집,

- 2020(1), 23-31.
- 조경숙·한경태 (2010).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미디어관련법 개정정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36권 3호, 133-165.
- 조민정·이신행 (2021).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 자료기반 자동화 프레임 추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권 1호, 65-107.
- 조원광 (2021). 한국의 공중 보건 위기 초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토픽 모델링. 정보사회와 미디어, 22권 2호, 25-50.
- 주영기·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443.
- _____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30-54.
- 진명지·이서현·최낙진 (2020).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언론보도 활용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44권 4호, 125-154.
- 평베이베이 (2019). 중국과 한국의 위기대응 비교분석 : 사스와 메르스를 중심으로. 圓光 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동필 (2011). 청년실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과 대학생의 위험지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5-287.
- 최미영·신호균·김연·김주연·한광협 (2020). 국내 코로나19 감염병의 초기 현황에 대한 신속 고찰. 대한의사협회지, 63권 8호, 504-511.
- 최미정·은재호. (2018). 위험소통과 정부신뢰-빅 데이터 감정 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33-60.
- 최민재 (2005). <온라인 뉴스 비즈니스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은비·김효숙 (2011). 언론보도 어조와 관여 유형이 공중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5권 1호, 135-168.
- 최재욱·김경희·문지원·김민수. (2015).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과 소통체계 구축: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경험과 교훈. <대한의사협회지> 58권 7호, 624-634.
- 한지원·김영옥 (2021). 코로나19 한국대응관련 국내 진보-보수 언론의 외국보도 인용기사 비교 : 한국의 이미지 및 정체성 중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05권, 98-133.
- 허용강·차수연·서필교·김소영·백혜진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2권, 75-113.
- 한동섭·김형일 (2005). 원자력 정책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산업>, 25권 4호.

39-48.

- 황상익 (2020). 감염병과 국가와 인간. <역사와현실>, 116호, 3-22.
- Atman, C. J., Bostrom, A., Fischhoff, B., & Morgan, G. (1994). Designing risk communications: Completing and correcting mental models of hazardous processes, part I. *Risk Analysis*, 14(5): 779-788.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Ball-Rokeach, S. J.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all-Rokeach, S. J.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 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 Ball-Rokeach, S. J. , Rokeach, M. , & Grube, J. W. (1984). The great American values test. *New York: Free Press*. 18(1), 34-41.
- Coombs, W.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s, Newbury Glik, D. C. (2007).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nu. Rev. public health*, 28, 33-54.
- Cooper, M. (2020). Tracking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on the U.S. *The New York Times*.
- Chipidza, W., Akbaripourdibazar, E., Gwanzura, T., & Gatto, N. (2021). Topic Analysis of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News Coverage of the Early COVID-19 Pandemic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Communication.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1-8. doi:10.1017/dmp.2021.65
- ECDC (2010). *Pandemic (H1N1) 2009*. 2010-01-19.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6-27.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Gamson, W. A., & Stuart, D. (1992, March). Media discourse as a symbolic contest: The bomb in political cartoons. In *Sociological Forum*, 7(1), 55-86.
- Gerbner, G. (1969). Dimensions of Violence in Television Drama. In R.K. Baker & S.J.Ball(eds.), *Violence in the Media*. Staff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11-340.
- Gerber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ieber, W., & Johnson, W. (1961). The City Hall beat: a study of reporter and source roles, *Journalism Quarterly*, 38. 289-297.
- Gilpin, D. (2008). Narrating the organizational self: Reframing the role of the news release. *Public Relations Review*, 34, 9-18.
- Glik D C . (2007).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3-54.
- Goffman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Grant, A. E. , Guthrie, K. K. , & Ball-Rokeach, S. J. (1991). Television shopping: A media dependency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8, 773-798.
- Hallahan, K. (1999). Seven models of framing: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1(3), 205-242.
- Hindman, D. B. (2004). Media system dependency and public support for press and president.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1), 29-42.
- Jennifer Wright (2002). *Thirteen Infectious Diseases Changing World History: 이규원 (2020).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처럼
- Jin, H. J. and D. H. Han. (2014). Interaction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44: 95-102.
- Jung, J., & Lee, D. (2012). A study of frame effect in Elaboration Likelihood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ancer related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6), 278-309.
- Kasperson, R. E., Jhaveri, N., & Kasperson, J. X. (2001). Stigman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ward a frame work of risk analysis. In Flynn, J., Slovic, P., & Kunreuther, H. (eds.), *Risk, media and stigma: 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and Sterling, VA: Earthscan Publications.

- Kasperson, R. E. & Stallen, P. M. J. (1991).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 International perspectives. Kluwer, Dordrecht.
- Lerbinger, O. (1997). The crisis manager: Facing risk and responsibilit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oges, W. E. (1994). Canaries in the coal mine: Perceptions of threat and media system dependency rel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21(1), 5-23.
- Lowrey, W. (2004). Media dependency during a large-scale social disruption: The case of September 11.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3): 339-357.
- Newton Press, 강금희, 신명희 역 (2015). 바이러스와 감염증 : 에이즈, 에볼라 출혈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 서울 : 뉴턴사이언스.
-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London: Sage Publications.
- Mileti, D. S., Fitzpatrick, C. (1991). Communication of Public Risk; Its Theory and its Application, *Social Practice Review*. 2.
- 山本太郎, 한승동 역 (2020). <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 코로나 시대에 새로 쓰는 감염병의 역사>, 서울: 메디치미디어.
- Pen, Z., & Kosicki, G. M. (2001). Framing as a Strategic Action in Public Deliberation. In S. D. Reese, O. H. Gandy Jr., & A. E. Grant (Ed.),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반현·노보경 (역) (2007). *공적 속의에서 전략*, 77-125.
- Powell, D., & Leiss, W. (1997). Mad cow and mother's milk: The perils of poor risk communication.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 Preston, R., 김하락 역 (2015). 에볼라 바이러스 전쟁의 시작. 서울: 청어람미디어.
- R. A. Edwards (2002), "The Moderator as an Emerging Democratic Intermediary: The Role of the Moderator in Internet Discussions about Public Issues," *Information Policy*, 7(1), 3-20.
- Renn, O., Burns, W. J., Kasperson, J. X., Kasperso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Ritchie, H., Mathieu, E., Rodés-Guirao, L., Appel, C., Giattino, C., Ortiz-Ospina, E., Hasell, J., Macdonald, B., Beltekian, D., Roser, M. (2021). Coronavirus Pandemic. Our World in Data. Retrieved 2021-10-03.

- Sachsmann, D. B. (1977).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coverage of environment in San Francisco area. *Journalism Quarterly*, 54, 54-62.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ah, S., 정해영 역 (2017). *Pandemic : 바이러스의 위협*. 서울 : 나눔의 집.
- Shibo, J., Lu, L., & Lanying D. (2013). Development of SARS vaccines and therapeutics is still needed. *Future Virology*, 8(1), 1-4.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1991).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68(4), 781-795.
- Shu, H., Pyeon, J. Y., & Ryu, S. K. (2015). Critical analysis of journal's articles on reading discourse through press releases: Focused on 2013 research report on reading status in Korea.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5, 285-317.
- Signorielli, N., & Moragan, M. (1990), *cultivation analysis: New directions in media effects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Sleurs, K., Jacobs, G., & Van Waes, L. (2003). Constructing press releases, constructing quotations: A case stud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2), 192-212.
- Snowden, F. M., 이미경, 홍수연 역 (2020). *감염병과 사회 :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파주: 문학사상.
- Stephenson, T., 제효영 역 (2010). *신종 플루의 진실 : H1N1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라!*. 서울 : 시그마북스.
- Tur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ocal Press.
- Tuchman, G.,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서울: 나눔.
- Turk, J. V. (1986).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the news. *Newspaper Research Journal*, 7, 15-26.
- Turk, J. V. (1991). Publicrelations' influence on the news. In D. L. Protes & M. McCombs (Eds.), *Agenda setting: Reading on media, public opinion, and policy mak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11-222.
- Walters, L. M. & Walters, T. N. (1992). News source perceptions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51, 219-225.

- WHO (2005). The World Health Report 2005 Make Every Mother and Child Count.
- _____ (2014a). Case control study to assess potential risk factors related to human illness caused by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_____ (2014b). Ebola virus disease. WHO Media centre.
- _____ (2017a). Communicating Risk in Public Health Emergencies.
- _____ (2017b). Asia Pacific Strategy for Emerging Disease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 _____ (2019). Pandemic Ebola Virus Disease Risk Management. WHO international Guidance.
- William H. McNeill (2005). world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 김우영 역(2005). 전염병의 세계사. 서울: 이산
- Young, J. R. (2003). The role of fear in agenda setting by television new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 1673-1695.

2. 뉴스기사

- 국민일보 (2021.4.23.). 백신 수급 문제에 코로나 대응 여론도 뒤집혔다.
- 동아사이언스 (2021.6.21.). 에이즈, 첫 보고 40년..."현대판 흑사병에서 관리만 하는 만성질환으로.
- 한겨레신문 (2015.7.7) 에볼라·에이즈·신종플루...‘변종’을 경계하라.
- 한겨레신문 (2015.7.7.). 인간이 호출한 바이러스...인류를 위협하다.
- 한국일보 (2020.11.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명 넘어... 100명 중 3명 감염.

3. 홈페이지

경기연구원

(<https://www.gri.re.kr/%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법무부 출입국통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법률 관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1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관련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통계자료

(<http://www.kdca.go.kr/contents.es?mid=a20602070000>)

질병관리청 법령 관련

(<http://www.kdca.go.kr/board.es?mid=a20507010000&bid=0006&nPage=5>)

질병관리청 2018 위기소통매뉴얼 관련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142126)

질병관리청 2020 지역사회 위기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시나리오 및 표준교육 모듈 개발

(https://nih.go.kr/board/board.es?mid=a40802000000&bid=0071&act=view&list_no=715538)

한국기자협회 감염정보도준칙 관련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부록 1> 감염병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 목록

구분	저자(년도)	주요 내용
정부대응	고대유·박재희(2018)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 연구
정부대응	구주영·나태춘(2018)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정부대응	김영근(2020)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정부대응	김은성(2015)	메르스 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정부대응	김현주(2015)	국외 감염병 대응체계 사례
정부대응	권오영(2019)	1950년대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전염병 감시체계의 흐름에 관한 연구
정부대응	문현철(2020)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대응	박재희(2020)	감염병 재난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정부대응	박혜미·김대중(2017)	프랑스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예외적 보건 위기와 위기 상황의 차단
정부대응	변성수·신우리·조성(2018)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정부대응	배재현(2016)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대응	서경화·이정찬·김계현·이열(2015)	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정부대응	송승현·최중국·김승렬(2020)	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
정부대응	송철민·이지화·허지수·이성미·이서현(2021)	코로나19 위기대응 공식 채널로서 17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비교 연구
정부대응	신호준·구원희·백민호(2015)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비교 연구
정부대응	윤기웅·공동성(202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대응	이규명(2018)	사스와 메르스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감염병 대응 영향요인 분석

정부대응	이미나·홍주현(2016)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 위기대응 메시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정부대응	장병연(2017)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정부대응	장지연(2016)	메르스를 사례로 살펴 본 감염병 대응에서 나타난 한국의 거버넌스구조
정부대응	전병울(2015)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향
정부대응	전세영(2020)	2018년 신종감염병 메르스 사태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의 효과성 분석
정부대응	정성은(2020)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코어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정부대응	정윤진·최선(2017)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정부의 안보인식과 위기관리 시스템
정부대응	조숙정(2016)	정보프로세스관점에서 본 감염병 행정의 현상진단과 개선방안
정부대응	조숙정(2017)	감염병 행정에 관한 정보프로세스의 비교연구
정부대응	주효진·장봉진(2020)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정부대응	진상명·주창범(2017)	감염병 관련 보건행정과 개선방안 연구
정부대응	풍배배·김재관(2020)	사스와 메르스를 중심으로 살펴 본 중국과 한국의 위기대응 비교
정부대응	최상욱·조기웅(2017)	메르스 사태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국가대응 거버넌스 개선방향
정부대응	최재욱(2015)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재난대응
정부대응	최재욱(2020)	코로나19 감염병 관리현황과 대응
정부대응	하민지(2020)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권건보(2020)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김용민(2020)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개정된 감염 3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고찰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박미정(2016)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박원규(2020)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박진아(2019)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제법의 감염병 통제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송승현(2015)	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송승현(2020)	감염병 위기와 입국금지부조치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심영규(2018)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양태정(2020)	감염병 유행과 국가배상책임(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을 중심으로)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윤익준(2018)	메르스를 통해 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문제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윤진아(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이경환(2016)	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이천현(2015)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 대응방안 연구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전병주(2020)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정태종(20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천병철(2011)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감염병 법률 및 법적 내용	한영만(2020)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감염병의 사회영향	고길곤·허정원·박정민(2021)	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대도시 코로나 19 대응 비교
감염병의 사회영향	김나현·오하영(2021)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 기반 COVID-19 Pandemic 분석결과
감염병의 사회영향	김대중·최요한(2020)	최근 신종감염병의 경제 영향 예측 및 대응
감염병의 사회영향	문인철(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감염병의 사회영향	박성원·김유빈(2020)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아울러 살펴 본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감염병의 사회영향	손창우(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
감염병의 사회영향	손현주(2021)	코로나19와 정치의 미래
감염병의 사회영향	이병휘·정하웅(2020)	트위터로 본 메르스(MERS)의 사회적 영향
감염병의 사회영향	이상환(2020)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감염병의 사회영향	이용광(2020)	메르스 유행 시기 신규인력 비중 변화로부터 살펴 본 감염병 확산이 콘텐츠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감염병의 사회영향	정의철(2021)	감염병 위기 속 '시민됨'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불평등에 맞선 '보건소통연구'의 역할 탐색
인식 및 예방활동	김승대(2019)	일부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인식의 분석
인식 및 예방활동	김여라(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김여라(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김옥태·김규찬(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김자영·방준석(2016)	중동호흡기증후군과 지카바이러스의 대응사례분석을 통한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방안
인식 및 예방활동	김정현(2010)	대학생 집단의 신종플루에 대한 인식과 지각적 편향
인식 및 예방활동	김활빈·오현정·홍다예 외 2인 (2018)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본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Ke Zang·이재은 (202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한 위험인식과 대응
인식 및 예방활동	송해룡·김원제(2017)	감염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유선옥·박계현·나은영(2009)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공포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및 예방활동	유우현·정용국(2016)	매스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언론보도	강혜정(2021)	신문기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 다문화 정보격차 비교분석

언론보도	김병건(2015)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사설의 비판적 담화 분석
언론보도	김병철(2019)	메르스 보도가 메르스 정보 검색행위에 미치는 영향
언론보도	김여라(2020)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언론보도	김용(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언론보도	김태종(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언론보도	박기수·이귀옥·최명일(2014)	다제내성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신종 감염병 보도 분석
언론보도	박건숙(2016)	전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
언론보도	박기수(2020)	해외 언론을 통해 살펴 본 감염병 보도 새 이정표
언론보도	박주현(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언론보도	박단비·권상희·강보영·김세진(2018)	텍스트와 이미지에 나타난 메르스 감염병 프레임 분석
언론보도	서도원·하태현(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천지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언론보도	서예령·고금석·이재우(2021)	빅데이터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마스크 관련 언론 보도 및 태도 변화 분석
언론보도	손달임(2020)	감염병 보도에 나타난 타자와 경계 -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문의 상호텍스트적 분석
언론보도	손달임(2020)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살펴 본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언론보도	송해룡·조항민(2015)	국내 언론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 특성 분석
언론보도	유건식(2020)	코로나19 시대와 방송 제작 방식의 변화
언론보도	이서현·진명지·최낙진(2020)	제주지역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변훈 지방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활용
언론보도	이주연·이신행(2021)	코로나19 보도 프레임의 자동화 판별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기계학습을 이용한 트위터 뉴스의 프레임 특성 분석
언론보도	이진로·안병규(2010)	국내 주요 일간지 사설을 통해 살펴 본 신종플루 담론의 형성 구조
언론보도	장솔지·하승태(2016)	사스와 메르스를 통해 살펴 본 국가재난상황시 성별에 따른 대통령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 연구
언론보도	전지영(2017)	지가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감염병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 분석

언론보도	정문섭(2020)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살펴 본 언론보도가 정보의 재난위기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언론보도	정의철(2008)	에이즈 뉴스 프레이밍 분석
언론보도	정지영·표시영(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언론보도	조민정·이신행(2021)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보도	조원광(2021)	한국의 공중 보건 위기 초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성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 보도에 대한 토픽 모델링
언론보도	주영기·유명순(2010)	신문 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언론보도	주영기·유명순(2011)	진단과 예후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분석
언론보도	진명지·이서현·최낙진(2020)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언론보도 활용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	최원주·홍장선(2021)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검색키워드 패턴 연구
언론보도	최종혁·소지연(2021)	코로나19 뉴스 프레임이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책임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언론보도	정지영·표시영(2020)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언론보도	한지원·김영옥(2021)	코로나19 한국대응관련 국내 진보-보수 언론의 외국보도 인용기사를 한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언론보도	함승경·김혜정·김영옥(2021)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언론보도	황현정·김기태·김형준(2021)	한국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기별 주제 분석
언론보도	허용강·차수연·서필교 외 2인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국내 주요 일간지에 불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분석

<부록 2> 보도자료 내용분석 코딩 유목

구분(대분류/중분류)		세부내용	
보도자료 분석시점	① 시점 1: 첫 사스 관련 보도 시작 1일전부터 한 달		
	② 시점 2: 첫 신종플루 관련 보도 시작 1일전부터 한 달		
	③ 시점 3: 첫 에볼라 관련 보도 시작 1일전부터 한 달		
	④ 시점 4: 첫 메르스 관련 보도 시작 1일전부터 한 달		
	⑤ 시점 5: 첫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작 1일로부터 한 달		
보도자료 유형	① 정책 홍보형	정책과 시책, 기관 업무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위 가운데 대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담긴 보도자료	
	② 정보 제공형	정책 등 이외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정보, 지식 중심)	
	③ 인물과 동정	유력 인사와 총수 등의 움직임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	
	④ 논평과 입장문	특정 사안에 대한 기관·단체의 의견 표명이 담긴 보도자료	
	⑤ 사진과 동영상	특정 상황과 감정, 제공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	
보도자료 제공형태		① 보도자료만 ② 보도자료+붙임자료 ③ 정례브리핑+붙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자료 정보원	① 한국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등), 지자체 등
		② 한국 전문가	한국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전문가 집단
		③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통화기금(IMF)
		④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非감염국 포함)
		⑤ 세계시민	해외의 감염국가 시민, 교민, 한인 등과 같이 해외 거주인
		⑥ 해외 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해외 전문가 집단
		⑦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감염 환자, 환자 가족들 등
		⑧ 확진자방문기관및업체	확진자 방문 기관, 업체, 주변 상인 등
		⑨ 한국 및 해외 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⑩ 한국 및 해외 기업	제약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⑪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의 민간시민단체, 각 전국민주노동총연맹 관계자 등
	⑫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초·중·고·대학 관계자, 학생(대학생 포함) 등
	⑬ 시민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자,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시민
	⑭ 자영업자	여행사, 수산업, 유학원 등
	⑮ 공항 관련 관계자	인천공항검역소, 방역소, 세관 업무 담당 등
	⑯ 유학생	감염병 발생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 등
	⑰ 의심추정환자가격리자	감염병 관련 고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나 항체검사, 바이러스 분리 실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경우, 밀접접촉 이후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자.
	⑱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촌진흥청, KOTRA
	⑲ 한국 및 해외 경찰	한국 및 세계 경찰 및 관련 관계자
	⑳ 군 관계자	육군, 해군 등 군 관련 관계자
	㉑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㉒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각 정당의 소속 되거나 무소속 정치인 등
	㉓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등 종교 관련 단체
	㉔ 법조계 관련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㉕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급식봉사단체 등
	㉖ 기타	세계수학자대회 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소방본부, 환경미화원, 간병인 중개업체, 관광버스기사, 통역사, 방과후 교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병원 관계자, 프로농구 연맹, 복싱 국가대표 감독, IOC, 우체국택배 노동자
보도자료 프레임	① 정책 프레임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정부지원 등
	② 정보 프레임	감염병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감염병 정보 등
	③ 경제 프레임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 집단, 정부 조직 등의 경제적 변화
	④ 사회영향 프레임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과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

	⑤ 갈등 프레임	법정분쟁, 도덕적 비난 등 갈등 묘사
	⑥ 책임 프레임	정부의 감염병 방역 대책 미흡, 방역 허점 등
	⑦ 설득 프레임	생활 속 방역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등
	⑧ 공포 프레임	감염병의 심각성 및 위험 강조, 공포 조장 등
	⑨ 예방 프레임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과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감염병 예방행동권고
	⑩ 인간흥미 프레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확진자, 의심자와 의료진의 노고 등을 다룬 내용
	⑪ 희망적 프레임	감염병의 위험과 대유행이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이 보도 확진자 감소, 백신 등과 같은 기술개발, 영업 및 수업 재개 등

<부록 3> 언론보도 내용분석 코딩 유목

언론사명		① 조선일보 ② 한겨레 ③ KBS ④ SBS	
언론보도 분석시점		① 시점 1: 첫 사스 관련 보도 시작일로부터 한 달	
		② 시점 2: 첫 신종플루 관련 보도 시작일로부터 한 달	
		③ 시점 3: 첫 에볼라 관련 보도 시작일로부터 한 달	
		④ 시점 4: 첫 메르스 관련 보도 시작일로부터 한 달	
		⑤ 시점 5: 첫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작일로부터 한 달	
보도 심층성	기사 심층성	① 사건발생	확진자 발생, 감염 사례, 확진자 퇴원 등과 같이 단순 사건 소개
		② 원인분석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소강 원인과 치사율에 대한 논의
		③ 영향분석	감염병이 현재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영향력
		④ 대응분석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기업, 개인 등의 대응책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도 함께 포함)
	취재 심층성	① 전문기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예: 의학기자, 군사전문기자 등)
		② 일반기자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자
		③ 특파원	해외에 파견된 취재기자
		④ 스튜디오 인터뷰	뉴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앵커 인터뷰 형식
보도 사실성		① 사실 중심적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분석
		② 추측·예측 중심적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분석
보도 방향성		① 긍정	정부(해외정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② 중립	상기의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하게 배치된 경우
		③ 부정	정부(해외정부) 유관기관의 느장대처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해 불신한다는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언론보도 정보원		① 한국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등), 지자체 등
		② 한국 전문가	한국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전문가 집단
		③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통화기금(IMF)
		④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非감염국 포함)
		⑤ 세계시민	해외의 감염국가 시민, 교민, 한인 등과 같이 해외 거주인

	⑥ 해외 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감염병 관련 해외 전문가 집단
	⑦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감염 환자, 환자 가족들 등
	⑧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확진자 방문 기관, 업체, 주변 상인 등
	⑨ 한국 및 해외 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⑩ 한국 및 해외 기업	제약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⑪ 시민단체·전국민주노총연맹	한국의 민간시민단체, 각 전국민주노총연맹 관계자 등
	⑫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초·중·고·대학 관계자, 학생(대학생 포함) 등
	⑬ 시민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자,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시민
	⑭ 자영업자	여행사, 수산업, 유학원 등
	⑮ 공항 관련 관계자	인천공항검역소, 방역소, 세관 업무 담당 등
	⑯ 유학생	감염병 발생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 등
	⑰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감염병 관련 고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나 항체검사, 바이러스 분리 실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경우, 밀접접촉 이후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자.
	⑱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촌진흥청, KOTRA
	⑲ 한국 및 해외 경찰	한국 및 세계 경찰 및 관련 관계자
	⑳ 군 관계자	육군, 해군 등 군 관련 관계자
	㉑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㉒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각 정당의 소속 되거나 무소속 정치인 등
	㉓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등 종교 관련 단체
	㉔ 법조계 관련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㉕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급식봉사단체 등
㉖ 기타	세계수학자대회 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소방본부, 환경미화원, 간병인 중개업체, 관광버스기사, 통역사, 방과후 교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병원 관계자, 프로농구 연맹, 복싱 국가대표 감독, IOC, 우체국택배 노동자	
언론보도	① 정책 프레임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정부지원 등

프레임	② 정보 프레임	감염병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감염병 정보 등
	③ 경제 프레임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 집단, 정부 조직 등의 경제적 변화
	④ 사회영향 프레임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과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
	⑤ 갈등 프레임	법정분쟁, 도덕적 비난 등 갈등 묘사
	⑥ 책임 프레임	정부의 감염병 방역 대책 미흡, 방역 허점 등
	⑦ 설득 프레임	생활 속 방역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등
	⑧ 공포 프레임	감염병의 심각성 및 위험 강조, 공포 조장 등
	⑨ 예방 프레임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과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감염병 예방행동권고
	⑩ 인간흥미 프레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확진자, 의심자와 의료진의 노고 등을 다룬 내용
	⑪ 희망적 프레임	감염병의 위험과 대유행이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이 보도 확진자 감소, 백신 등과 같은 기술개발, 영업 및 수업 재개 등

Abstract

A Study on Press Coverage in the Early Stages of Virus Diseases

Jin, Myeong-Ji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a reports during the first month after the outbreak of five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SARS, H1N1, Ebola virus diseas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hile analyzing the press release characteristic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urther comparisons and analyses were conducted on information sources and which are common content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First,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by the media company and infectious disease, we tried to determine the depth, factual nature, direction, source, and the frame of the report.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ess releas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types of press releases, sources, and frames were identified and differentiated from media reports. The analysis period was one month after the initial report about infectious disease. In particular, in order to intensively examine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the initial month of the analysis period was subdivided from week 1 to week 4 in order to determine weekly changes. The press release analysis period was set for one month. The analysis targets are four media companies,

Chosun Ilbo, Hankyoreh, SBS, and KBS, as well as the www.eyesurfer.com program, which provides original newspaper articles that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We set the analysis period on the KBS News 9 (www.news.kbs.co.kr) and SBS News 8 (www.news.sbs.co.kr) websites to find related content, selecting only articl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through replay and scriptor services. In total, 2,549 news articles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this process.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a company's reporting on infectious diseases, all companies focused the most on response analysis (1,309, 42.5%) and the least on cause analysis (379, 12.3%). In addition, regarding the in-depth coverage of each media company, the number of was the largest, with only 262 articles (10.0%) professional reporters, a relatively small number. Regarding to the factuality, both newspapers and broadcasters provided reports on a fact-centered basis.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reports, most reports (2,226, 87.4%) were of neutral tone, with more negative reports (290, 11.4%) than positive ones (32, 1.3%). According to the sources of media reports by each media company,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1,259, 31.1%), followed by Korean experts (615, 15.2%).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s by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nalysis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t the time of the SARS, MERS, and COVID-19 outbreaks (89, 34.8%), followed by disease impact analysis for the Ebola virus (27, 34.6%). Regarding the depth of coverage, all infectious diseases were covered by general reporters while,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fact-oriented articles were the most common.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report, neutral reports were the most common for all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types of sources found in media reports, the Korean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sources for SARS (105, 24.4%), H1N1 (82, 30.6%), MERS (595, 34.8%), COVID-19 (459, 29.9%), and Ebola virus (27, 20.0%).

Third, regarding the frame types of media reports,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frames were the most common at 1,489 (34.2%). In addition, newspapers had a higher proportion of economic frames than did broadcasters, while broadcasters had higher persuasion and frames than did newspapers. Furthermore, both newspapers and broadcasters had the least amount of prevention frames.

Fourth, looking at the types of media coverage frames for each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frames were used the mos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information frames was the highest. In addition, policy frames were used for the Ebola virus (29, 25.4%), economic frames for SARS (49, 10.2%), social impact frames for COVID-19 (336, 20.1%), and horror frames for H1N1 (56, 16.9%).

Fifth, as a result of dividing the initial month of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by week and examining the reporting characteristics of each media company, impact analysis and response analysis were found to be remarkable in terms of the depth of the articles in the first week. In the second week, there were even more articles on impact analysis, with Hankyoreh confirming that the number of articles on response analysis increased by nearly 16% compared to the first week. Unlike the first week, when there were many impact analysis articles, SB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articles to response analysis increased by about 20% in the second week. In the third week, all media companies had the most articles on response analysis, with a few still reporting on cause analysis. In the fourth week, all media companies still ha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on response analysis, with the Chosun Ilbo and SBS reporting a slightly higher rate of incidents. With regard to the in-depth coverage, Chosun Ilbo and KBS in the first week ha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of articles reported by correspondents after general reporters, while Hankyoreh and SBS had a high percentage of articles by professional reporters. In the second week, only KBS and SBS broadcasters ha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of correspondents after general reporters but, in the third and fourth weeks, all media companies ha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of correspondents after general reporters. Next, regarding the factuality of the repor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fact-oriented reports without any difference between weeks. In terms of reporting direction, all media companies had the most neutral reports regardless of weeks, followed by negative and positive articles. By selecting only 7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out of 26 for each media company, it was found that in the first week, the foreign, Korean, and local governments accounted for a high percentage. In the second week, unlike the first week,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and civic bodies were ranked at the top instead of global citizens and overseas experts. In the third week, overseas experts as well as Korean experts appeared replacing global organizations as top sources. In the fourth week, institutions and companies visited by confirmed patients appeared as the top sources. Next, by selecting only the top 7 out of 11 types of media frames per week, in the first week, information frame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all media companies, followed by the social impact frame for Chosun Ilbo and KBS, and the policy frame for Hankyoreh and SBS. In the second week, all reports of infectious diseases by media companies used information frames the most, with the rate of horror frames decreasing in newspapers but increasing in broadcasts. In the third week, the Chosun Ilbo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social impact, conflict, responsibility, KBS persuasion, SBS information, and horror frames than did other media companies. In the fourth week, unlike the third week,

Sixth,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s by week for each infectious disease, in terms of depth of the article, in the first week, articles focused more on response analysis and impact analysis at the time of SARS, H1N1, Ebola virus disease, COVID-19, and the MERS outbreaks. In the second week, there were articles on the incidence and response analysis to

SARS and H1N1. There were also many articles on impact analysis and response analysis for Ebola virus disease, MERS, and COVID-19. In the third week, reports related to SARS and H1N1 focused on impact and response analyses, while reports on the Ebola virus disease focused on incidence and impact analysis. H1N1 reports in the fourth week, unlike the third week, were focused on the incidence and cause analysis, and it was found that the also increased. Next, regarding the in-depth coverage, the proportion of general reporters was high except for MERS and COVID-19 in the first week, and although there was only a slight difference, MERS had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ional reporters and COVID-19 correspondents. In the second and third weeks,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general reporters provided the most covered. In the fourth week, SARS, Ebola virus disease, and COVID-19 ha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of correspondents after general reporters, while H1N1 and MERS had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of professional reporters after general reporters. Next, regarding the factuality of repor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overwhelmingly many fact-oriented reports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and week. Regarding the direction, in the first week, neutral reports were the mos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and, in the second week, the proportion of negative reports was the highest at the time of the MERS outbreak. In the third week, the overall ratio of negative information reports by infectious disease was higher than in the second week, and there was no positive reports about SARS, H1N1, and Ebola virus disease although there were a few for MERS and COVID-19. In the fourth week, the overall ratio of neutral reports increased, while negative information decreased, and positive information was found for all other infectious diseases except H1N1. Next, regarding the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in the first week, the most common information source for SARS, H1N1, and MERS were the Korean and local governments, while for Ebola virus disease and COVID-19, the most common were

overseas sources. Unlike the first week,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in the second week appeared to be regular citizens information sour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uring the outbreak of SARS, MERS, and COVID-19, Korean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commonly used sources, whereas foreign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most used sources for H1N1, and global organizations were the most used sources for the Ebola virus disease. In the third week, there was an institutions and companies visiting confirmed patients and Korean and overseas companies appeared. In general, there was a high rate of information sources from the Korean, local, and overseas governments, although for MERS and COVID-19, the main information sources were institutions and companies visiting confirmed patients. In the fourth week, global organizations and regular citizens were the most used sources. Only information sources related to global organizations, overseas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Korean experts, and overseas governments were the most used sources for other infectious diseases. Next, regarding the types of frames by week for each infectious disease, in the first week, information and social impact frames were used during the SARS and COVID-19 outbreak, policy and information frames were used for H1N1 and Ebola virus disease, and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y frames were used for MERS. In the second week, the ratio of social impact frames and fear frames increased and the ratio of policy frames for COVID-19 increased. In the third week, the frame type was generally similar to the second week, but the difference was that the ratio of horror frames for the Ebola virus disease increased; in the fourth week, the frame type was similar to that in the third week.

Seventh, regarding the press release characteristic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erms of the press release type, provision type, information source, and frame, the press release type (113, 51.1%) was the most common. By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providing types were

the most common for SARS, MERS, and COVID-19, while policy-promotion types were the most common for H1N1 and Ebola virus diseases. In terms of the types of press releases by infectious disease, 89 articles(48.9%) were "only press releases" and the most common in four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except for COVID-19, for which 19 articles(34.5%) included press releases and attachments. On examining the types of press release sources by infectious disease, the Korean and local governments (178, 93.2%) made up the most common source,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Regarding the types of press release frames by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frames in press releases about SARS, H1N1, MERS, and COVID-19, while policy framers were the most common in press releases about the Ebola virus disease(47.4%). Finally, comparing the information sources for press releases and media reports,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the most used sources. Comparing the frame types of press releases and media reports revealed that information frames were the most important frame type for both. With regard to the press release frame type, information, policy, prevention, persuasion, economic, conflict, and responsibility frames accounted for about 23% of the total.

These results reconfirm the fact tha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reports that present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e medical and scientific fields because the proportion of professional reporters is low. In addition, encouraging anxiety through fear frames in broadcasting reports in the early stages of infectious diseases is not desirable; thus, we should avoid speculation and exaggeration and organize a report frame that can urge the public to respond appropriately and prevent the spread of inaccurate information. In other words, frames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preventing confusion and encouraging people to participate in quarantine while improving government response capabilities with correct media reports in the early stages of an infectious disease outbreak.

Key words: Infectious diseases, pandemic, media dependence, risk communication, news frame.

감사의 글

2015년,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배움에 대한 흥미가 생겨날 무렵, 출산과 육아로 인해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 박사학위논문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매순간들이 제 인생에 있어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혼자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님을 알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박경숙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수님의 헌신적인 지도로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숙명여자대학교의 강형철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마동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틀을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주신 김경호 교수님, 최낙진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논문의 이론적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신 김희정 교수님과, 박사과정 첫 학기 때부터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주셨던 안도현 교수님,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이서현 교수님, 여러모로 곁에서 도움을 줬던 이지화 조교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맘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는 부모님과,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지해주셨던 시부모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공부하는 아내를 묵묵히 응원하고 보듬어주던 고마운 남편과, 엄마랑 놀고 싶지만 엄마가 척척박사가 될 때 까지 기다리겠다던 착한 아들, 준서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곁에서 다독여 주었던 언니와 형부, 친구들, 학부모로 만났지만 끈끈한 우정을 다지고 있는 언니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미처 지면으로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나열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하며,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지 올림